



대전시 주택개발사업에서의 인구이동

Immigration in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임병호

—

DAEJEON
DEVELOPMENT
INSTITUTE

기본연구보고서 2011-15

대전시 주택개발사업에서의 인구이동

Immigration in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임 병 호

연구진

연구책임

- 임병호 / 도시기반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요약>

제1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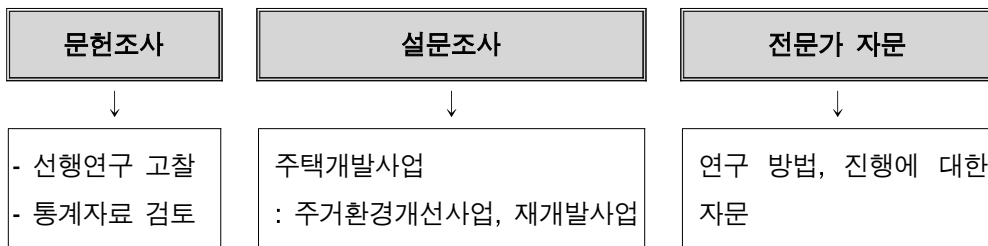
제1절 연구목적

이 연구에서는 대전시의 일반적인 인구이동패턴과 함께, 완료된 주택개발사업에서 어떠한 인구이동이 진행되었으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대전시 각종 계획수립 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주택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어느 정도의 외부인구가 유입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주택개발사업’이 계획·전개될 경우, 어느 정도의 인구증가를 예측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

연구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문헌조사는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및 통계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한편 주거환경개선사업지와 재개발사업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연구의 방향과 방법론에 대한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다.



[그림 1] 연구의 진행방법

제2장 선행연구 고찰

인구이동과 관련한 관심과 연구는 그동안 도시계획이나 지리 그리고 교통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원희(1988), 이외희 외(2001), 장욱 외(2001), 안종욱 외(2002), 이외희 외(2002), 김갑성(2006), 이희연 외(2006), 이외희 외(2007), 이희연 외(2008), 백승인 외(2009), 전유신(2009), 정주희 외(2011) 등 최근에 진행된 연구를 고찰하였으며, 이들 연구에 대한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적 보완점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인구이동에 관련한 연구가 대부분 수도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많은 도시 및 주택개발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다양한 지역연구가 필요 시 되고 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인구이동 관련한 연구가 대부분 택지개발사업, 즉 신도시나 신시가지로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최근 신개발에 대한 요구보다 기성시가지에 대한 정비 등이 보다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이러한 측면에서의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2가지의 연구과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을 시도하였다.

첫 번째, 선행연구가 대부분 수도권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다양한 지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전시를 대상으로 연구를 추진한다. 대전시를 중심으로 전국의 인구이동패턴이나, 대전시 내부인구이동 등을 분석하도록 한다.

두 번째로, 선행연구의 주요 대상이 택지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는 연구대상을 보다 확장하고자 한다. 즉 이 연구에서는 최근 보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토록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대전시 내 완료된 주거환경개선사업지와 재개발사업지에서의 인구이동 특성을 도출하였다.

제3장 대전시 인구이동 현황 및 패턴

제1절 대전시 인구이동 현황

1. 대전시 인구이동

1990년 이후 대전시로의 전입인구를 살펴보면, 충청남도로부터의 전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1990년 전체 전입인구의 10.99%, 2000년 8.24% 그리고 2010년 8.13%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가 1990년(6.41%)과 1995년(6.03%)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00년 이후는 경기도의 점유비중이 높아져 2000년 5.28%, 2005년 5.63% 그리고 2010년은 6.24%로 높은 점유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대전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전출한 지역은 충청남도로서 1990년 전체 전출인구의 6.85%, 2000년 6.93% 그리고 2010년은 8.04%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1990~2000년간은 서울시가 차지하였는데, 서울시 전출비율은 1990년 6.14%, 1995년 4.91% 그리고 2000년 6.15%를 차지하였다. 한편 2005년은 경기도가 6.77% 그리고 2010년 6.84%로 충청남도 이후 많은 전출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제한 순이동인구(사회적 인구이동)를 살펴보면, 2010년의 경우 전라북도와 경상남도로부터 사회적 인구유입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시와 경기도로의 사회적 인구유출이 진행되어 전체적으로 사회적 인구감소가 진행되었다.

2. 자치구별 인구이동

1) 전입인구

2000년 자치구별 전입지역을 살펴보면, 서구의 경우 서울시로부터 전입(17.6%)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성구는 경기도로부터의 전입인구비율(21.9%)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대덕구는 충청북도로부터의 전입비율이

15.9%로 그리고 중구의 경우 충청남도로부터의 전입비율이 29.8%로 높게 나타났다.

2010년의 경우, 유성구는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의 전입이 각각 16.8%와 21.8%로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덕구는 충청북도로부터의 전입비율이 15.8%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서구의 경우 충청남도로부터의 전입비율이 28.1%로 높게 나타났다.

2) 전출인구

2000년 대전시 자치구별 전출인구비율을 살펴보면, 서구는 서울시로 전출이 22.3%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유성구의 경우 경기도로의 전출이 24.8%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대덕구는 충청북도로 전출비율이 15.9%로 그리고 중구는 충청남도로의 전출비율이 27.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0년의 경우, 유성구는 서울시로 전출비율이 19.6% 그리고 경기도로 전출비율이 22.3%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구성을 나타냈으며, 대덕구는 충청북도로 전출비율이 15.0% 그리고 중구는 충청남도로의 전출비율이 26.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순이동 인구

2000년의 경우 5개 자치구에서 순이동 인구가 '+', 즉 사회적 인구증가를 보였으며, 2010년의 경우 유성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 즉 사회적 인구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2000년의 경우 5개 자치구에서 모두 충청남도로부터의 전입이 가장 많고, 서울시로의 전출이 가장 많은 일률적인 인구이동 패턴을 보였다.

한편 2010년의 경우 자치구별로 상이한 인구이동패턴을 보였는데, 동구의 경우 부산시로부터 전입 그리고 경기도로의 전출이라는 이동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중구의 경우 전라남도로부터 전입 그리고 경기도로의 전출패턴을 보였다. 서구의 경우 충청남도로부터 전입이 가장 많고 서울시로의 전출이 많은 인구이동 경로를 보였고, 유성구의 경우, 경기도로의 전입이 가장 많고, 서울시로의 전출이 가장 많은 특징적 패턴을 나타냈다. 대덕구의 경우, 전라북도로부터 전입과 경기도로의 전출이 많은 인구이동패턴을 보였다.

3. 대전시 내부이동 : 동간 인구이동

1) 2001년 동별 전출입 인구

2001년 76개 대전시 동별 전출입 비율을 도출하면, 가장 전출 점유비율이 높은 동은 회덕2동으로 대전시 전체 전출의 3.27%를 차지하며, 다음은 가수원동으로 3.03%를 차지하고 있다. 전입 점유비율이 가장 높은 동은 온천 2동으로 대전시 전체 전입자의 6.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가수원동으로 4.12%이다.

2) 2009년 동별 전출입 인구

2009년 대전시 동별 전출입 비율을 도출하면, 전출입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동은 구즉동으로 나타났는데, 구즉동은 2009년 대전시 총 전출의 3.95%를 차지하며, 총 전입의 5.20%를 점하고 있다. 또한 갈마 2동의 전출비율은 2.90%로서 구즉동 다음의 순이며, 노은 2동의 전입비율은 2.91%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구즉동은 대덕테크노밸리사업이 진행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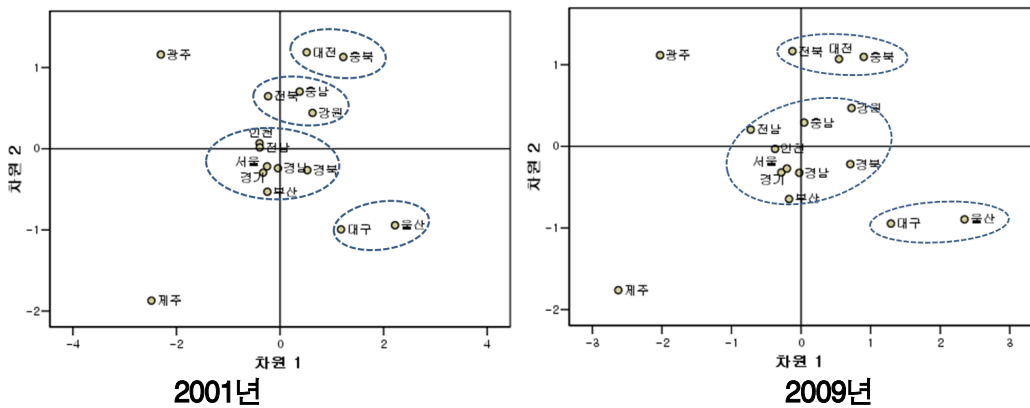
제2절 대전시 인구이동 패턴(Pattern)

1. 전국의 인구이동 패턴

2001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전출입 점유비율을 기초로 다차원척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간적 분포는 2차원(dimension)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Stress값은 0.54483으로 나타났고, 분석의 설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 RSQ값은 0.68326으로 나타났다. 한편 16개 시도의 공간적 인접정도를 도식화한 결과, 대전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충청북도와 인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청남도는 전라북도나 강원도와 밀접한 인구이동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다차원분석 결과를 보면, 공간적 분포는 2차원(dimension)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Stress값은 0.49468 그리고 분석의 설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 RSQ값은 0.71010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로 제시된 ‘유클리디안 거리모형’을 보면, 대전시는 전라북도와 충청북도와 공간적으로 인접하여, 이들 지역과 전출입이 밀접하게 진행되고 있음이 도식적으로 확인되었으며, 반면 충청남도는 전라 남도와 강원도 그리고 인천시 등과 인접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에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경상남도 등이 전출입상 밀접한 인접성을 갖는 그룹으로 파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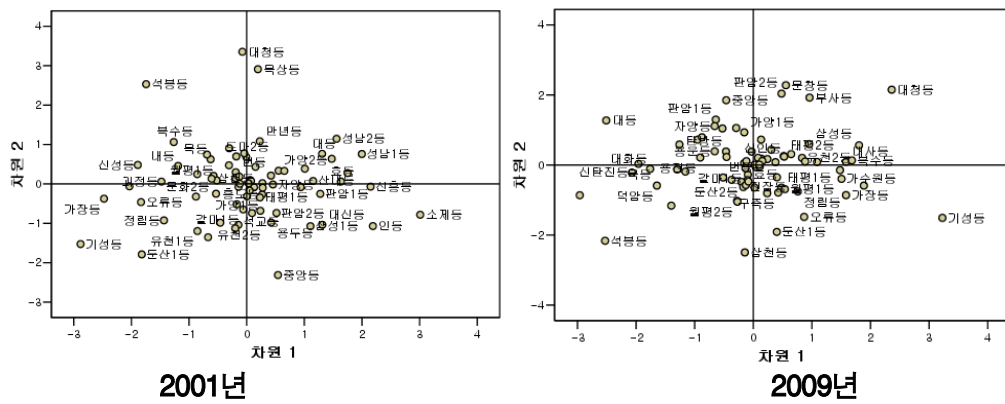
[그림 2] 전국인구이동 패턴 : MDS 분석결과

2. 대전시 내부이동 패턴

□ 다차원분석(MDS)

2001년 대전시 76개 동의 전출입수를 기초로 다차원척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공간적 분포는 2차원(dimension)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Stress값은 0.77250로 나타났고, 분석의 설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 RSQ값은 0.38541이다. 분석결과로 제시된 ‘유클리디안 거리모형’을 보면, 대다수의 많은 동들이 서로 밀접한 전출입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정한 동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청동과 목상동은 서로 밀접한 전출입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석봉동, 기성동, 중앙동, 소재동 등은 상대적으로 다른 동에 비해 독립적인 전출입 패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대전시 77개 동의 전출입수를 기초로 다차원척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2차원(dimension)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Stress값은 0.74042로 나타났고, 분석의 설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 RSQ값은 0.41000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로 제시된 ‘유클리디안 거리모형’을 보면, 2001년과 유사하게 많은 동들이 밀접한 전출입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정한 분포를 가지는 동으로는, 대청동, 기성동, 삼천동, 석봉동, 신탄진동, 대동 등으로 나타났으며, 판암 2동과 문창동, 부사동은 하나의 밀접한 전출입 패턴을 갖는 그룹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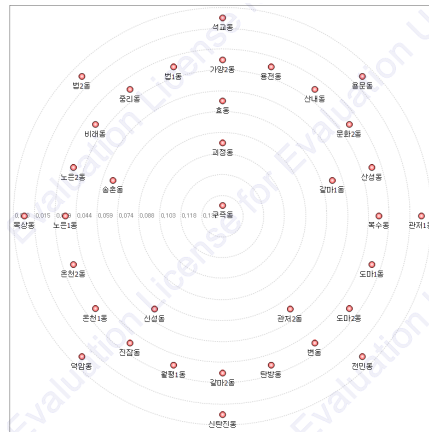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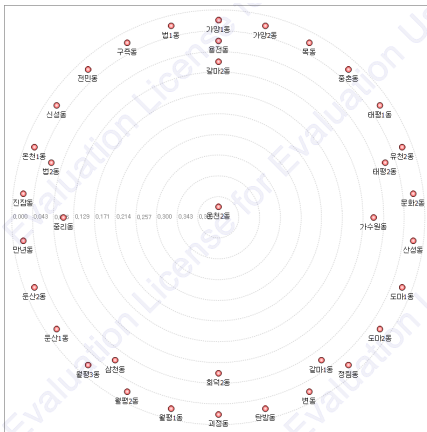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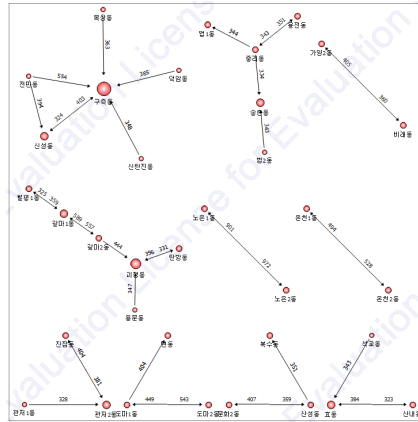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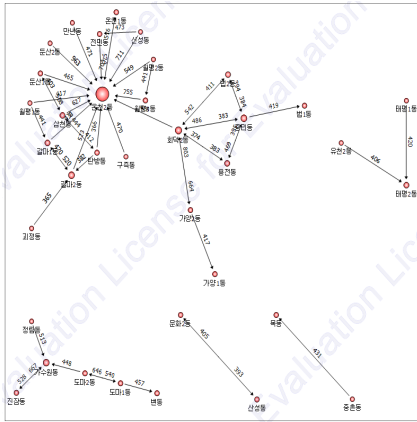


2001년 2009년
[그림 3] 대전시 내부 인구이동 패턴 : MDS 분석결과

□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2001년 대전시 동별 전출입수를 기초로, 동별 인구이동의 결절점 및 위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한 결과, 2001년 대전시 동별 인구이동은 온천 2동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천 2동의 In-Degree Centrality는 0.428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회덕 2동이 0.114286이다.

2009년의 인구이동은 구즉동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즉동의 In-Degree Centrality는 0.1470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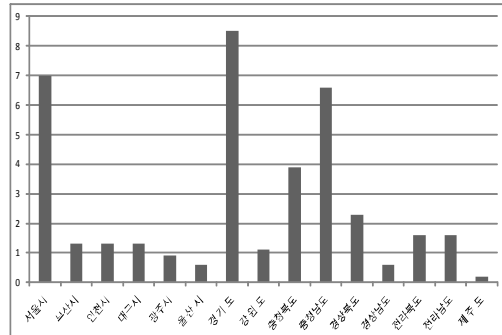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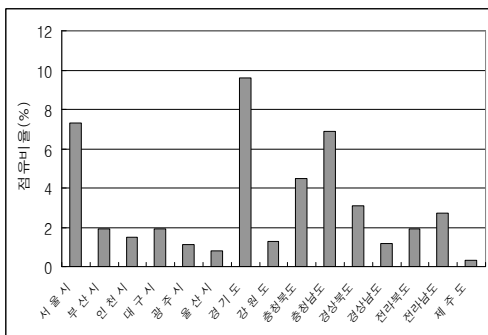


2001년 2009년
 [그림 4] 대전시 인구이동 네트워크 구조

2. 테크노밸리개발사업지구 전입인구

2001년 구즉동으로의 총 전입인구는 5,702명이며, 이중 대전시 내부 전입자는 3,075명으로 전체 전입자의 53.9%를 차지하고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대덕구로부터의 전입자가 19.1%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서구로 13.6%이다. 대전시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전입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546명으로 전체 전입자의 9.6%를 차지하며, 다음은 서울시로 418명 7.3% 그리고 충청남도 6.9%의 순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로부터의 전입비율은 4.5%이다.

대덕테크노밸리사업이 진행된 이후인 2009년 유성구 구즉동으로 전입현황을 살펴보면, 총 10,697명이 전입하였으며, 이중 대전시로부터 내부이동은 61.1%인 6,541명이다. 내부이동을 지자체별로 보면, 대덕구가 19.3%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유성구가 16.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전시 외부지역으로부터 전입현황을 보면, 경기도로부터 전입이 911명 8.5%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서울시로부터 전입이 7.0%, 충청남도로부터 전입은 6.6%로 나타났다.



2001년 : 구즉동
[그림 6] 구즉동 전입자의 이천거주지 구성비율 : 대전시 제외

제2절 기성시가지 주택개발사업의 인구이동

1. 조사대상지

이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 주택개발사업은 총 4개소이며, 이중 3개소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이며, 1개소는 재개발지구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천동1지구, 봉산지구 그리고 대신1지구이며, 재개발지구는 목동1지구이다. 이 연구를 위한 조사 매수는 총 540매로 전체 5,517세대의 약 9.8%에 해당한다.

2. 인구이동 및 이동원인

□ 원거주민 입주비율

현 거주지에 대한 주택개발사업이 진행되기 이전부터 거주하였던 원거주민에 대한 조사결과, 원거주민은 8.1%로 나타났다. 사업별로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거주민 입주비율이 7.9%로 재개발사업 10.0%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민 재정착률은 14.2%로 유추되었다.

□ 현 거주지로 이사 오기 직전의 거주지

현 거주지로 이사 오기 이전 거주지에 대한 조사결과, 대전시가 전체의 85.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전시 외 지역은 14.3%이다.

한편 사업유형별로 보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대전시가 이전거주지인 비율이 87.9%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 85.4%에 비해 2.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현 거주지로 이사동기

현거주지로의 이사동기는 '넓고 좋은 주택으로 옮기려고'라는 응답이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직장변동(취직 등) 때문에'라는 응답으로 전체의 11.3%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해'라는 응답이 10.9%로 높게 나타났다.

사업유형별로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넓고 좋은 주택으로 옮기려고'라는 응답이 전체의 25.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직장변동(취직 등) 때문에'라는 응답이 11.4%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해'라는 응답이 10.5%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재개발지역의 경우 가장 많은 점유비중은 '넓고 좋은 주택으로 옮기려고'라는 응답(21.2%)이나, 다음은 '자녀 교육여건 때문에'라는 응답으로 18.2%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양받은 주택으로 이사하려고'라는 응답이 16.7%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다른 이사동기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3. 주거환경 만족도

□ 현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주거환경에 대한 종합만족도는 2.84점으로 '대체로 만족'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6개 부문- ① 주택품질 ② 단지의 물리적 환경 ③ 단지의 사회적 환경 ④ 접근성 ⑤ 주변환경 및 시설 ⑥ 경제적 환경-으로 구분하여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단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3.0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주택품질이 2.96점, 단지의 사회적 환경이 2.93점, 경제적 환경이 2.73점, 접근성이 2.66점 그리고 주변환경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2.5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업유형별로 보면, 재개발의 종합만족도가 3.10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2.80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현 거주지로 주거이동에 대한 만족도

현 주거지(아파트단지)로의 주거이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86.2%로 높게 나타났다. 사업유형별로는 재개발사업의 만족도가 97.1%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만족도 84.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결론

연구결과로부터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로, 대전시 전출입은 충청남도과 경기도 그리고 서울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2005년 이후 경기도와의 인구교류(이동)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또한 자치구별로 보면, 전출입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유성구는 서울시와 경기도, 대덕구는 충청북도 그리고 중구의 경우 충청남도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은 조사 및 분석결과는 대전시 차원에서 인구이동 패턴을 이해하고, 향후 인구이동의 패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2년 이후 대전시와 인접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가 건설되어, 관련부처와 공무원이 이전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인구이동 패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로 주택개발사업 유형별 전입특성을 분석한 결과, 신규지역에 대한 주택개발사업의 내부이동은 60% 이상인 것이 ‘간접적’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기성시까지 주택개발사업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내부이동이 85.7%로 나타났다. 즉 주택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내부이동이 전체의 60%~85%를 차지할 것이라는 점이 예측 가능하다. 한편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시 및 주택개발사업 시 외부유입 인구 증가를 30%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적용치는 실제로 이 연구에서 실시한 기성시까지 주택개발사업에서의 외부유입인구 증가율(1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향후에는 도시정비차원에서 정비사업이 많이 진행될 것이며, 이 경우 외부유입률이 현재 대전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적용하는 수치보다 낮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기성시까지 주택개발사업에서 원거주민 입주비율이 약 8%인 것으로 나타났고, 원거주민의 재정착률은 14.2%로 유추되었다. 주택개발사업 유형별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정착률이 13.8% 그리고 재개발사업의 경우 16.5%로 도출되었다. 서울시내 재개발지역 원주민 재정착률(2002년 이후 6년간)이 44%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전시 주택개발사업에서의 재정착률 제고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의 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한 많은 노력과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목 차 -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5
제2장 이론적 고찰	11
제1절 인구이동관련 이론	11
제2절 선행연구 고찰	14
제3절 인구이동패턴 분석법	19
제3장 대전시 인구이동 현황 및 패턴	25
제1절 대전시 인구이동 현황	25
제2절 대전시 인구이동 패턴	46
제4장 대전시 주택개발사업 유형별 인구이동 특성	61
제1절 신규지역 주택개발사업의 인구이동	61
제2절 기성시가지 주택개발사업의 인구이동	75
제5장 결론	91
제1절 연구내용 요약	91
제2절 정책적 시사점	94
참고문헌	97
부록	101

- 표 목 차 -

<표 2- 1> 이동유형에 따른 이동결정요인.....	13
<표 3- 1> 대전시 전입인구.....	25
<표 3- 2> 대전시 전출인구.....	27
<표 3- 3> 대전시 순이동 인구.....	28
<표 3- 4> 1995년 대전시 자치구별 전입인구.....	30
<표 3- 5> 2000년 대전시 자치구별 전입인구.....	31
<표 3- 6> 2005년 대전시 자치구별 전입인구.....	32
<표 3- 7> 2010년 대전시 자치구별 전입인구.....	33
<표 3- 8> 1995년 대전시 자치구별 전출인구.....	34
<표 3- 9> 2000년 대전시 자치구별 전출인구.....	35
<표 3-10> 2005년 대전시 자치구별 전출인구.....	36
<표 3-11> 2010년 대전시 자치구별 전출인구.....	37
<표 3-12> 대전시 자치구별 순이동 인구	38
<표 3-13> 2001년 대전시 동별 전출입 인구 점유비율 : 동의 점유비율이 2% 이상인 동.....	40
<표 3-14> 2001년 대전시 동별 순인구이동 점유비율.....	41
<표 3-15> 2009년 대전시 동별 전출입 인구 점유비율 : 동의 점유비율이 2% 이상인 동.....	43
<표 3-16> 2009년 대전시 동별 순인구이동 점유비율.....	44
<표 3-17> 2001년 전국 광역자치단체간 전출·입점유비율.....	46
<표 3-18> 2001년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순이동점유비율.....	47
<표 3-19> 2009년 전국 광역자치단체간 전출·입점유비율.....	49
<표 3-20> 2009년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순이동점유비율.....	50
<표 4- 1> 노은택지개발사업지구 현황.....	61
<표 4- 2> 2001년 온천 2동의 전입인구 구성.....	62
<표 4- 3> 2001년 온천 2동으로의 대전시 내부이동.....	63
<표 4- 4> 2009년 노은 1동의 전입인구 구성.....	65

<표 4- 5> 2009년 노은 1동으로의 대전시 내부이동.....	66
<표 4- 6> 대덕테크노밸리 개발계획.....	68
<표 4- 7> 2001년 구즉동의 전입인구 구성.....	69
<표 4- 8> 2001년 구즉동으로의 대전시 내부이동.....	70
<표 4- 9> 2009년 구즉동의 전입인구 구성.....	72
<표 4-10> 2009년 구즉동으로의 대전시 내부이동.....	73
<표 4-11> 조사대상 주택개발사업지구.....	75
<표 4-1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76
<표 4-13> 주택점유형태 변화.....	77
<표 4-14> 원거주민 입주비율.....	78
<표 4-15> 이전 거주지.....	80
<표 4-16> 이전 거주지 : 광역자치단체 기준.....	81
<표 4-17> 이전 거주지 : 대전시내 동 기준.....	82
<표 4-18> 현 거주지로의 이사동기.....	84
<표 4-19>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86
<표 4-20> 현 주거지(아파트단지)로의 주거이동에 대한 만족도.....	87

- 그림 목 차 -

(그림 1- 1) 연구의 진행방법	5
(그림 1- 2) 연구의 진행과정	7
(그림 2- 1) 항공거리에 MDS를 적용한 결과에 의한 그림	20
(그림 2- 2) 가상적 네트워크에서 중심성의 의미	22
(그림 3- 1) 대전시 전입인구비율 변화	26
(그림 3- 2) 대전시 전출인구비율 변화	27
(그림 3- 3) 대전시 순인구이동 변화 추이	29
(그림 3- 4) 대전시 자치구별 순인구이동 변화	39
(그림 3- 5) 대전시 동별 순인구이동 점유비율 ; 2001년	42
(그림 3- 6) 대전시 동별 순인구이동 점유비율 ; 2009년	45
(그림 3- 7)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순이동점유비율 : 2001년	47
(그림 3- 8) 2001년 전국 인구이동 패턴 : MDS 분석결과	48
(그림 3- 9)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순이동점유비율 : 2009년	51
(그림 3-10) 2009년 전국 인구이동 패턴 : MDS 분석결과	52
(그림 3-11) 2001년 대전시 내부 인구이동 패턴 : MDS 분석결과	53
(그림 3-12) 2001년 대전시 인구이동 네트워크 구조	55
(그림 3-13) 2001년 위세중심성 값의 변화	55
(그림 3-14) 2009년 대전시 내부 인구이동 패턴 : MDS 분석결과	56
(그림 3-15) 2009년 대전시 인구이동 네트워크 구조	58
(그림 3-16) 2009년 구즉동의 위세중심성 값의 변화	58
(그림 4- 1) 노은택지개발사업지구 위치도 및 전경	61
(그림 4- 2) 2001년 온천 2동 전입자의 이전거주지 구성비율 : 대전시 제외	63
(그림 4- 3) 2009년 노은 1동 전입자의 이전거주지 구성비율 : 대전시 제외	56
(그림 4- 4) 테크노밸리사업지구 위치도 및 계획도	68
(그림 4- 5) 2001년 구즉동 전입자의 이전거주지 구성비율 : 대전시 제외	70

(그림 4- 6) 2009년 구즉동 전입자의 이전거주지 구성비율 : 대전시 제외.....	73
(그림 4- 7) 점유형태 변화.....	77
(그림 4- 8) 주택개발사업지구 원거주민 입주비율.....	78
(그림 4- 9) 주택개발사업지구 이전거주지가 대전시인 거주자 비율.....	80
(그림 4-10) 대전시 외로부터 전입.....	82
(그림 4-11) 주거환경 만족도.....	87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대전시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주택개발사업이 진행되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주택개발사업이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주택개발사업으로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이 있으며, 특히 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택개발사업으로 주택이 공급될 경우, 특정지역에서는 전출 그리고 주택개발사업지로는 전입 등과 같은 인구이동이 진행되게 된다. 한편 주택개발사업의 규모가 클 경우, 많은 수의 전입과 전출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러한 인구이동은 도시의 인구구조나 분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구이동은 출생률 및 사망률과 더불어 한 지역의 인구성장 및 인구구조를 결정짓는 하나의 기본적인 요소이며, 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기능과 구조의 변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원희, 1988).

대전시는 1990년대 이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최근 많은 정비사업이 진행 또는 진행될 예정이다.¹⁾ 따라서 앞으로도 대전시 내 많은 인구이동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구이동이 실제 도시(대전시) 내에서 진행된 '인구이동'인지, 도시 외로 부터의 유입인구인지 그리고 그 인구이동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예측할 수 있다면, 향후 인구변화나 구조를 예측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며, 이는 도시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까지 대전시 인구이동의 특성이나 패턴 등에 대한 지역(도시)차원의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²⁾

1)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11, 대전광역시)'에서는 총 166개 정비예정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10개, 주택재개발사업 81개, 주택재건축사업 44개, 도시환경정비사업 31개)을 선정하고 있다.

2) 실제로 주택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인구이동과 관련한 대전시 관련 지역연구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연구로는 1988년 최원희에 의해 수행된 '대전시의 도시내부 인구이동의 구조와 사회, 경제적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전시의 일반적인 인구이동패턴과 함께, 완료된 주택개발 사업에서 어떠한 인구이동이 진행되었으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대전시 각종 계획수립 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주택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어느 정도의 외부인구가 유입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주택개발사업'이 계획·전개될 경우, 어느 정도의 인구증가를 예측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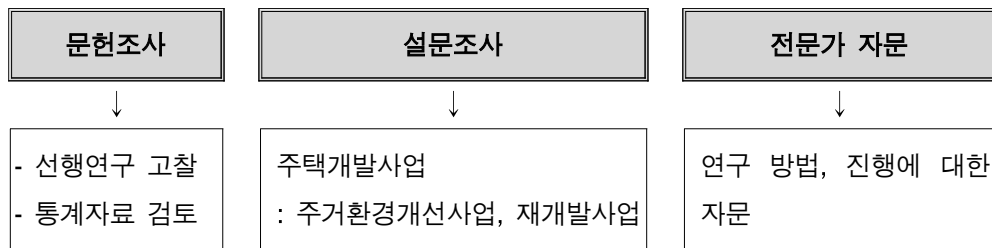
1.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문헌조사는 선행적으로 수행된 인구이동관련 연구를 검토하고, 선행연구의 특성과 한계점 등을 고찰하였으며, 대전시 인구이동 현황 및 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대전시 내 구체적인 동별 인구이동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통계청으로부터 2001년과 2009년 동별 인구이동자료를 구득, 분석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주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주거이동 실태조사(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러한 연구의 방향과 방법론에 대한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다.



[그림 1- 1] 연구의 진행방법

2. 연구의 내용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목차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명료하게 설정하였다. 또한 연구의 방법론과 이 연구에서 다루게 될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제2장 「이론적 고찰」에서는 인구이동관련 이론에 대한 검토와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구이동의 결과를 공간적으로 도식화하고, 인구이동의 패턴(네트워크)을 도출하고자, 다차원분석법(MDS; Multidimensional Scaling)과 사회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법을 고찰하였다.

제3장 「대전시 인구이동 현황 및 패턴」에서는 1990년대 이후 대전시 인구이동 및 패턴을 대전시, 자치구 및 동단위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동단위 인구이동은 통계청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제4장 「대전시 주택개발사업 유형별 인구이동 특성」에서는 신규 주택개발사업과 기성시가지 주택개발사업에서의 인구이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신규 주택개발사업의 경우, 노은택지개발사업지구와 대덕테크노밸리지구에서의 인구이동을 검토·분석하였으며, 기성시가지 주택개발사업의 경우 완료된 3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천동 1지구, 봉산지구, 대신 1지구)와 1개 재개발지구(목동 1지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인구이동 및 주거환경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정리, 요약하였으며,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1절 인구이동관련 이론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인구이동패턴 분석법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인구이동관련 이론

1. 인구이동의 개념

인구이동(migration)을 유엔에서는 “지리상 단위 지역간의 지리적 유동성(mobility), 즉 공간적 유동성의 하나의 형태이고, 일반적으로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주소변경을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Plane과 Rogerson(1994)은 인구이동을 사람들의 지역사이의 움직임(공간적 이동)이라 말하며, 움직임이란 지역단위의 설정, 측정기간의 설정, 측정방법의 설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³⁾

한편 인구이동과 유사한 개념으로 주거이동이 있다. 이러한 주거이동은 일반적으로 국내 이동의 한 유형으로, 1970년 유엔에 의하면 아주 국지적인 이동으로서 예를 들면 같은 근린집단이나 같은 읍내에서 이동, 대도시의 중심에서 그 주변으로의 이동 등 매우 좁은 범위 내에서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인구이동이라 부르지 않고 주거이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편이 적당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반면 인구이동은 일자리 등의 변화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나 국외이동을 말하나, 보통 사용하고 있는 이동은 행정구역을 넘어서 이주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Plane과 Rogerson 1994, p.93). 쉬요크(H.S. Shryock, Jr.)는 미국 인구통계국의 어휘에 따라 인구이동이라는 단어는 군(county)의 경계를 넘는 주택이동의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하였고, 시몬스(J.W. Simmons)는 도시내부의 인구이동에 대하여 도시내 이동(intra-urban mobility)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한주성 1999, p.288)⁴⁾

이 연구에서는 인구이동을 행정구역의 크기에 상관없이, 행정구역(동단위)을 넘어서 이주하는 이동이라는 일반적 이동의 의미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3) 안종욱 외, 2002, p.951

4) 이외희, 2002, p.9

2. 인구이동 결정요인⁵⁾

선행연구나 문헌 등을 통해 볼 때,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적, 중력적, 정책적, 쾌적도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인구이동에 대한 주원인을 경제학자들은 소득동기에 두고 있다. 인본자본이론에서처럼 기대수익의 현재가치가 보다 클 때 이주가 발생하고, 이러한 수익이 극대화되는 곳으로 방향이 결정된다. 여기서 기대수익의 의미는 소득뿐만 아니라 취업기회의 개념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도간 인구이동연구에서 취업기회와 실질소득이 영향을 미치며(장정호, 1995), 특히 농촌-도시간 이동연구에서는 소득이 목적지의 취업기회에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다(신현곤, 1986). 그러나 도시간 인구이동을 연구한 유경문(1990)의 결과에서는 경제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력모형에서는 거리가 인구이동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이주자수는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거리가 정보뿐만 아니라 직접적 비용, 심리적 비용의 대변수로 작용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거리의 경우 시도간, 도농간, 도시간의 모든 인구이동 연구에서(신현곤, 1986; 한주성, 1992; 이은우, 1993; 최홍석, 1998) 이동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누적이동량과 인구규모 역시(한주성, 1992; 이은우, 1993; 최홍석, 1998) 전출지 및 전입지의 인구이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나타났다.

정책적 요인으로는 조세부담, 행정서비스 등은 물론 교육기회, 주택건설 및 기타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정책을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시도간, 도시의 인구이동에서 지방세 부담률이나 정부의 총 세출 규모는 인구이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경문, 1990; 장정호, 1995). 그러나 행정서비스의 경우 시도간 인구이동(이백훈, 1980)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도시간 인구이동(최홍석, 1998)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교육기회는 인구이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유경문, 1990; 이은우, 1993; 장정호, 1995).

5) 이외희, 2002, pp.15-16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음

경제적인 소득이 증가하면서 삶의 질에 대한 욕구도 높아져 이러한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것으로 과거 경제적 모형에 쾌적도의 변수를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쾌적도를 변수로 이용한 도시간 인구이동에서는(유경문, 1990; 최홍석 1998) 쾌적도가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구이동과 구별하여 주거이동의 경우 가구특성, 주택특성, 주거입지특성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1> 이동유형에 따른 이동결정요인

구분	이동 결정 요인	비고
인구 이동	경제적 특성(지역소득정도, 실업률), 중력적 특성(인구규모, 거리), 정책적 특성(지방세, 공공서비스, 교육기회, 주택건설 등), 쾌적도 특성	지역간 이동
주거 이동	가구특성, 주택특성, 주거입지특성(쾌적성, 접근성, 경제성)	지역내 이동

출처 : 이외희, 2002, p.10

제2절 선행연구 고찰

1. 선행연구

인구이동과 관련한 관심과 연구는 그동안 도시계획이나 지리 그리고 교통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심은 인구이동이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하고, 그 결과가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많은 선행연구를 모두 고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진행된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최원희(1988), 이외희 외(2001), 장욱 외(2001), 안종욱 외(2002), 이외희 외(2002), 김갑성(2006), 이희연 외(2006), 이외희 외(2007), 이희연 외(2008), 백승인 외(2009), 전유신(2009), 정주희 외(2011) 등의 연구를 고찰하였으며, 이들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원희(1988)는 대전시 도시내부 인구이동의 구조와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거주구조론적(居住構造論的) 입장에서 대전시를 사례로 도시내부 인구이동의 구조와 사회·경제적 특성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주민등록부에서 도출한 O-D행렬을 기초로 요인분석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 7개 도착지 인구이동요인, 6개 출발지 인구이동요인을 도출하였으며, 6개 인구이동권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외희 외(2001)는 일반적인 수도권 인구이동현상을 검토하고, 경기도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유입인구 유출지에 대해서는 유출지 분포 및 이동거리, 통근통학에 대해서는 통근·통학지 분포와 통근·통학시간, 특히 이동에 따른 통행수단과 통근거리 변화 등을 검토하였고, 또한 이동에 따른 만족도 분석과 이동요인을 특정요인 즉 이동거리, 연령, 통근시간 등에 따라 세분하여 검토하였다. 조사결과, 지역내 이동률이 시흥 연성 2와 용인 수지를 제외하고는 30%~65%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적용하는 외부유입률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함을 지

적하였다. 한편 현재 거주지로 이주하게 된 요인은 주택관련 요인이 45.2%로 비중이 급증한 반면, 직장관련 요인과 가족관련 요인이 감소하고, 주거환경관련 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졌음을 제시하였다.

장욱 외(2001)는 부산 인접도시 택지개발지의 가구이동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를 위요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김해시, 양산시를 대상으로 이들 지역으로 이주한 가구의 주택 및 주거환경 특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인접도시와의 연계분석을 통해 광역도시개발에 따른 도시상호간의 가구이동 확인과 신개발지 유입가구에 대한 사회경제학적, 인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가구이동결정모형을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안종욱 외(2002)는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에서의 유입인구를 추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정 시·군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해당 시·군으로 유입되는 가구수를 추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또한 택지개발사업지역의 유입인구에 대한 이동패턴을 파악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유입인구를 추정하기 위하여 Filtering Process를 적용한 Markov Chain으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특정 도시의 도시기본계획상에서 대규모 개발로 인한 유입인구 추정에 있어 개발계획인구 전체를 사회적 증가인구로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이외희 외(2002)는 수도권 지역에서의 인구이동 흐름을 살펴보고, 경기도 이동인구 및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 및 주택특성을 그리고 경기도내 일부지역을 선정하여 가구특성 및 이동에 따른 주거 및 주택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인구증가 및 이동에 따른 주택 및 도시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김갑성(2006)은 수도권의 택지개발과 인구유입과의 관계를 연립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택지개발은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을 발생시키며 이렇게 하여 유입된 인구는 다시 택지개발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즉 수도권의 주택건설과 인구유입간에는 상호 인과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수도권인 인구유입은 주택요인, 직업요인, 교육요인이 원인이 되어 영향을 받으며, 이중 주택요인과 교육요인과는 상호 인과관계를 가져 인구유입이 주택과 교육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희연 외(2006)는 네트워크분석으로 수도권의 공간구조변화(1980-2000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의 공간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출발지와 목적지간에 노동력 유동이라고 볼 수 있는 통근통행 데이터를 토대로 하여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방법을 도입하였다.

또한 이희희 외(2007)는 다양해지는 경기도의 인구유입 특성과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의 인구유입 특성 및 지역특성에 따른 인구유입을 살펴보고, 신도시개발의 정책 나아가서는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 등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희연 외(2008)는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 인구이동과 통근통행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2005년 인구센서스자료와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로서, 지난 10년 동안 신도시들의 자족수준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제1기 신도시들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자족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서울로의 통근통행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모두 약 10% 내외로 감소되는 반면 주간인구지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신도시들의 개발 초기에는 주거기능의 물리적 시설만이 갖추어져 있어 서울로의 의존도가 매우 높았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 내에서의 고용 기회 창출로 인해 서울로의 의존도가 줄어들어 가고 있으며, 직주 불균형도 점차 완화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백승인 외(2009)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방식에 따른 주거환경 만족도를 조사·분석하였다. 즉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방식인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의 특성을 비교·고찰하고, 사업방식에 따른 주거환경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지구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시흥시로 선정하고, 수용방식 2개 지구, 환지방식 2개 지구 등 4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수용방식으로 개발된 주택단지의 거주민 만족도가 환지방식으로 개발된 주택단지의 거주민 만족도보다 모두 높게 나타나며 분산분석결

과 그 차이가 유의함이 증명되어 사업방식별 주거환경 만족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전유신(2009)은 경기도에서 완료된 594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각 개별 공동주택의 외부유입률과 함께 도시계획사업 유형별 특성(사업규모, 추진현황 등)과 경기도 인구이동 실태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자체별 외부유입률, 사업규모별 인구유입률, 조사인구 연령별 인구유입률, 개발사업유형별 외부유입률 등을 제시하였다. 경기도 신규공동주택의 외부유입률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적용한 외부인구유입률이 지나치게 높게 적용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외부유입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발사업 유형과 개발사업의 규모임을 밝혔다.

정주희 외(2011)는 주택개발사업 유형별로 거주민의 통근행태의 차이와 통근수단 선택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주택공급정책과 교통정책의 연관성을 제고하고,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파생될 수 있는 교통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과제

이 연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선행적으로 진행된 연구를 검토한 결과, 2가지 측면에서 연구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첫 번째는 인구이동에 관련한 연구가 대부분 수도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많은 도시 및 주택개발 관련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다양한 지역연구가 필요 시 되고 있다. 즉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와 지방에서 수행된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인구이동에 대한 동향이나 특성 등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교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지역(지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이러한 인구이동 관련한 연구가 대부분 택지개발사업, 즉 신도시나 신

시가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최근 신개발에 대한 요구보다 기성시가지에 대한 정비 등이 보다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이러한 측면에서의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도시의 녹색성장 등과 같은 패러다임에 기초해 볼 때, 인구이동과 관련한 연구가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결과로 제시된 2가지의 연구적 관점이나 과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을 시도하였다.

첫 번째, 선행연구가 대부분 수도권권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보다 다양한 지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전시를 대상으로 연구를 추진한다. 대전시를 중심으로 전국의 인구이동패턴이나, 대전시 내부인구이동 등을 분석하도록 한다. 특히 대전시는 곧 인접하여 세종시라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인구이동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에 진행될 인구이동 패턴과 비교 차원에서의 선행적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선행연구의 주요 대상이 택지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는 연구대상을 보다 확장하고자 한다. 즉 이 연구에서는 최근 보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토록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대전시 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대전시의 인구이동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3절 인구이동패턴 분석법

대전시 인구이동 패턴을 분석하고자 하는 이 연구에서는 인구이동의 패턴을 공간적, 가시적으로 표현하고자 다차원 척도법을 이용하였으며, 또한 인구이동이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 등 인구이동의 위계 및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차원 척도법과 사회네트워크 분석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다차원 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DS)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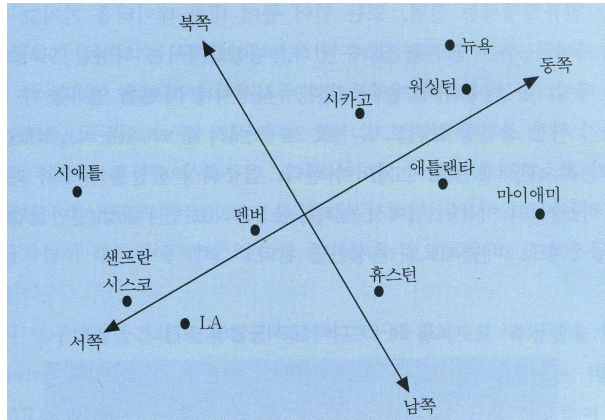
다차원 척도법은 특정 연구대상들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또는 각종 지표 등과 같이 객관적인 근접성(proximity)의 정도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 데이터 속에 감추어져 있는 구조(차원)를 발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간 거리를 기초로 지도를 만드는 것처럼, 연구 대상들의 근접성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대상들의 인접정도를 공간적으로 표현해 주는 통계방법의 하나이다.

다차원 척도법에서는 스트레스(Stress)값을 제시하고 있는데, 스트레스값은 근접성 데이터에 감추어진 구조(차원)를 찾고, 연구대상들간의 실제 근접성 데이터가 도표 위의 연구대상들간의 거리와 얼마나 잘 맞는지를 나타내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즉 스트레스값은 연구대상의 인접정도 데이터의 반영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값이 크면 클수록 인접정도 데이터와 공간적 거리가 잘 맞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적합도 판단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RSQ는 회귀분석에서의 R^2 와 유사한 개념으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0.6 이상이면 설명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1]은 항공거리를 기초로 작성한 각 도시별 거리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6) 최현철(2007)과 이학식 외(2005)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출처 : 최현철(2007), p.399에서 재인용

[그림 2- 1] 항공거리에 MDS를 적용한 결과에 의한 그림

□ 사회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⁷⁾

이 연구에서 대전시 인구이동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또 다른 분석법으로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사회네트워크 분석방법은 그래프 이론을 더 발전시킨 것으로, 결절점(nodal points)과 연결선(links)으로 네트워크상의 흐름(flow)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네트워크 분석은 개인간 상호작용이나 관계 분석에서부터 조직간, 지역간, 국가간 관계에서 형성되는 구조적 지위나 지배력을 파악하는데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국제간 항공여객 흐름이나 국제무역 및 도시공간구조 분석이나 도시간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계층성을 파악하는데도 적용되고 있다(Alderson & Beckfield, 2004). 실제로 Smith & Timberlake(2002)는 세계 항공여객 유동 데이터를 토대로 사회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세계도시체계 내에서 세계도시들의 지배력을 분석하였으며, Irwin & Hughes(1992)는 사회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통근 네트워크 구조에서 각 도시의 중심성을 산출하여 대도시권의 공간구조를 파악하였다.

7) 이희연 외(2006), 손동원(2002), 김용학(2007)의 내용에서 발췌 정리하였음

사회네트워크 분석에서 각 결절점의 중심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연결중심성(Cd)과 위세중심성(Ci)을 도출한다.

연결중심성(Cd; Degree Centrality)은 (식 1)과 같이 한 점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들의 합으로 얻어진다. 따라서 다른 결절점들과 직접 연결되는 연결선수가 많을수록 연결중심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C_d = \frac{A \text{와 직접연결된 결절점수}}{\text{네트워크전체 결절점수} - 1} \dots\dots\dots (\text{식 1})$$

연결정도 중앙성이 연결수를 중시한다면, 위세 중앙성은 연결된 상대방의 중요성에 가중치를 준다. ‘호랑이를 쫓아가는 여우에게 호랑이의 위엄이 이전되듯이’ 강자와의 단 하나의 연결이 다른 여러 행위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보다 자신의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반영한 것이 위세지수 또는 위세중심성이다.

위세중심성 또는 위세중앙성(C_i ; Prestige Centrality)의 일반적인 형태는 보나시치 권력지수, 또는 보나시치 중앙성 지수라고도 부른다. 이 지수는 자신의 연결정도 중앙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영향력과 자신과 연결된 타 행위자의 영향력을 합하여 위세중앙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식 2)에서 위세중앙성은 $\alpha=0$, $\beta=1$ 인 특수한 경우이다. 만일 $\alpha=0$, $\beta=1$ 인 경우는 자신의 연결 정도와 타인으로부터 오는 위세 점수가 같은 비중을 갖는 것으로 합해진다.

$$P_i(\alpha, \beta) = \sum_j^N (\alpha + \beta P_j) Z_{ij} \dots\dots\dots (\text{식 2}), \text{ 단 } -1 < \beta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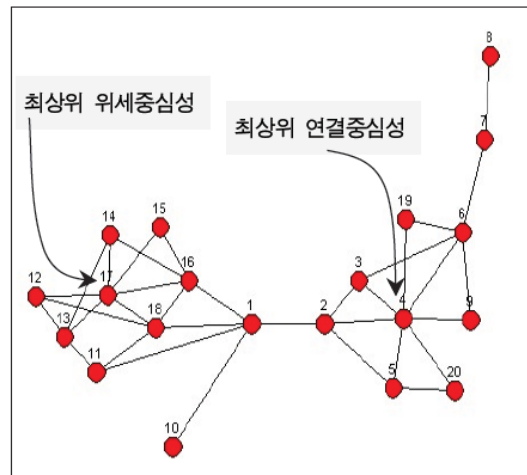
α , β 는 연구자가 임의로 설정하는 값이다. 연결망 내에서 타 행위자의 영향력(위신도)이 긍정적·보완적 관계에 있다면 β 값은 양의 값을 가지며, 부정적·경쟁적 관계를 갖는다면 음의 값을 갖도록 결정한다. 이론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alpha=0$, $\beta=1$ 인 위세 점수를 사용하는 것이 무난하다.

가상적인 연결망을 통해, 중심성 개념을 살펴보면 [그림 2- 2]와 같다.

먼저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결절점은 4번 결절점이다. 이 결절점은 전체 19개의 연결 가능한 결절점들 가운데서 7개 결절점들과 직접 연결되어 가장 많은 연결

선수를 보이고 있다. 다른 결절점들과 직접 연결되는 연결선수를 가장 많이 가진 결절점이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게 산출된다.

한편 위세중심성이 가장 높은 결절점은 17번 결절점이다. 이 결절점은 6개의 다른 결절점들(12, 13, 14, 15, 16, 18번)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연결중심성도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4번 결절점에 비하면 직접 연결된 결절점 수가 1개 적다. 그러나 17번 결절점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6개의 결절점들을 보면 모두 서로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주변 결절점들의 연결중심성들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4번 결절점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7개의 결절점(2, 3, 5, 6, 9, 19, 20번)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연결정도가 약함을 알 수 있다. 즉 17번 결절점은 상대적으로 연결수를 많이 가진 결절점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결절점들과 연결되어 있는 4번 결절점보다는 더 많은 위세 또는 지배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출처 : 이희연 외(2006), p.136

[그림 2- 2] 가상적 네트워크에서 중심성의 의미

제 3 장

대전시 인구이동 현황 및 패턴

제1절 대전시 인구이동 현황

제2절 대전시 인구이동 패턴

제3장 대전시 인구이동 현황 및 패턴

제1절 대전시 인구이동 현황

1. 대전시 인구이동

1) 전입인구

1990년 이후 대전시로의 전입인구를 살펴보면, 충청남도로부터의 전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1990년 전체 전입인구의 10.99%, 2000년 8.24% 그리고 2010년 8.13%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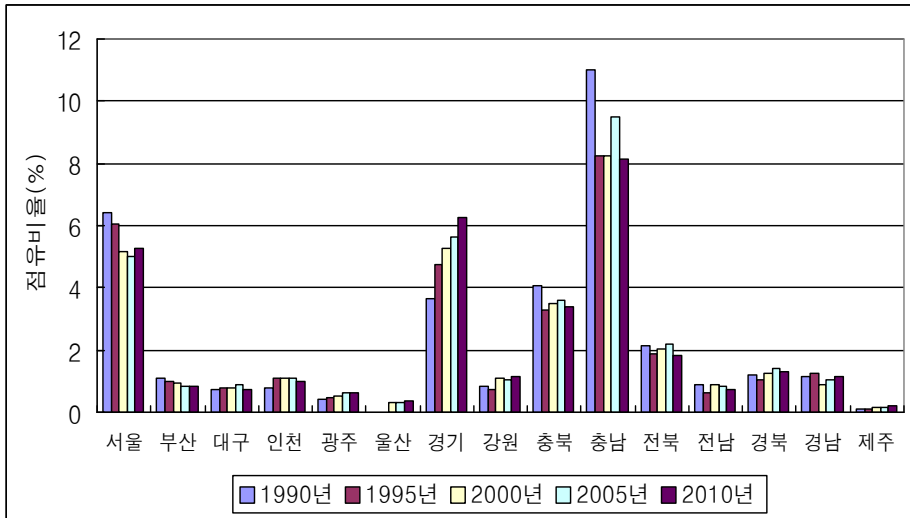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서울시가 1990년(6.41%)과 1995년(6.03%)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00년 이후는 경기도의 점유비중이 높아져 2000년 5.28%, 2005년 5.63% 그리고 2010년은 6.24%로 높은 점유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3- 1> 대전시 전입인구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전국	296,756	100.0	314,804	100.0	312,560	100.0	287,835	100.0	262,432	100.0
시내	194,537	65.55	216,372	68.73	211,847	67.78	189,569	65.86	175,962	67.05
서울	19,028	6.41	18,989	6.03	16,154	5.17	14,366	4.99	13,819	5.27
부산	3,308	1.11	3,068	0.97	3,012	0.96	2,391	0.83	2,266	0.86
대구	2,169	0.73	2,502	0.79	2,378	0.76	2,528	0.88	1,956	0.75
인천	2,334	0.79	3,370	1.07	3,515	1.12	3,088	1.07	2,589	0.99
광주	1,286	0.43	1,539	0.49	1,640	0.52	1,817	0.63	1,633	0.62
울산	-	-	-	-	952	0.30	846	0.29	929	0.35
경기	10,766	3.63	14,881	4.73	16,514	5.28	16,201	5.63	16,368	6.24
강원	2,493	0.84	2,245	0.71	3,329	1.07	3,047	1.06	2,976	1.13
충북	12,026	4.05	10,399	3.30	10,937	3.50	10,349	3.60	8,853	3.37
충남	32,617	10.99	25,953	8.24	25,750	8.24	27,386	9.51	21,341	8.13
전북	6,373	2.15	5,849	1.86	6,427	2.06	6,372	2.21	4,814	1.83
전남	2,614	0.88	2,028	0.64	2,785	0.89	2,357	0.82	1,977	0.75
경북	3,616	1.22	3,227	1.03	3,949	1.26	4,081	1.42	3,474	1.32
경남	3,348	1.13	4,001	1.27	2,849	0.91	2,931	1.02	2,953	1.13
제주	241	0.08	381	0.12	522	0.17	506	0.18	522	0.20

주 : 2010년도 이동인구수는 각 월별 합계임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그림 3- 1] 대전시 전입인구비율 변화

2) 전출인구

1990년~2010년간 대전시에서 다른 광역자치단체로의 전출인구를 살펴보면 <표 3- 2>와 같다.

대전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전출한 지역은 충청남도로서 1990년 전체 전출인구의 6.85%, 2000년 6.93% 그리고 2010년은 8.04%를 차지하고 있다.

충청남도 이후 두 번째 전출인구가 많은 지역은 1990년~2000년간은 서울시가 차지하였는데, 서울시 전출비율은 1990년 6.14%, 1995년 4.91% 그리고 2000년 6.15%이다. 한편 2005년 이후 경기도가 충청남도 이후 많은 전출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5년 경기도로의 전출비율은 6.77% 그리고 2010년 전출비율은 6.8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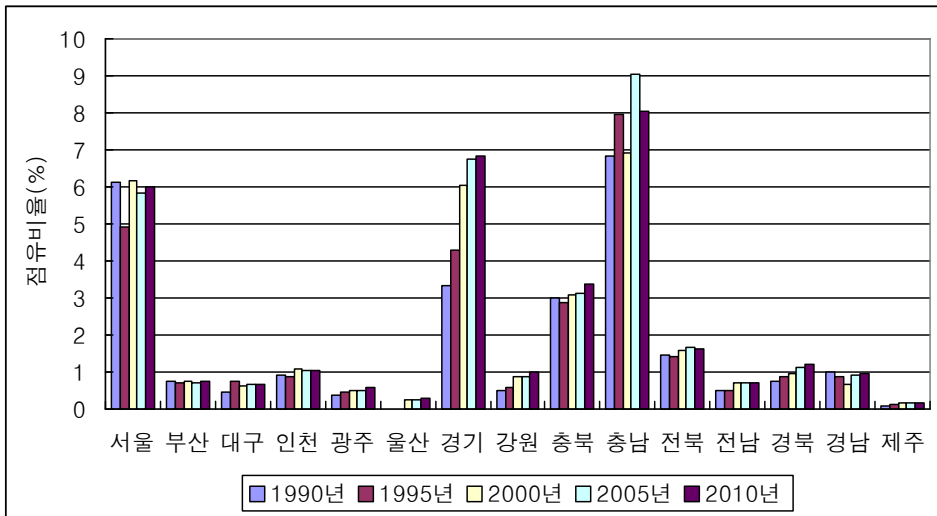
이와 같은 대전시 전출비율의 변화는 (그림 3- 2)와 같다.

<표 3- 2> 대전시 전출인구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전국	263,293	100.0	297,054	100.0	303,984	100.0	284,625	100.0	263,477	100.0
시내	194,537	73.89	216,372	72.84	211,847	69.69	189,569	66.60	175,962	66.78
서울	16,179	6.14	14,575	4.91	18,698	6.15	16,639	5.85	15,793	5.99
부산	1,945	0.74	2,119	0.71	2,227	0.73	2,042	0.72	1,976	0.75
대구	1,229	0.47	2,188	0.74	1,944	0.64	1,940	0.68	1,757	0.67
인천	2,456	0.93	2,577	0.87	3,273	1.08	2,946	1.04	2,762	1.05
광주	935	0.36	1,307	0.44	1,461	0.48	1,477	0.52	1,512	0.57
울산	-	-	-	-	765	0.25	715	0.25	745	0.28
경기	8,826	3.35	12,720	4.28	18,360	6.04	19,258	6.77	18,022	6.84
강원	1,268	0.48	1,711	0.58	2,700	0.89	2,454	0.86	2,603	0.99
충북	7,952	3.02	8,558	2.88	9,361	3.08	8,860	3.11	8,847	3.36
충남	18,041	6.85	23,668	7.97	21,068	6.93	25,723	9.04	21,192	8.04
전북	3,788	1.44	4,220	1.42	4,776	1.57	4,768	1.68	4,300	1.63
전남	1,294	0.49	1,549	0.52	2,163	0.71	1,952	0.69	1,815	0.69
경북	1,986	0.75	2,601	0.88	2,869	0.94	3,198	1.12	3,190	1.21
경남	2,582	0.98	2,552	0.86	2,008	0.66	2,572	0.90	2,549	0.97
제주	275	0.10	337	0.11	464	0.15	512	0.18	452	0.17

주 : 2010년도 이동인구수는 각 월별 합계임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그림 3- 2] 대전시 전출인구비율 변화

3) 순이동 인구

1990년~2010년간 대전시 순이동 인구(전입인구-전출인구), 즉 사회적 인구이동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3- 3>과 같다.

대전시는 1990년 33,463명의 사회적 인구증가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0년 8,576명 그리고 2010년의 경우 -1,045명으로 사회적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어, 대전시 차원의 인구유인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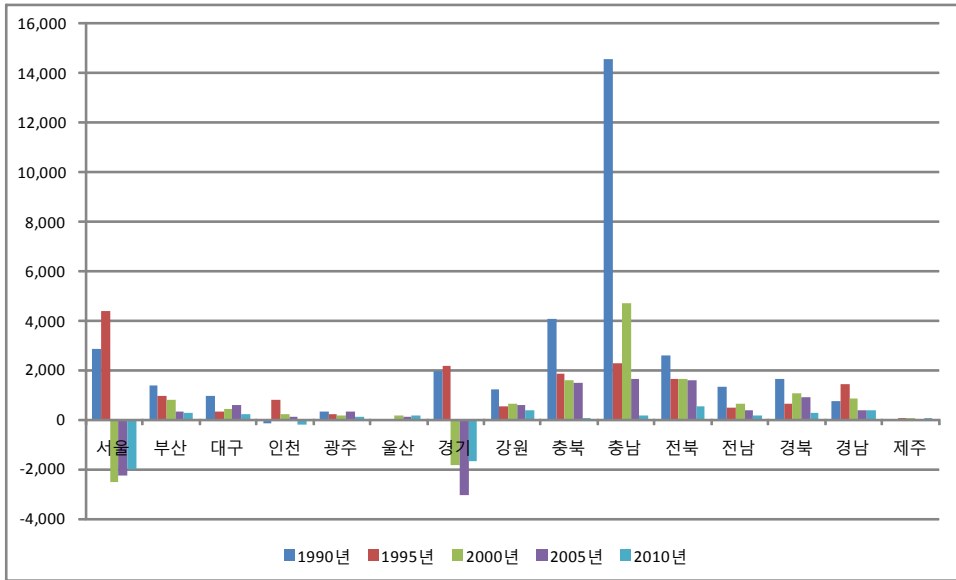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보면, 1990년의 경우 충청남도(14,576명)로부터의 인구유입이 많이 진행되었으며, 인천시(-122명)와 제주도(-34명)로의 전출이 진행되었다. 2000년의 경우도 충청남도(4,682명)로부터 전입이 지속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나, 서울시(-2,544명)와 경기도(-1,846명)로의 전출이 급속히 증가하여, 사회적 인구증가가 둔화되었다.

2010년의 경우 전라북도(514명)와 경상남도(404명)로부터 사회적 인구유입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시(-1,974명)와 경기도(-1,654명)로의 대규모 사회적 인구유출이 진행되어 전체적으로 사회적 인구감소가 진행되었다.

<표 3- 3> 대전시 순이동 인구

(단위 : 명)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전 국	33,463	17,750	8,576	3,210	-1,045
서 울	2,849	4,414	-2,544	-2,273	-1,974
부 산	1,363	949	785	349	290
대 구	940	314	434	588	199
인 천	-122	793	242	142	-173
광 주	351	232	179	340	121
울 산	-	-	187	131	184
경 기	1,940	2,161	-1,846	-3,057	-1,654
강 원	1,225	534	629	593	373
충 북	4,074	1,841	1,576	1,489	6
충 남	14,576	2,285	4,682	1,663	149
전 북	2,585	1,629	1,651	1,604	514
전 남	1,320	479	622	405	162
경 북	1,630	626	1,080	883	284
경 남	766	1,449	841	359	404
제 주	-34	44	58	-6	70



[그림 3- 3] 대전시 순인구이동 변화 추이

2. 자치구별 인구이동

1) 전입인구

□ 1995년

대전시 외부로부터의 전입인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대전시 내부 이동을 제외한, 1995년 대전시 자치구별 전입인구를 도출하면 <표 3- 4>와 같다.

전입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서구로서 약 33천명이며, 유성구가 약 14천명으로 가장 규모가 적다.

자치구별 전입지역을 살펴보면, 유성구의 경우 서울시(27.1%)와 경기도(17.4%)로부터의 전입인구비율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대덕구는 충청북도로부터의 전입비율이 14.7%로 그리고 중구의 경우 충청남도로부터의 전입비율이 32.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 4> 1995년 대전시 자치구별 전입인구

지역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전국	98,432	100.0	17,027	100.0	17,905	100.0	33,503	100.0	13,868	100.0	16,129	100.0
서울	18,989	19.3	2,610	15.3	3,112	17.4	6,717	20.0	3,762	27.1	2,788	17.3
부산	3,068	3.1	568	3.3	552	3.1	959	2.9	474	3.4	515	3.2
대구	2,502	2.5	463	2.7	417	2.3	754	2.3	391	2.8	477	3.0
인천	3,370	3.4	589	3.5	493	2.8	1,193	3.6	488	3.5	607	3.8
광주	1,539	1.6	218	1.3	278	1.6	547	1.6	213	1.5	283	1.8
경기	14,881	15.1	2,261	13.3	2,347	13.1	5,135	15.3	2,408	17.4	2,730	16.9
강원	2,245	2.3	354	2.1	365	2.0	735	2.2	364	2.6	427	2.6
충북	10,399	10.6	2,450	14.4	1,641	9.2	2,833	8.5	1,102	7.9	2,373	14.7
충남	25,953	26.4	4,708	27.7	5,811	32.5	9,759	29.1	2,309	16.6	3,366	20.9
전북	5,849	5.9	1,136	6.7	1,265	7.1	1,897	5.7	554	4.0	997	6.2
전남	2,028	2.1	402	2.4	354	2.0	576	1.7	319	2.3	377	2.3
경북	3,227	3.3	607	3.6	618	3.5	1,035	3.1	363	2.6	604	3.7
경남	4,001	4.1	594	3.5	560	3.1	1,241	3.7	1,073	7.7	533	3.3
제주	381	0.4	67	0.4	92	0.5	122	0.4	48	0.3	52	0.3

자료 : 온라인간행물(국내인구이동통계),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주 : 대전시 내부이동 제외

□ 2000년

2000년 대전시 자치구별 전입인구를 살펴보면 <표 3- 5>와 같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전입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서구로서 약 35천명이며, 동구가 약 16천명으로 가장 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전입지역을 살펴보면, 서구의 경우 서울시(17.6%)로부터 전입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성구는 경기도(21.9%)로부터의 전입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1995년과 유사하게, 대덕구는 충청북도로부터의 전입비율이 15.9%로 그리고 중구의 경우 충청남도로부터의 전입비율이 29.8%로 높게 나타났다.

<표 3- 5> 2000년 대전시 자치구별 전입인구

지역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전국	100,713	100.0	15,555	100.0	15,628	100.0	35,435	100.0	18,155	100.0	15,940	100.0
서울	16,154	16.0	2,088	13.4	2,440	15.6	6,224	17.6	3,165	17.4	2,237	14.0
부산	3,012	3.0	479	3.1	454	2.9	1,022	2.9	572	3.2	485	3.0
대구	2,378	2.4	318	2.0	343	2.2	872	2.5	472	2.6	373	2.3
인천	3,515	3.5	568	3.7	526	3.4	1,218	3.4	554	3.1	649	4.1
광주	1,640	1.6	188	1.2	230	1.5	669	1.9	269	1.5	284	1.8
울산	952	0.9	146	0.9	126	0.8	347	1.0	146	0.8	187	1.2
경기	16,514	16.4	2,102	13.5	2,238	14.3	5,623	15.9	3,974	21.9	2,577	16.2
강원	3,329	3.3	394	2.5	333	2.1	851	2.4	1,352	7.4	399	2.5
충북	10,937	10.9	2,463	15.8	1,663	10.6	2,989	8.4	1,287	7.1	2,535	15.9
충남	25,750	25.6	4,129	26.5	4,664	29.8	10,239	28.9	3,268	18.0	3,450	21.6
전북	6,427	6.4	1,101	7.1	1,132	7.2	2,234	6.3	904	5.0	1,056	6.6
전남	2,785	2.8	420	2.7	431	2.8	841	2.4	635	3.5	458	2.9
경북	3,949	3.9	682	4.4	587	3.8	1,188	3.4	819	4.5	673	4.2
경남	2,849	2.8	387	2.5	353	2.3	973	2.7	660	3.6	476	3.0
제주	522	0.5	90	0.6	108	0.7	145	0.4	78	0.4	101	0.6

자료 : 온라인간행물(국내인구이동통계),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주 : 대전시 내부이동 제외

□ 2005년

2005년 대전시 5개 자치구별 전입인구 및 비율은 <표 3- 6>과 같다.

자치구별 전입지역을 살펴보면, 유성구는 서울시(15.9%)와 경기도(18.8%)로부터의 전입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덕구는 충청북도로부터의 전입비율이 16.2%로 그리고 중구의 경우 충청남도로부터의 전입비율이 32.2%로 이전시기와 유사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3- 6> 2005년 대전시 자치구별 전입인구

지역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전국	98,266	100.0	12,979	100.0	14,668	100.0	34,476	100.0	24,189	100.0	11,954	100.0
서울	14,366	14.6	1,638	12.6	2,137	14.6	5,186	15.0	3,848	15.9	1,557	13.0
부산	2,391	2.4	277	2.1	359	2.4	762	2.2	716	3.0	277	2.3
대구	2,528	2.6	339	2.6	338	2.3	847	2.5	699	2.9	305	2.6
인천	3,088	3.1	400	3.1	458	3.1	1,120	3.2	736	3.0	374	3.1
광주	1,817	1.8	182	1.4	227	1.5	669	1.9	494	2.0	245	2.0
울산	846	0.9	103	0.8	130	0.9	292	0.8	208	0.9	113	0.9
경기	16,201	16.5	1,971	15.2	2,256	15.4	5,525	16.0	4,542	18.8	1,907	16.0
강원	3,047	3.1	324	2.5	311	2.1	774	2.2	1,340	5.5	298	2.5
충북	10,349	10.5	1,951	15.0	1,503	10.2	3,149	9.1	1,808	7.5	1,938	16.2
충남	27,386	27.9	3,692	28.4	4,726	32.2	10,384	30.1	5,634	23.3	2,950	24.7
전북	6,372	6.5	784	6.0	1,042	7.1	2,423	7.0	1,349	5.6	774	6.5
전남	2,357	2.4	271	2.1	302	2.1	801	2.3	663	2.7	320	2.7
경북	4,081	4.2	602	4.6	489	3.3	1,353	3.9	1,122	4.6	515	4.3
경남	2,931	3.0	385	3.0	328	2.2	976	2.8	911	3.8	331	2.8
제주	506	0.5	60	0.5	62	0.4	215	0.6	119	0.5	50	0.4

자료 : 온라인간행물(국내인구이동통계),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주 : 대전시 내부이동 제외

□ 2010년

2010년 대전시 자치구별 전입인구를 살펴보면 <표 3- 7>과 같다.

전국으로부터 대전시 5개 자치구별 전입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과 유사하게 유성구는 서울시(16.8%)와 경기도(21.8%)로부터의 전입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덕구는 충청북도로부터의 전입비율이 15.8%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서구의 경우 충청남도로부터의 전입비율이 28.1%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표 3- 7> 2010년 대전시 자치구별 전입인구

지역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전국	86,470	100.0	12,663	100.0	11,732	100.0	28,307	100.0	24,963	100.0	8,805	100.0
서울	13,819	16.0	1,774	14.0	1,926	16.4	4,672	16.5	4,191	16.8	1,256	14.3
부산	2,266	2.6	338	2.7	298	2.5	653	2.3	755	3.0	222	2.5
대구	1,956	2.3	228	1.8	242	2.1	596	2.1	679	2.7	211	2.4
인천	2,589	3.0	454	3.6	333	2.8	829	2.9	708	2.8	265	3.0
광주	1,633	1.9	175	1.4	193	1.6	632	2.2	490	2.0	143	1.6
울산	929	1.1	121	1.0	127	1.1	281	1.0	322	1.3	78	0.9
경기	16,368	18.9	2,268	17.9	2,048	17.5	4,898	17.3	5,438	21.8	1,716	19.5
강원	2,976	3.4	352	2.8	298	2.5	708	2.5	1,413	5.7	205	2.3
충북	8,853	10.2	1,888	14.9	1,271	10.8	2,509	8.9	1,798	7.2	1,387	15.8
충남	21,341	24.7	3,026	23.9	3,190	27.2	7,953	28.1	5,352	21.4	1,820	20.7
전북	4,814	5.6	706	5.6	718	6.1	1,705	6.0	1,141	4.6	544	6.2
전남	1,977	2.3	266	2.1	255	2.2	628	2.2	625	2.5	203	2.3
경북	3,474	4.0	581	4.6	407	3.5	1,108	3.9	999	4.0	379	4.3
경남	2,953	3.4	407	3.2	348	3.0	959	3.4	925	3.7	314	3.6
제주	522	0.6	79	0.6	78	0.7	176	0.6	127	0.5	62	0.7

자료 : 온라인간행물(국내인구이동통계),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주 : 대전시 내부이동 제외

2) 전출인구

□ 1995년

내부이동을 제외한, 1995년 대전시 자치구별 전출인구 및 비율을 살펴보면 <표 3- 8>과 같다.

전출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서구로서 약 26천명이며, 상대적으로 유성구가 약 8천명으로 가장 규모가 적다.

5개 자치구별 전출지역을 살펴보면, 유성구는 서울시(23.0%)와 경기도(18.7%)로의 전출인구비율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대덕구는 충청북도로의 전출비율이 14.7%로 그리고 중구는 충청남도로의 전출비율이 34.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 8> 1995년 대전시 자치구별 전출인구

지역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전국	80,682	100.0	16,956	100.0	17,014	100.0	25,642	100.0	7,965	100.0	13,105	100.0
서울	14,575	18.1	2,790	16.5	3,140	18.5	4,631	18.1	1,833	23.0	2,181	16.6
부산	2,119	2.6	520	3.1	388	2.3	607	2.4	250	3.1	354	2.7
대구	2,188	2.7	481	2.8	336	2.0	705	2.7	272	3.4	394	3.0
인천	2,577	3.2	547	3.2	484	2.8	782	3.0	277	3.5	487	3.7
광주	1,307	1.6	224	1.3	250	1.5	429	1.7	173	2.2	231	1.8
경기	12,720	15.8	2,520	14.9	2,403	14.1	4,068	15.9	1,491	18.7	2,238	17.1
강원	1,711	2.1	340	2.0	310	1.8	511	2.0	246	3.1	304	2.3
충북	8,558	10.6	2,333	13.8	1,532	9.0	2,158	8.4	605	7.6	1,930	14.7
충남	23,668	29.3	4,733	27.9	5,852	34.4	8,257	32.2	1,739	21.8	3,087	23.6
전북	4,220	5.2	904	5.3	969	5.7	1,293	5.0	371	4.7	683	5.2
전남	1,549	1.9	314	1.9	320	1.9	494	1.9	157	2.0	264	2.0
경북	2,601	3.2	633	3.7	495	2.9	771	3.0	237	3.0	465	3.5
경남	2,552	3.2	541	3.2	464	2.7	849	3.3	271	3.4	427	3.3
제주	337	0.4	76	0.4	71	0.4	87	0.3	43	0.5	60	0.5

자료 : 온라인간행물(국내인구이동통계),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주 : 대전시 내부이동 제외

□ 2000년

2000년 대전시 자치구별 전출인구 및 비율은 <표 3- 9>와 같다.

전출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서구로서 약 31천명으로 1995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대덕구의 전출인구는 약 14천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주요 전출지역을 살펴보면, 서구는 서울시로 전출비율이 22.3%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유성구의 경우 경기도로의 전출이 24.8%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대덕구는 충청북도로 전출비율이 15.9%로 그리고 중구는 충청남도로의 전출비율이 27.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 9> 2000년 대전시 자치구별 전출인구

지역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전국	92,137	100.0	15,194	100.0	14,807	100.0	31,184	100.0	16,878	100.0	14,074	100.0
서울	18,698	20.3	2,751	18.1	3,022	20.4	6,965	22.3	3,534	20.9	2,426	17.2
부산	2,227	2.4	382	2.5	342	2.3	752	2.4	461	2.7	290	2.1
대구	1,944	2.1	345	2.3	300	2.0	623	2.0	374	2.2	302	2.1
인천	3,273	3.6	575	3.8	519	3.5	1,112	3.6	486	2.9	581	4.1
광주	1,461	1.6	222	1.5	200	1.4	523	1.7	265	1.6	251	1.8
울산	765	0.8	155	1.0	108	0.7	241	0.8	138	0.8	123	0.9
경기	18,360	19.9	2,759	18.2	2,515	17.0	6,170	19.8	4,194	24.8	2,722	19.3
강원	2,700	2.9	344	2.3	254	1.7	654	2.1	1,128	6.7	320	2.3
충북	9,361	10.2	2,041	13.4	1,492	10.1	2,532	8.1	1,065	6.3	2,231	15.9
충남	21,068	22.9	3,507	23.1	4,012	27.1	7,800	25.0	2,864	17.0	2,885	20.5
전북	4,776	5.2	859	5.7	817	5.5	1,624	5.2	734	4.3	742	5.3
전남	2,163	2.3	304	2.0	312	2.1	652	2.1	561	3.3	334	2.4
경북	2,869	3.1	572	3.8	472	3.2	802	2.6	573	3.4	450	3.2
경남	2,008	2.2	299	2.0	340	2.3	587	1.9	432	2.6	350	2.5
제주	464	0.5	79	0.5	102	0.7	147	0.5	69	0.4	67	0.5

자료 : 온라인간행물(국내인구이동통계),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주 : 대전시 내부이동 제외

□ 2005년

2005년 대전시 자치구별 전출인구 및 비율을 정리하면 <표 3-10>과 같다.

자치구별 주요지역으로의 전출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성구는 서울시로 전출비율이 18.9% 그리고 경기도로 전출비율이 21.9%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구성비율을 나타냈으며, 대덕구는 충청북도로 전출비율이 14.8% 그리고 서구는 충청남도로의 전출비율이 29.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0> 2005년 대전시 자치구별 전출인구

지역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전국	95,056	100.0	13,164	100.0	14,646	100.0	34,423	100.0	20,370	100.0	12,453	100.0
서울	16,639	17.5	1,950	14.8	2,528	17.3	6,447	18.7	3,846	18.9	1,868	15.0
부산	2,042	2.1	285	2.2	273	1.9	673	2.0	549	2.7	262	2.1
대구	1,940	2.0	230	1.7	261	1.8	659	1.9	493	2.4	297	2.4
인천	2,946	3.1	420	3.2	463	3.2	1,098	3.2	541	2.7	424	3.4
광주	1,477	1.6	164	1.2	204	1.4	555	1.6	360	1.8	194	1.6
울산	715	0.8	118	0.9	101	0.7	236	0.7	137	0.7	123	1.0
경기	19,258	20.3	2,548	19.4	2,874	19.6	6,851	19.9	4,464	21.9	2,521	20.2
강원	2,454	2.6	291	2.2	295	2.0	656	1.9	948	4.7	264	2.1
충북	8,860	9.3	1,740	13.2	1,324	9.0	2,676	7.8	1,280	6.3	1,840	14.8
충남	25,723	27.1	3,456	26.3	4,242	29.0	10,200	29.6	4,830	23.7	2,995	24.1
전북	4,768	5.0	681	5.2	880	6.0	1,724	5.0	902	4.4	581	4.7
전남	1,952	2.1	244	1.9	256	1.7	634	1.8	544	2.7	274	2.2
경북	3,198	3.4	581	4.4	468	3.2	987	2.9	735	3.6	427	3.4
경남	2,572	2.7	397	3.0	387	2.6	839	2.4	628	3.1	321	2.6
제주	512	0.5	59	0.4	90	0.6	188	0.5	113	0.6	62	0.5

자료 : 온라인간행물(국내인구이동통계),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주 : 대전시 내부이동 제외

□ 2010년

2010년 대전시 자치구별 전출인구 및 비율은 <표 3-11>과 같다.

<표 3-11>에서 보면, 유성구는 서울시로 전출비율이 19.6% 그리고 경기도로 전출비율이 22.3%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구성비율을 나타내는 특성을 보였다.

한편 대덕구는 충청북도로 전출비율이 15.0%로 대전시 평균 10.1% 등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중구는 충청남도로의 전출비율이 26.6%로 서구(26.1%)와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3-11> 2010년 대전시 자치구별 전출인구

지역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전국	87,515	100.0	12,760	100.0	12,743	100.0	29,365	100.0	22,910	100.0	9,737	100.0
서울	15,793	18.0	1,976	15.5	2,216	17.4	5,688	19.4	4,496	19.6	1,417	14.6
부산	1,976	2.3	258	2.0	294	2.3	640	2.2	553	2.4	231	2.4
대구	1,757	2.0	258	2.0	238	1.9	554	1.9	509	2.2	198	2.0
인천	2,762	3.2	442	3.5	398	3.1	967	3.3	631	2.8	324	3.3
광주	1,512	1.7	192	1.5	173	1.4	593	2.0	379	1.7	175	1.8
울산	745	0.9	122	1.0	122	1.0	252	0.9	176	0.8	73	0.7
경기	18,022	20.6	2,550	20.0	2,429	19.1	5,881	20.0	5,120	22.3	2,042	21.0
강원	2,603	3.0	301	2.4	293	2.3	663	2.3	1,119	4.9	227	2.3
충북	8,847	10.1	1,842	14.4	1,355	10.6	2,530	8.6	1,657	7.2	1,463	15.0
충남	21,192	24.2	2,986	23.4	3,388	26.6	7,653	26.1	5,068	22.1	2,097	21.5
전북	4,300	4.9	638	5.0	706	5.5	1,497	5.1	978	4.3	481	4.9
전남	1,815	2.1	242	1.9	216	1.7	520	1.8	645	2.8	192	2.0
경북	3,190	3.6	543	4.3	496	3.9	949	3.2	803	3.5	399	4.1
경남	2,549	2.9	348	2.7	350	2.7	831	2.8	663	2.9	357	3.7
제주	452	0.5	62	0.5	69	0.5	147	0.5	113	0.5	61	0.6

자료 : 온라인간행물(국내인구이동통계),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주 : 대전시 내부이동 제외

3) 순이동 인구

2000년과 2010년 기준으로 대전시 자치구별 순이동 인구(전입인구-전출인구)를 도출하면 <표 3-12>와 같다. 2000년의 경우 5개 자치구에서 순이동 인구가 ‘+’, 즉 사회적 인구증가를 보였으며, 2010년의 경우 유성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 즉 사회적 인구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2000년의 경우 5개 자치구에서 모두 충청남도로부터의 전입이 가장 많고, 서울시로의 전출이 가장 많은 일률적인 인구이동 패턴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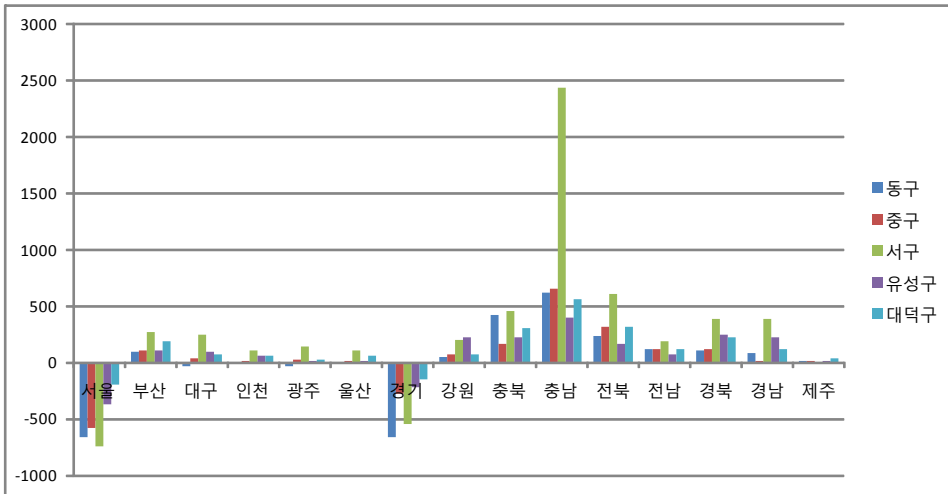
한편 2010년의 경우 자치구별로 상이한 인구이동패턴을 보였는데, 동구의 경우 부산시로부터 전입 그리고 경기도로의 전출이라는 이동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중구의 경우 전라남도로부터 전입 그리고 경기도로의 전출패턴을 보였다. 서구의 경우 충청남도로부터 전입이 가장 많고 서울시로의 전출이 많은 인구이동 경로를 보였고, 유성구의 경우, 경기도로의 전입이 가장 많고, 서울시로의 전출이 가장 많은 특징적 패턴을 나타냈다. 대덕구의 경우, 전라북도로부터 전입과 경기도로의 전출이 많은 인구이동패턴을 보였다.

<표 3-12> 대전시 자치구별 순이동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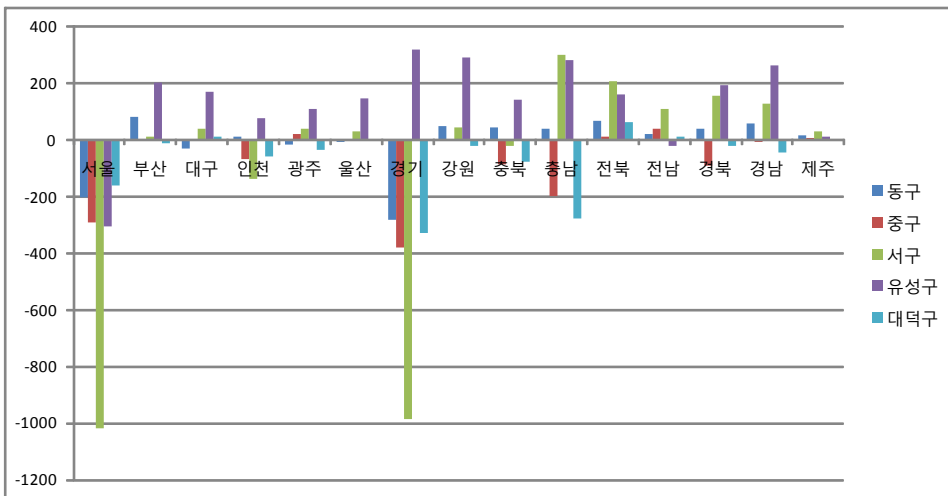
(단위 : 명)

지역	2000년					2010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전국	361	821	4,251	1,277	1,866	-97	-1,011	-1,058	2,053	-932
서울	-663	-582	-741	-369	-189	-202	-290	-1,016	-305	-161
부산	97	112	270	111	195	80	4	13	202	-9
대구	-27	43	249	98	71	-30	4	42	170	13
인천	-7	7	106	68	68	12	-65	-138	77	-59
광주	-34	30	146	4	33	-17	20	39	111	-32
울산	-9	18	106	8	64	-1	5	29	146	5
경기	-657	-277	-547	-220	-145	-282	-381	-983	318	-326
강원	50	79	197	224	79	51	5	45	294	-22
충북	422	171	457	222	304	46	-84	-21	141	-76
충남	622	652	2,439	404	565	40	-198	300	284	-277

전북	242	315	610	170	314	68	12	208	163	63
전남	116	119	189	74	124	24	39	108	-20	11
경북	110	115	386	246	223	38	-89	159	196	-20
경남	88	13	386	228	126	59	-2	128	262	-43
제주	11	6	-2	9	34	17	9	29	14	1



<2000년>



<2010년>

[그림 3- 4] 대전시 자치구별 순인구이동 변화

3. 대전시 내부이동 : 동간 인구이동

1) 2001년 동별 전출입 인구

2001년 76개 대전시 동별 전출입 비율을 도출한 뒤, 전출입 비율(합계비율)이 2% 이상인 동을 선정하여 정리하면 <표 3-13>과 같다.

2001년 대전시에서 전출 점유비율이 가장 높은 동은 회덕 2동으로 대전시 전체 전출의 3.27%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가수원동이 3.03%, 갈마 2동이 2.7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전입 점유비율이 가장 높은, 즉 유입인구가 가장 많은 동은 온천 2동으로 대전시 전체 전입자의 6.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가수원동이 4.12% 그리고 회덕 2동이 3.18%이다.

즉 2001년 대전시에서는 온천 2동, 회덕 2동, 가수원동 등에서 많은 전출과 전입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13> 2001년 대전시 동별 전출입 인구 점유비율 : 동의 점유비율이 2% 이상인 동

(단위 : %)

전입 전출	태평2동	탄방동	갈마1동	갈마2동	가수원동	둔산2동	온천2동	회덕2동	중리동	합 계
가양2동	0.03	0.03	0.03	0.03	0.05	0.03	0.05	0.39	0.08	2.17
산성동	0.16	0.03	0.03	0.06	0.13	0.02	0.05	0.03	0.03	2.05
도마1동	0.11	0.02	0.05	0.07	0.15	0.02	0.05	0.03	0.02	2.02
탄방동	0.07	0.00	0.08	0.19	0.08	0.17	0.18	0.04	0.04	2.59
갈마1동	0.05	0.05	0.00	0.25	0.08	0.10	0.21	0.02	0.02	2.00
갈마2동	0.09	0.12	0.23	0.00	0.13	0.10	0.25	0.05	0.03	2.73
가수원동	0.09	0.05	0.07	0.10	0.00	0.08	0.17	0.05	0.02	3.03
둔산2동	0.07	0.10	0.10	0.12	0.09	0.00	0.47	0.04	0.02	2.48
오정동	0.02	0.06	0.04	0.05	0.03	0.07	0.10	0.08	0.14	2.02
회덕2동	0.07	0.06	0.05	0.06	0.10	0.08	0.21	0.00	0.19	3.27
중리동	0.03	0.06	0.05	0.07	0.06	0.04	0.08	0.24	0.00	2.53
합 계	3.02	2.45	2.37	3.15	4.12	2.32	6.50	3.18	2.23	-

자료 : 통계청 자료

한편 전입점유비율에서 전출점유비율을 제한 순이동 점유비율을 산출한 결과는 <표 3-14>와 [그림 3-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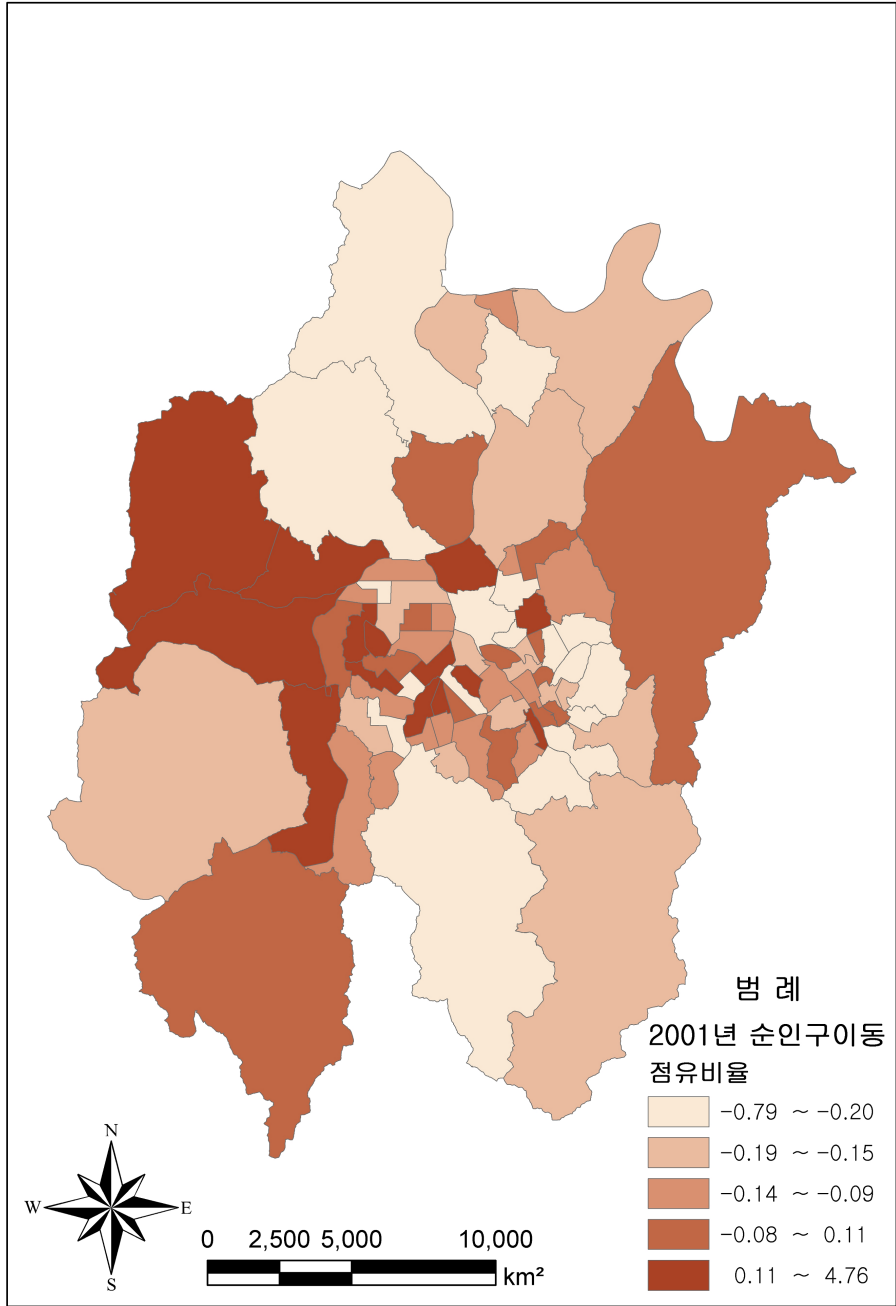
온천 2동은 전출인구점유비율에 비해 전입인구점유비율이 4.76% 높아, 인구전입이 많이 진행된 동으로 볼 수 있으며, 다음으로 태평 2동이 1.44%, 가수원동이 1.09%, 목동이 1.06%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용두동은 -0.79%로서 전입인구비율에 비해 전출인구비율이 높아, 사회적 인구의 감소가 진행된 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동으로는 가양 2동 -0.59%, 오정동 -0.45%, 석교동 -0.38%, 중리동 -0.30% 등이 있다.

<표 3-14> 2001년 대전시 동별 순인구이동 점유비율

(단위 : %)

동구분	순이동	동구분	순이동	동구분	순이동	동구분	순이동
온천2동	4.76	인동	-0.06	유천1동	-0.12	문창동	-0.20
태평2동	1.44	대사동	-0.07	유천2동	-0.13	자양동	-0.20
가수원동	1.09	성남2동	-0.08	탄방동	-0.14	도마1동	-0.20
목동	1.06	법2동	-0.08	부사동	-0.14	덕암동	-0.20
갈마2동	0.42	소제동	-0.08	목상동	-0.15	가장동	-0.20
갈마1동	0.37	삼성2동	-0.08	진잠동	-0.15	효동	-0.22
온천1동	0.31	월평1동	-0.08	삼성1동	-0.15	산성동	-0.22
내동	0.30	은행선화	-0.09	성남1동	-0.15	신성동	-0.23
대화동	0.25	정림동	-0.09	회덕1동	-0.16	용운동	-0.23
태평1동	0.15	복수동	-0.09	둔산2동	-0.16	홍도동	-0.23
용전동	0.13	회덕2동	-0.09	산내동	-0.16	월평2동	-0.24
용문동	0.12	월평3동	-0.09	대흥동	-0.16	가양1동	-0.26
둔산1동	0.11	만년동	-0.09	대신동	-0.17	구즉동	-0.28
괴정동	0.05	삼천동	-0.10	신탄진동	-0.17	관암2동	-0.28
전민동	0.05	문화2동	-0.10	관암1동	-0.18	중리동	-0.30
오류동	-0.03	변동	-0.10	중촌동	-0.18	석교동	-0.38
대청동	-0.03	중양동	-0.10	문화1동	-0.18	오정동	-0.45
기성동	-0.04	석봉동	-0.11	대동	-0.19	가양2동	-0.59
신흥동	-0.06	법1동	-0.11	도마2동	-0.19	용두동	-0.79



[그림 3- 5] 대전시 동별 순인구이동 점유비율 ; 2001년

2) 2009년 동별 전출입 인구

2009년 대전시 동별 전출입 비율을 도출하고, 이중 점유비율이 2% 이상인 동을 도출하면 <표 3-15>와 같다.

2009년 대전시에서 전출입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동은 유성구 구즉동으로 나타났다는데, 구즉동은 2009년 대전시 총 전출인구의 3.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전출인구의 5.20%를 점하고 있다.

또한 갈마 2동의 전출비율은 2.90%로서 구즉동 다음의 순이며, 탄방동과 노은 2동의 전출비율은 2.76%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은 2동과 탄방동의 전입비율은 각각 2.91%와 2.89%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구즉동은 대덕테크노밸리사업⁸⁾이 진행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15> 2009년 대전시 동별 전출입 인구 점유비율 : 동의 점유비율이 2% 이상인 동
(단위 : %)

전출 전입	효동	산성	탄방	괴정	갈마1	갈마2	관저2	둔산2	온천2	노은2	신성	구즉	송촌	합계
산성	0.02	0.82	0.02	0.02	0.02	0.02	0.03	0.01	0.01	0.01	0.01	0.02	0.01	2.11
탄방	0.02	0.02	1.00	0.15	0.06	0.10	0.02	0.10	0.03	0.03	0.03	0.06	0.01	2.76
갈마1	0.01	0.02	0.07	0.07	0.71	0.22	0.02	0.05	0.04	0.04	0.02	0.04	0.01	2.22
갈마2	0.03	0.03	0.12	0.17	0.23	1.01	0.02	0.09	0.03	0.04	0.02	0.04	0.02	2.90
관저2	0.02	0.02	0.02	0.01	0.03	0.02	0.98	0.02	0.03	0.04	0.03	0.04	0.02	2.17
둔산2	0.01	0.01	0.11	0.05	0.07	0.10	0.02	0.94	0.03	0.05	0.07	0.07	0.01	2.51
온천2	0.01	0.01	0.03	0.03	0.05	0.05	0.01	0.03	1.18	0.11	0.11	0.09	0.01	2.54
노은2	0.02	0.01	0.03	0.02	0.03	0.02	0.03	0.04	0.07	1.31	0.11	0.08	0.01	2.76
구즉	0.01	0.01	0.04	0.02	0.02	0.02	0.02	0.04	0.03	0.05	0.13	2.67	0.03	3.95
송촌	0.03	0.02	0.02	0.01	0.01	0.01	0.01	0.04	0.01	0.02	0.02	0.05	0.84	2.01
중리	0.02	0.01	0.03	0.02	0.03	0.03	0.01	0.02	0.01	0.01	0.01	0.04	0.13	2.14
합계	2.13	2.17	2.89	2.05	2.25	2.69	2.10	2.39	2.44	2.91	2.60	5.20	2.01	-

자료 : 통계청 자료

8) 대덕테크노밸리사업에 대해서는 4장 1절 참조

전입점유비율에서 전출점유비율을 제한 순이동 점유비율을 산출한 결과는 <표 3-1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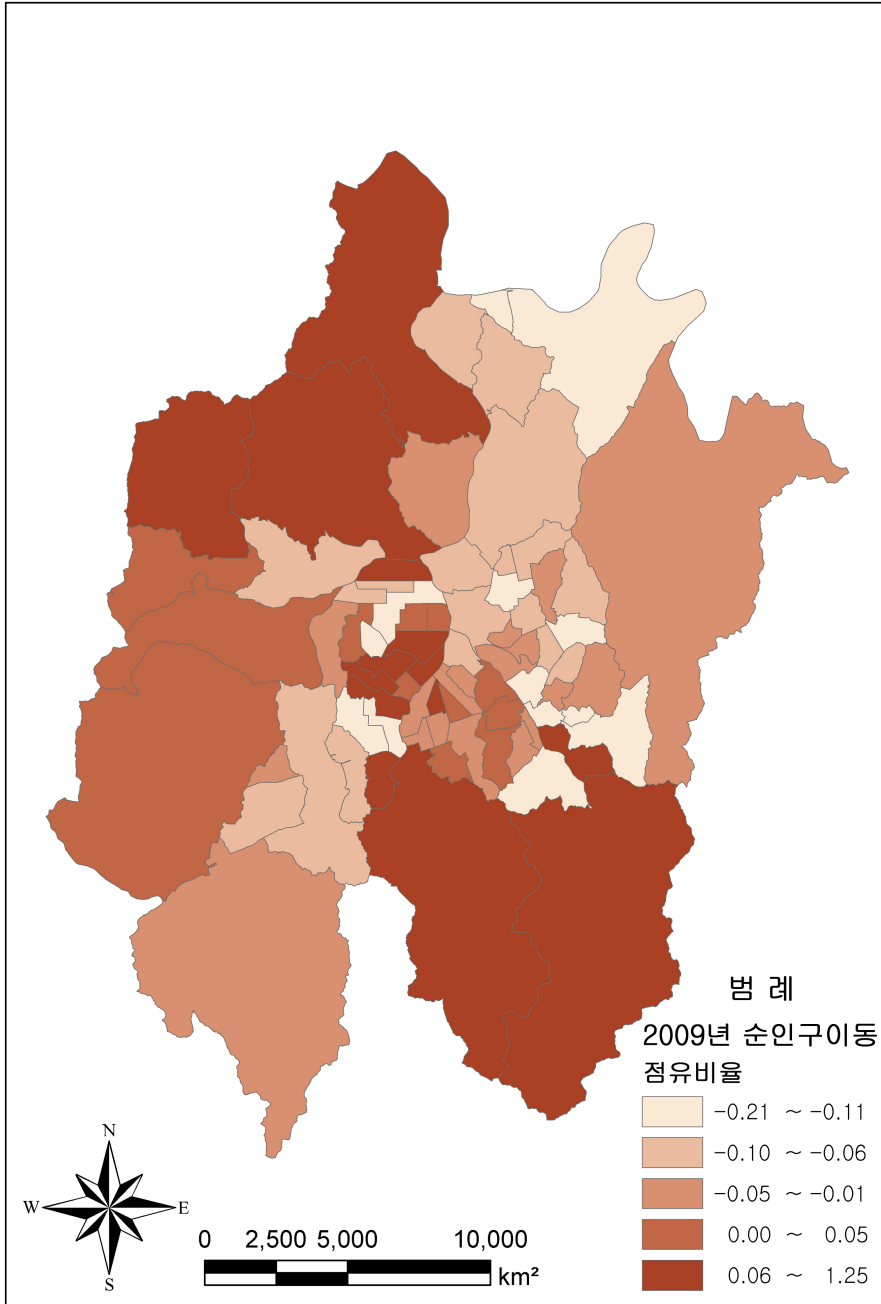
구죽동은 전출인구점유비율에 비해 전입인구점유비율이 1.25% 높아, 인구전입이 많이 진행된 동으로 볼 수 있으며, 다음으로는 신성동이 0.67%, 효동이 0.62%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갈마2동은 -0.21%로서 전입인구점유비율에 비해 전출인구점유비율이 높아, 사회적 인구의 감소가 진행된 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동으로는 중리동(-0.19%), 도마 1동(-0.18%), 신인동(-0.17%), 중앙동(-0.16%) 등이 있다.

<표 3-16> 2009년 대전시 동별 순인구이동 점유비율

(단위 : %)

동구분	순이동	동구분	순이동	동구분	순이동	동구분	순이동
구죽동	1.25	가장동	0.00	용두동	-0.05	법2동	-0.09
신성동	0.67	삼천동	0.00	문창동	-0.05	회덕동	-0.10
효동	0.62	진잠동	0.00	관저1동	-0.05	온천2동	-0.10
괴정동	0.19	대사동	0.00	삼성동	-0.05	덕암동	-0.11
태평1동	0.18	둔산1동	0.00	전민동	-0.05	가양2동	-0.12
용운동	0.17	오류동	0.00	법1동	-0.06	석봉동	-0.12
노은2동	0.15	송촌동	-0.01	용전동	-0.06	도마2동	-0.12
탄방동	0.13	태평2동	-0.01	월평2동	-0.07	둔산2동	-0.13
산내동	0.11	기성동	-0.01	가양1동	-0.07	판암1동	-0.13
둔산3동	0.10	유천1동	-0.01	관저2동	-0.07	석교동	-0.13
변동	0.10	성남동	-0.01	정림동	-0.07	판암2동	-0.14
복수동	0.09	목동	-0.03	만년동	-0.07	신탄진동	-0.14
내동	0.06	대동	-0.03	중촌동	-0.07	중앙동	-0.16
산성동	0.06	홍도동	-0.03	가수원동	-0.08	신인동	-0.17
대흥동	0.05	대청동	-0.03	대화동	-0.08	도마1동	-0.18
은행선화	0.04	부사동	-0.03	월평3동	-0.08	중리동	-0.19
노은1동	0.04	문화1동	-0.04	목상동	-0.08	갈마2동	-0.21
갈마1동	0.03	월평1동	-0.04	비래동	-0.08		
문화2동	0.03	유천2동	-0.04	오정동	-0.09		
온천1동	0.02	용문동	-0.04	자양동	-0.09		



[그림 3- 6] 대전시 동별 순인구이동 점유비율 ; 2009년

제2절 대전시 인구이동 패턴(Pattern)

1. 전국의 인구이동 패턴

1) 2001년 인구이동 패턴

2001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전출·입 점유비율을 산출하면 <표 3-17>과 같다.

전출점유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시로 전국의 25.94%를 차지하며, 다음은 경기도가 21.61%를 차지하고 있다. 대전시의 전출점유비율은 전국의 3.21%이다.

전입점유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역시 서울시로 전국의 24.71%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경기도로 전국의 24.29%이며, 대전시 전입점유비율은 전국의 3.28%이다.

<표 3-17> 2001년 전국 광역자치단체간 전출·입점유비율

(단위 : %)

전입 전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서울	17.85	0.17	0.10	0.57	0.12	0.16	0.05	5.38	0.25	0.16	0.24	0.32	0.24	0.15	0.13	0.06	25.94
부산	0.31	5.11	0.07	0.04	0.02	0.03	0.15	0.22	0.03	0.02	0.03	0.03	0.06	0.12	0.68	0.03	6.95
대구	0.18	0.07	3.72	0.03	0.01	0.03	0.04	0.15	0.02	0.02	0.02	0.01	0.01	0.58	0.09	0.01	4.99
인천	0.50	0.03	0.02	3.84	0.02	0.03	0.01	0.80	0.06	0.04	0.09	0.06	0.05	0.04	0.04	0.01	5.66
광주	0.18	0.01	0.01	0.03	2.16	0.02	0.00	0.14	0.01	0.01	0.01	0.08	0.53	0.01	0.01	0.01	3.24
대전	0.19	0.02	0.02	0.04	0.02	2.22	0.01	0.20	0.03	0.10	0.22	0.07	0.02	0.03	0.02	0.01	3.21
울산	0.07	0.11	0.03	0.01	0.00	0.01	1.26	0.06	0.01	0.01	0.01	0.01	0.01	0.08	0.08	0.00	1.77
경기	3.44	0.14	0.09	0.68	0.10	0.17	0.04	15.31	0.29	0.21	0.35	0.27	0.20	0.16	0.12	0.04	21.61
강원	0.29	0.03	0.02	0.07	0.01	0.04	0.02	0.34	1.82	0.06	0.04	0.02	0.02	0.05	0.03	0.01	2.85
충북	0.19	0.02	0.02	0.05	0.01	0.12	0.01	0.25	0.07	1.66	0.08	0.02	0.02	0.04	0.02	0.01	2.58
충남	0.29	0.03	0.02	0.09	0.01	0.27	0.01	0.39	0.03	0.08	1.60	0.07	0.03	0.03	0.04	0.01	2.99
전북	0.35	0.02	0.01	0.07	0.08	0.07	0.01	0.30	0.02	0.02	0.06	2.86	0.08	0.02	0.03	0.01	4.01
전남	0.36	0.06	0.01	0.08	0.64	0.03	0.02	0.30	0.02	0.02	0.03	0.10	2.09	0.03	0.05	0.02	3.85
경북	0.24	0.11	0.60	0.05	0.01	0.04	0.10	0.23	0.05	0.05	0.04	0.02	0.02	2.65	0.10	0.01	4.33
경남	0.21	0.55	0.10	0.04	0.01	0.03	0.10	0.18	0.03	0.02	0.03	0.03	0.05	0.11	3.49	0.02	4.99
제주	0.07	0.02	0.01	0.01	0.01	0.00	0.00	0.05	0.01	0.00	0.01	0.01	0.01	0.01	0.01	0.80	1.04
합계	24.71	6.51	4.83	5.67	3.23	3.28	1.84	24.29	2.76	2.48	2.87	3.99	3.46	4.10	4.94	1.04	100.00

2001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순이동점유비율(전입점유비율-전출점유비율)을 산출한 결과는 <표 3-18>과 같다.

산출결과, 경기도의 순이동 점유비율이 2.6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광역자치단체로 나타났다. 대전시가 0.07%로 두 번째로 높은 도시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울산시가 0.06%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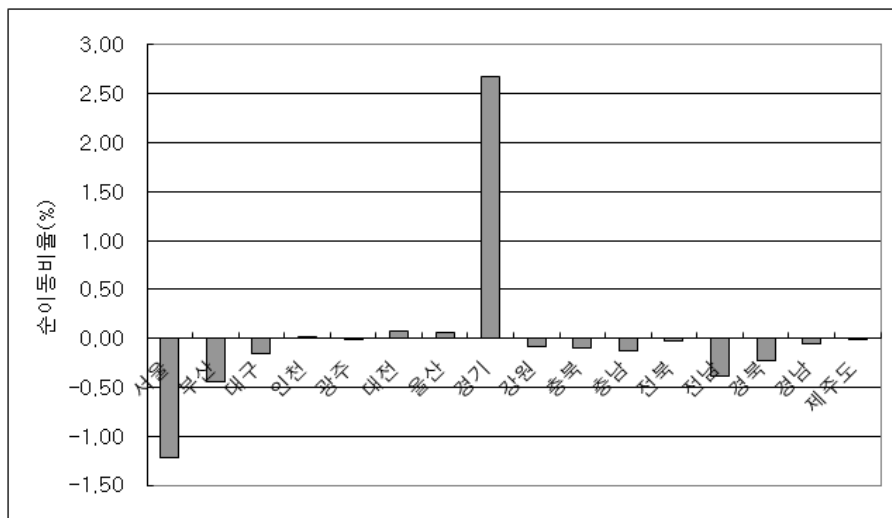
순이동 점유비율이 낮은 지역은 서울시로 -1.23%이며, 다음은 부산시 -0.44%, 전라남도 -0.39%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서 사회적 인구이동에 의한 인구감소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와 광주시의 경우 전출·입점유비율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 2001년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순이동점유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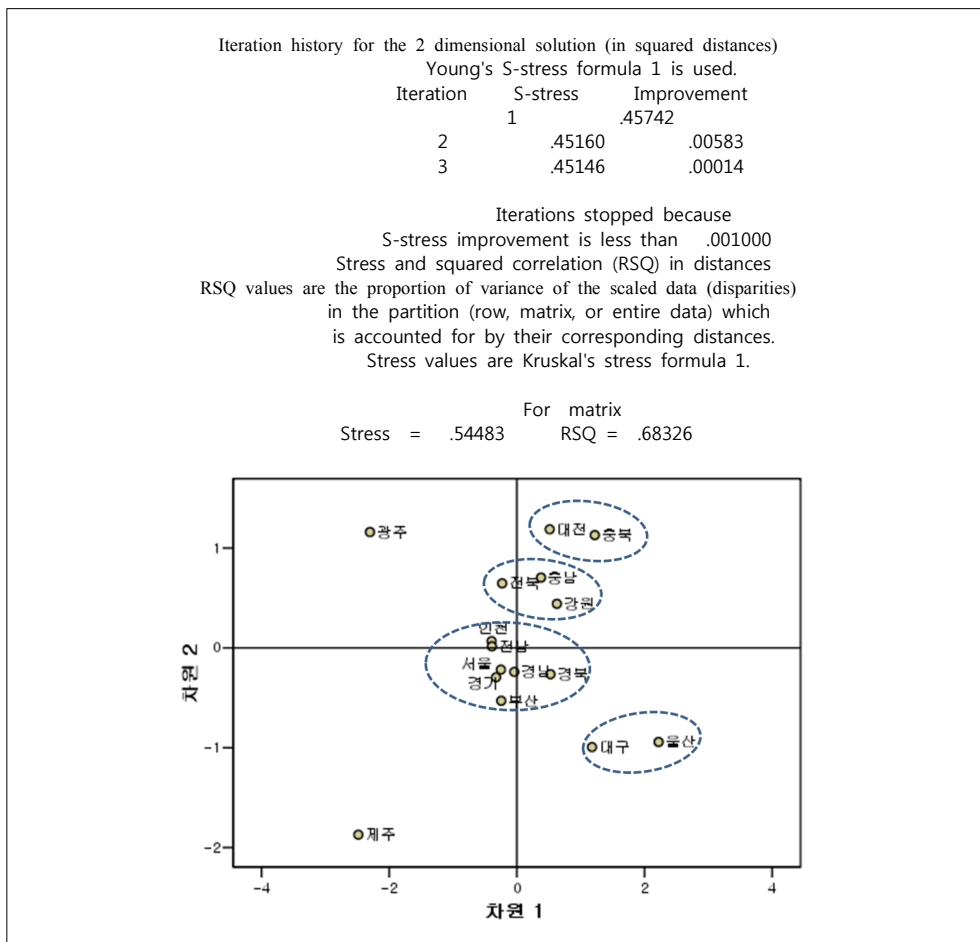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순이동 비율(%)	-1.23	-0.44	-0.15	0.01	0.00	0.07	0.06	2.68	-0.09	-0.09	-0.13	-0.02	-0.39	-0.23	-0.06	0.00



[그림 3- 7]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순이동점유비율 : 2001년

한편 <표 3-17>에 제시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전출입 점유비율이 광역자치단체간 '교류의 정도(인접정도)'를 나타낸다고 가정하고, 각 자치단체간 공간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다차원척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3- 8]과 같다.

다차원분석결과⁹⁾, 공간적 분포는 2차원(dimension)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Stress값은 0.54483으로 나타났고, 분석의 설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 RSQ값은 0.68326으로 나타났다.



[그림 3- 8] 2001년 전국 인구이동 패턴 : MDS 분석결과

9) 다차원분석에 대해서는 이 연구 2장 3절 참조

한편 [그림 3- 8]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2001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간 전출입비율을 기초로 공간적 인접정도를 도식화한 결과, 대전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충청북도와 인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청남도는 전라북도나 강원도와 밀접한 인구이동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부산시, 전라남도, 인천시 등도 밀접한 인구이동 관계를 맺는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구시는 울산시와 함께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와 제주도는 독립된 인구이동 패턴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2009년 인구이동 패턴

2009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간 전출입수에 기초한 전출입 점유비율을 도출하면 <표 3-19>와 같다.

2009년 전국 전출인구 중 가장 많은 전출점유비율을 나타낸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로서 전체 전출입의 24.53%를 차지하며, 다음은 서울시로서 22.69%를 차지하고 있다. 2001년의 경우 서울시 전출점유비율이 경기도보다 높았으나, 2009년의 경우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높은 점유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대전시의 전국 전출점유비율은 3.04%로 2001년 3.21%에 비해 낮아졌다.

전입점유비율의 경우도, 경기도가 전국 전입자의 25.63%로 가장 큰 점유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은 서울시로 22.07%이다. 2009년 대전시의 전입점유비율은 2.97%로서, 2001년의 3.28%에 비해 약 0.3% 낮아졌다.

<표 3-19> 2009년 전국 광역자치단체간 전출·입점유비율

(단위 : %)

전입 전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서울	15.16	0.21	0.12	0.53	0.14	0.16	0.06	4.69	0.27	0.18	0.29	0.22	0.21	0.20	0.18	0.06	22.69
부산	0.29	4.61	0.06	0.04	0.01	0.03	0.13	0.22	0.03	0.02	0.04	0.02	0.05	0.13	0.77	0.02	6.47

대구	0.18	0.06	3.52	0.02	0.01	0.02	0.04	0.17	0.02	0.02	0.03	0.01	0.01	0.58	0.12	0.01	4.85
인천	0.46	0.03	0.02	3.76	0.03	0.03	0.01	0.83	0.07	0.05	0.12	0.05	0.05	0.05	0.04	0.01	5.61
광주	0.17	0.02	0.01	0.03	2.43	0.02	0.00	0.15	0.01	0.01	0.02	0.07	0.46	0.01	0.02	0.01	3.43
대전	0.21	0.02	0.02	0.03	0.02	1.97	0.01	0.22	0.03	0.11	0.26	0.06	0.02	0.04	0.03	0.01	3.04
울산	0.08	0.13	0.04	0.01	0.01	0.01	1.32	0.06	0.01	0.01	0.02	0.02	0.01	0.10	0.11	0.00	1.94
경기	3.75	0.17	0.12	0.82	0.13	0.19	0.05	17.15	0.39	0.28	0.50	0.26	0.23	0.23	0.20	0.06	24.53
강원	0.29	0.03	0.02	0.06	0.01	0.03	0.01	0.36	1.87	0.06	0.05	0.02	0.02	0.05	0.03	0.01	2.91
충북	0.18	0.02	0.02	0.04	0.01	0.11	0.01	0.27	0.06	1.78	0.10	0.02	0.01	0.05	0.03	0.00	2.71
충남	0.31	0.03	0.02	0.09	0.02	0.25	0.01	0.45	0.04	0.10	2.21	0.07	0.03	0.04	0.04	0.01	3.74
전북	0.25	0.02	0.01	0.05	0.08	0.06	0.01	0.27	0.02	0.02	0.08	2.77	0.07	0.02	0.03	0.01	3.76
전남	0.22	0.04	0.01	0.05	0.54	0.02	0.01	0.23	0.02	0.02	0.04	0.07	2.04	0.02	0.06	0.01	3.40
경북	0.23	0.11	0.58	0.04	0.01	0.04	0.10	0.29	0.05	0.05	0.06	0.02	0.02	2.69	0.12	0.01	4.42
경남	0.23	0.60	0.12	0.04	0.02	0.03	0.10	0.21	0.03	0.03	0.05	0.03	0.06	0.13	3.91	0.02	5.59
제주	0.07	0.02	0.01	0.01	0.01	0.01	0.00	0.06	0.01	0.01	0.01	0.01	0.01	0.01	0.02	0.66	0.91
합계	22.07	6.12	4.70	5.63	3.46	2.97	1.88	25.63	2.94	2.74	3.88	3.70	3.31	4.33	5.72	0.90	100.00

2009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순이동점유비율(전입점유비율-전출점유비율)을 산출한 결과는 <표 3-2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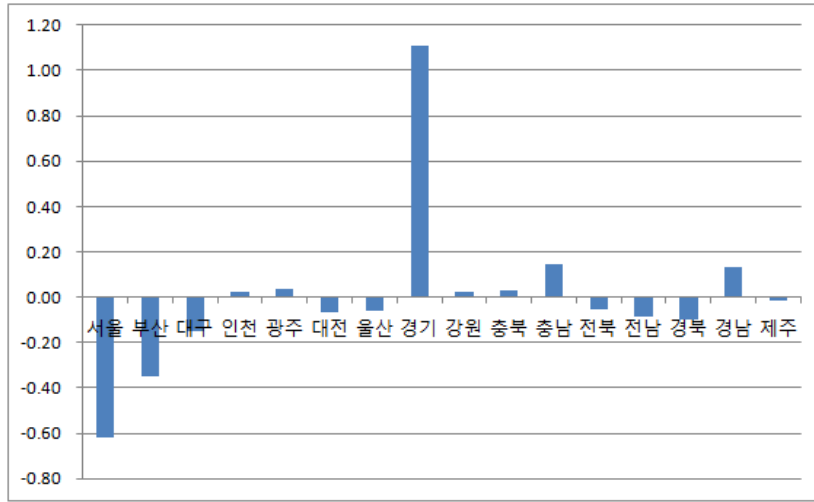
산출결과, 경기도의 순이동 점유비율이 1.11%로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충청남도가 0.14%, 경상남도가 0.13% 순이다. 대전시의 순이동 점유비율은 -0.07%이며, 이는 7대 광역시에서 중위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순이동 점유비율이 낮은 지역은 서울시로 -0.62%이며, 다음은 부산시 -0.35%, 대구시 -0.15% 등의 순으로 나타나 광역시에서 사회적 인구이동에 의한 인구감소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20> 2009년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순이동점유비율

(단위 :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순이동 비율(%)	-0.62	-0.35	-0.15	0.02	0.04	-0.07	-0.06	1.11	0.02	0.03	0.14	-0.06	-0.09	-0.10	0.13	-0.01



[그림 3- 9]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순이동점유비율 : 2009년

<표 3-19>에 제시된 2009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전출입 점유비율을 기초로 다차원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3-10]과 같다.

다차원분석결과, 공간적 분포는 2차원(dimension)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Stress값은 0.49468 그리고 분석의 설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 RSQ 값은 0.71010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로 제시된 [그림 3-10]의 '유클리디안 거리모형'을 보면, 대전시는 전라북도 및 충청북도와 공간적으로 인접하여, 이들 지역과 전출입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진행되었음이 나타났으며, 반면 충청남도는 전라남도와 강원도 그리고 인천시 등과 인접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에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경상남도 등이 전출입상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대구시와 울산시는 2001년과 유사하게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광주시와 제주시는 독립적인 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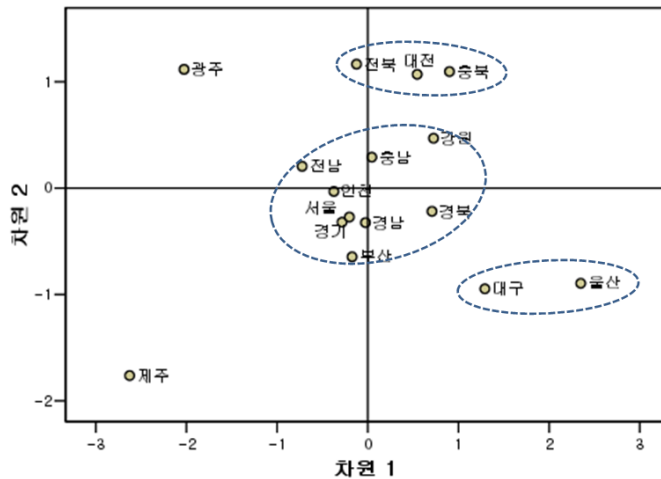
Iteration history for the 2 dimensional solution (in squared distances)

Young's S-stress formula 1 is used.

Iteration	S-stress	Improvement
1		.40026
2	.39557	.00469
3	.39555	.00002

Iterations stopped because
 S-stress improvement is less than .001000
 Stress and squared correlation (RSQ) in distances
 RSQ values are the proportion of variance of the scaled data (disparities)
 in the partition (row, matrix, or entire data) which
 is accounted for by their corresponding distances.
 Stress values are Kruskal's stress formula 1.

For matrix
 Stress = .49468 RSQ = .7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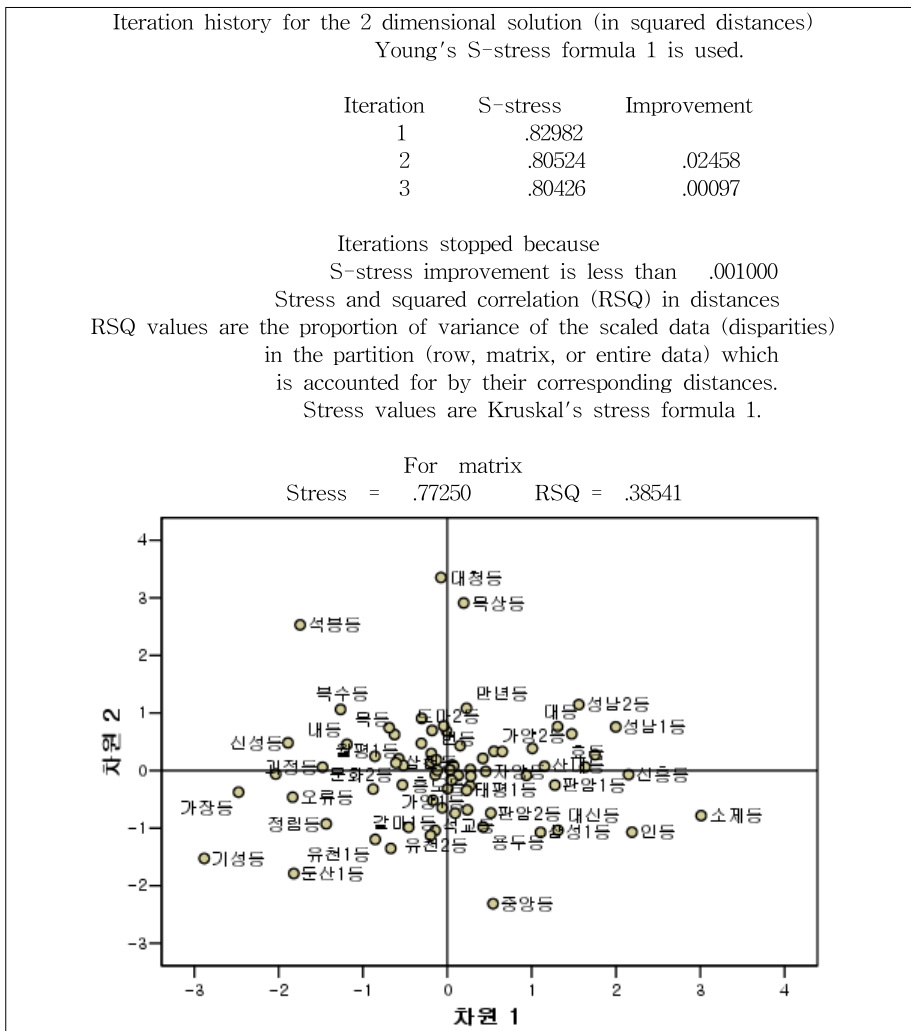
[그림 3-10] 2009년 전국 인구이동 패턴 : MDS 분석결과

2. 대전시 내부이동 패턴

1) 2001년 인구이동 패턴

□ 다차원분석(MDS)

2001년 대전시 76개 동의 전출입수(<표 3-13> 참조)를 기초로 각 동간 교류의 인접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차원척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3-11]과 같다.



[그림 3-11] 2001년 대전시 내부 인구이동 패턴 : MDS 분석결과

다차원분석결과, 공간적 분포는 2차원(dimension)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Stress값은 0.77250로 나타났고, 분석의 설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 RSQ값은 0.38541이다.

분석결과로 제시된 '유클리디안 거리모형'을 보면, 대다수의 많은 동들이 서로 밀접한 전출입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정한 전출입 패턴을 갖는 동을 살펴보면, 대청동과 목상동이 서로 밀접한 전출입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석봉동, 기성동, 중앙동, 소제동 등은 상대적으로 다른 동에 비해 독립적인 전출입 패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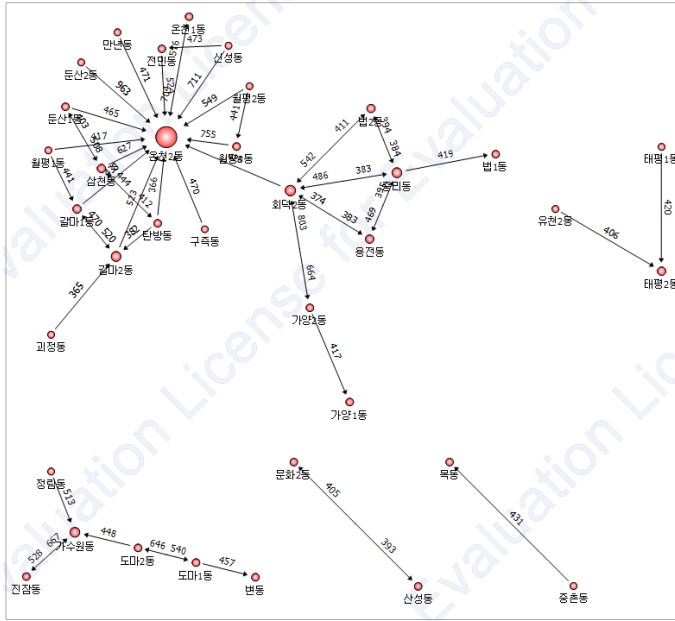
2001년 대전시 동별 전출입자료(<표 3-13> 참조)로, 대전시 동별 인구이동이 어떠한 시스템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료들의 결절점 및 위계를 파악할 수 있는 사회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였으며¹⁰⁾, 그 결과는 [그림 3-12] 및 [그림 3-13]과 같다.

분석을 위해서 전출입수가 361인(평균값) 이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¹¹⁾ 분석은 Netminer 3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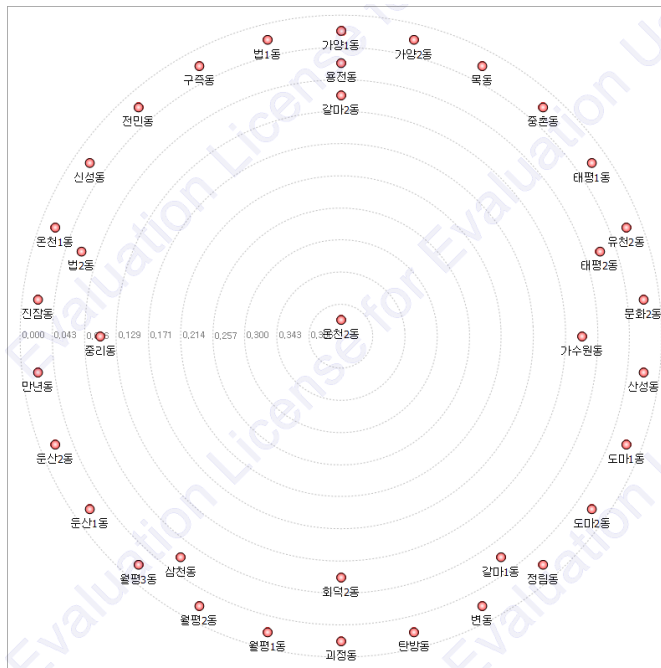
분석결과 2001년 대전시 동별 인구이동은 온천 2동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천 2동의 In-Degree Centrality는 0.428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회덕 2동이 0.114286이다.

10) 사회네트워크분석에 대해서는 이 연구 2장 3절 참조

11) 2001년 대전시에 76개 행정동이 있으며, 이들 76개 행정동간 전출입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할 경우, 많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시스템을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출입수의 평균값에 해당하는 361인 이상의 데이터만을 적용하였다.



[그림 3-12] 2001년 대전시 인구이동 네트워크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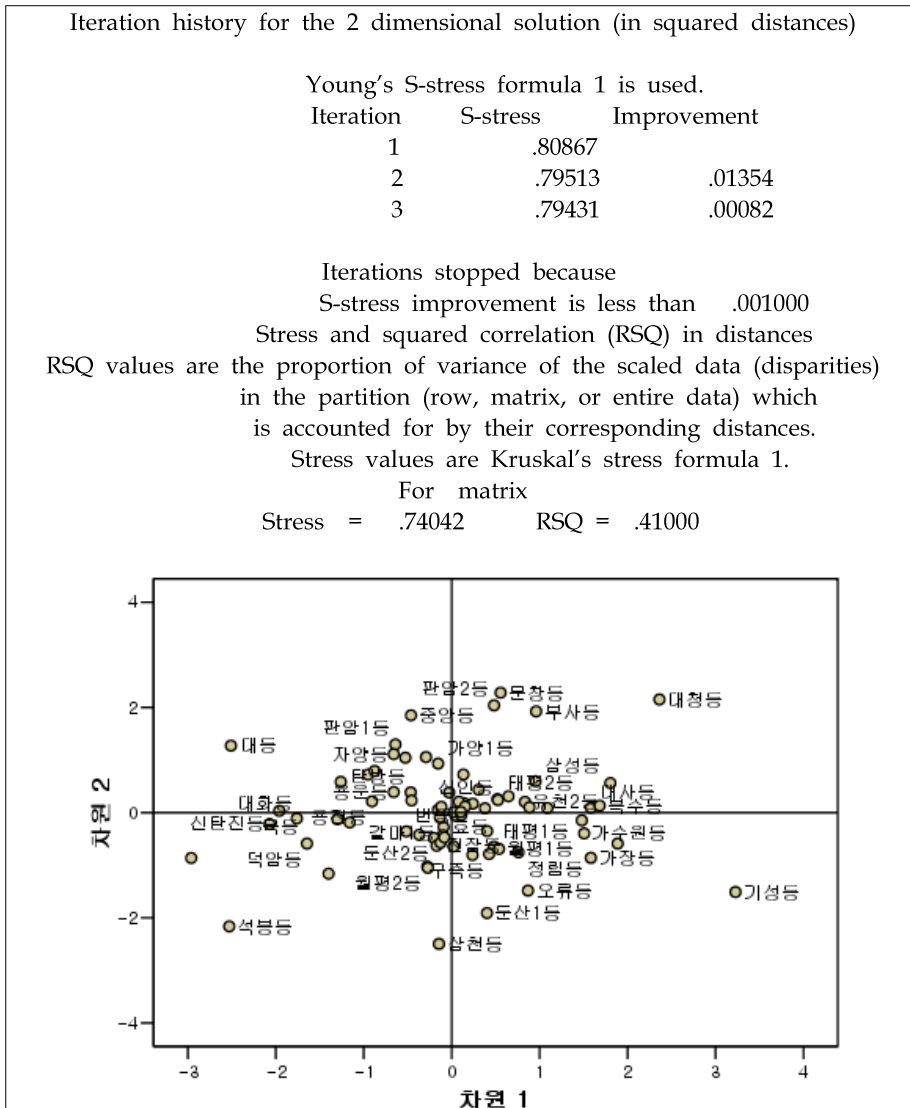


[그림 3-13] 2001년 위세중심성 값의 변화

2) 2009년 인구이동 패턴

□ 다차원분석(MDS)

2009년 대전시 77개 동의 전출입수(<표 3-15> 참조)를 기초로 각 동간 교류의 인접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차원척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3-14]와 같다.



[그림 3-14] 2009년 대전시 내부 인구이동 패턴 : MDS 분석결과

다차원분석결과, 2001년과 동일하게 공간적 분포는 2차원(dimension)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Stress값은 0.74042로 나타났고, 분석의 설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 RSQ값은 0.41000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로 제시된 '유클리디안 거리모형'을 보면, 2001년과 유사하게 많은 동들이 밀접한 전출입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정한 분포를 가지는 동으로는, 대청동, 기성동, 삼천동, 석봉동, 신탄진동, 대동 등으로 나타났으며, 판암 2동과 문창동, 부사동은 하나의 밀접한 전출입 패턴을 갖는 그룹으로 나타났다.

□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2009년 대전시 동별 전출입수(<표 3-15> 참조)를 기초로, 동별 인구이동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3-15]와 [그림 3-16]과 같다.

효율적 분석을 위해서 전출입수가 323인(2009년 대전시 동별 평균전출입수) 이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09년 대전시 동별 인구이동은 구즉동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즉동의 In-Degree Centrality는 0.1470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즉동 이외에 괴정동, 효동, 갈마 1동, 관저 2동, 신성동, 송촌동 등이 중심성이 높은 동으로 분석되었다. 괴정동의 In-Degree Centrality는 0.088235, 효동, 갈마 1동, 관저 2동, 신성동 그리고 송촌동의 In-Degree Centrality는 0.058824로 나타났다.

제 4 장

대전시 주택개발사업 유형별 인구이동 특성

제1절 신규지역 주택개발사업의 인구이동

제2절 기성시가지 주택개발사업의 인구이동

제4장 대전시 주택개발사업 유형별 인구이동 특성

제1절 신규지역 주택개발사업의 인구이동

1. 노은택지개발사업지구 전입인구

1) 노은택지개발사업지구 개요

노은택지개발사업은 1995년~2005년간 약 10년 동안 노은 1지구와 노은 2지구에 걸쳐 진행되었다.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은 3,543천㎡이며, 수용인구는 약 57천명이고 사업시행자는 토지공사이다.

<표 4-1> 노은택지개발사업지구 현황

구 분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예정지구 지정	사업시행기간	호수	인구수	사업시 행자
노은 1	1,968	423,000	'93.12.28	'95.11-'02.3	8,689	34,756	토공
노은 2	1,575	348,821	'95.2.17	'99.5.31-'05.12	9,072	22,115	토공
합계	3,543	771,821	-	-	17,761	56,871	-

자료 : 대전시청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urban/lands/s072a/s072a3/index.html>), 편집



자료 : 대전일보, 2009. 8.4일 기사

[그림 4-1] 노은택지개발사업지구 위치도 및 전경

2) 노은택지개발사업지구 전입인구

□ 2001년

이 연구에서는 신규 주택개발사업지구에서의 인구유입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노은택지개발사업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행정동인 온천 2동의 전입인구 현황을 살펴보았다. 2001년 온천 2동의 동별 전입인구현황은 <표 4-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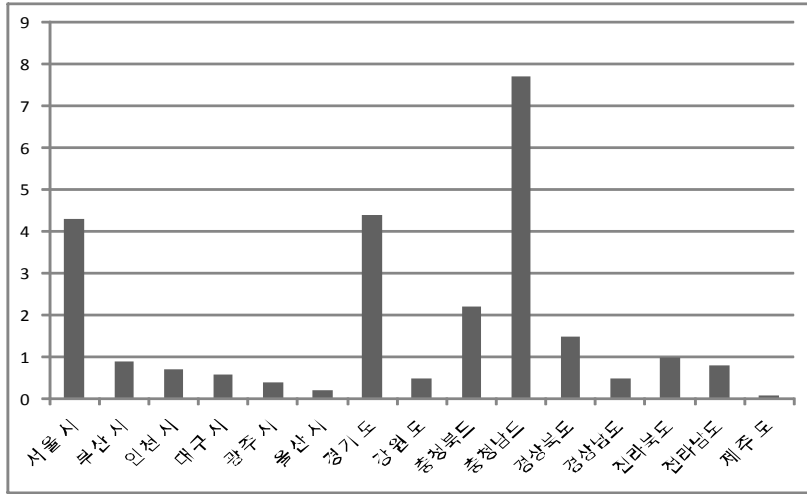
온천 2동으로의 전입인구는 총 18,086명이며, 이중 대전시 내부이동은 전체의 74.1%인 13,407명이다. 대전시 자치구별로 보면, 서구에서의 전입이 39.5%로 가장 많고, 다음은 유성구로부터의 전입이 14.1%를 차지하고 있다.

대전시 외 지역에서의 전입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전입은 충청남도로서 1,397명인 7.7%이고, 다음은 788명으로 4.4%를 점하고 있는 경기도 그리고 다음은 774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로 나타났다. 한편 충청북도는 전체 전입인구의 2.2%만을 차지하고 있다.

즉 2001년 온천 2동으로의 전입을 통해 노은택지개발사업지구로의 전입을 ‘유추’해 보면, 내부이동이 약 75%이고, 외부전입지(약 25%)중 인접지역인 충청남북도가 약 10%이며,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의 전입이 약 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2001년 온천 2동의 전입인구 구성

구 분	인구(명)	점유비율(%)	구 분	인구(명)	점유비율(%)	
서울시	774	4.3	울산시	41	0.2	
부산시	165	0.9	경기도	788	4.4	
인천시	126	0.7	강원도	96	0.5	
대구시	117	0.6	충청북도	395	2.2	
광주시	74	0.4	충청남도	1,397	7.7	
대전시	동구	914	5.1	경상북도	271	1.5
	중구	1,365	7.5	경상남도	91	0.5
	서구	7,141	39.5	전라북도	185	1.0
	유성구	2,548	14.1	전라남도	137	0.8
	대덕구	1,439	8.0	제주도	22	0.1
	소 계	13,407	74.1	합 계	18,086	100



[그림 4-2] 2001년 온천 2동 전입자의 이전거주지 구성비율 : 대전시 제외

한편 전체 전입자의 74.1%를 차지하는 대전시 내부이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3>과 같다.

전입자가 가장 많은 동은 둔산 2동으로 963명 7.2%의 점유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은 월평 3동이 5.6%, 신성동이 5.3%, 온천 1동이 5.3% 등으로 높은 점유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비교적 신흥 주거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둔산지역에서의 전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청동, 기성동, 성남 2동 그리고 중앙동 등에서의 전입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2001년 온천 2동으로의 대전시 내부이동

동	전입자(명)	(%)	동	전입자(명)	(%)
중앙동	10	0.1	도마1동	99	0.7
인동	20	0.1	도마2동	191	1.4
효동	35	0.3	정림동	187	1.4
신흥동	18	0.1	변동	117	0.9
관암1동	75	0.6	용문동	90	0.7
관암2동	37	0.3	탄방동	366	2.7

용운동	87	0.6	괴정동	187	1.4
대신동	12	0.1	가장동	40	0.3
대동	31	0.2	내동	231	1.7
자양동	52	0.4	갈마1동	438	3.3
소제동	14	0.1	갈마2동	523	3.9
가양1동	65	0.5	월평1동	417	3.1
가양2동	100	0.7	월평2동	549	4.1
용전동	164	1.2	월평3동	755	5.6
성남1동	20	0.1	가수원동	360	2.7
성남2동	10	0.1	기성동	9	0.1
홍도동	64	0.5	삼천동	627	4.7
삼성1동	11	0.1	둔산1동	465	3.5
삼성2동	38	0.3	둔산2동	963	7.2
대청동	5	0.0	만년동	471	3.5
산내동	46	0.3	진잠동	139	1.0
은행선화동	39	0.3	은천1동	704	5.3
목동	35	0.3	은천2동	0	0.0
중촌동	155	1.2	신성동	711	5.3
대흥동	49	0.4	전민동	524	3.9
문창동	28	0.2	구죽동	470	3.5
석교동	47	0.4	오정동	199	1.5
대사동	24	0.2	대화동	32	0.2
부사동	22	0.2	회덕1동	138	1.0
용두동	59	0.4	회덕2동	426	3.2
오류동	146	1.1	중리동	159	1.2
태평1동	89	0.7	신탄진동	53	0.4
태평2동	174	1.3	석봉동	17	0.1
유천1동	38	0.3	덕암동	45	0.3
유천2동	93	0.7	목상동	44	0.3
문화1동	208	1.6	법1동	151	1.1
문화2동	52	0.4	법2동	175	1.3
산성동	107	0.8	합 계	13,407	100.0
복수동	56	0.4			

□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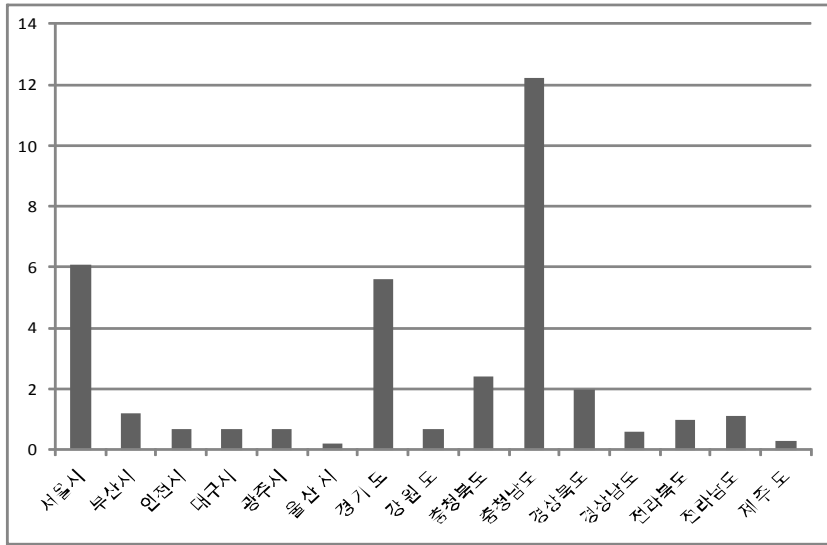
노은 1지구와 2지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다고 할 수 있는, 2009년 노은택지 개발사업이 진행되었던, 노은 1동으로의 총 전입인구는 4,830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64.5%인 3,116명은 대전시 내부 전입자로 나타났고, 35.5% 1,714명은 대전시 외부로부터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 온천 2동으로의 대전시 내부이동비율 74.1% 보다 9.6% 감소한 수치이다.

대전시 자치구 중에서는 유성구에서의 이동이 33.6%로 가장 높고, 다음은 서구로 18.5%이다. 반면 동구와 중구 그리고 대덕구로부터의 전입은 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외부지역으로부터 전입현황을 살펴보면, 충청남도로부터의 전입이 588명 1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서울시로 6.1%, 경기도로부터의 전입은 5.6%로 상대적으로 높은 전입비율은 보였다. 충청북도로부터의 전입은 2.4%이다.

<표 4-4> 2009년 노은 1동의 전입인구 구성

구 분	인구(명)	점유비율(%)	구 분	인구(명)	점유비율(%)	
서울시	296	6.1	울산시	10	0.2	
부산시	57	1.2	경기도	270	5.6	
인천시	36	0.7	강원도	33	0.7	
대구시	34	0.7	충청북도	116	2.4	
광주시	34	0.7	충청남도	588	12.2	
대전시	동구	224	4.6	경상북도	95	2.0
	중구	219	4.5	경상남도	28	0.6
	서구	892	18.5	전라북도	50	1.0
	유성구	1,621	33.6	전라남도	54	1.1
	대덕구	160	3.3	제주도	13	0.3
	소 계	3,116	64.5	합 계	4,830	100



[그림 4-3] 2009년 노은 1동 전입자의 이전거주지 구성비율 : 대전시 제외

전체 전입자의 64.5%를 차지하는 대전시 내부이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5>와 같다.

전입비율이 가장 높은 동은 노은 2동으로 28.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온천 2동(7.57%), 온천 1동(4.59%), 신성동(4.08%)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유비율을 보이는 동으로 나타났다. 2001년의 경우 둔산 2동으로부터 전입이 높았던 반면, 2009년은 노은 2동과 온천동 등 인접한 지역에서의 전입이 높아진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4-5> 2009년 노은 1동으로의 대전시 내부이동

동명	전입자(명)	(%)	동명	전입자(명)	(%)
중앙동	6	0.19	탄방동	69	2.21
효동	21	0.67	괴정동	31	0.99
신인동	31	0.99	가장동	16	0.51
관암1동	19	0.61	내동	46	1.48
관암2동	16	0.51	갈마1동	71	2.28
용운동	14	0.45	갈마2동	51	1.64
대동	5	0.16	월평1동	44	1.41
자양동	9	0.29	월평2동	46	1.48
가양1동	23	0.74	월평3동	94	3.02

가양2동	9	0.29	가수원동	10	0.32
용전동	20	0.64	관저1동	21	0.67
성남동	1	0.03	관저2동	46	1.48
홍도동	19	0.61	기성동	3	0.10
삼성동	11	0.35	삼천동	11	0.35
대청동	0	0.00	둔산1동	42	1.35
산내동	20	0.64	둔산2동	85	2.73
은행선화동	12	0.39	만년동	56	1.80
목동	13	0.42	둔산3동	37	1.19
중촌동	12	0.39	진잠동	77	2.47
대흥동	20	0.64	온천1동	143	4.59
문창동	6	0.19	온천2동	236	7.57
석교동	3	0.10	노은1동	0	0.00
대사동	7	0.22	노은2동	901	28.92
부사동	0	0.00	신성동	127	4.08
용두동	11	0.35	전민동	29	0.93
오류동	21	0.67	구즉동	108	3.47
태평1동	20	0.64	오정동	18	0.58
태평2동	28	0.90	대화동	7	0.22
유천1동	0	0.00	회덕동	8	0.26
유천2동	9	0.29	비래동	8	0.26
문화1동	26	0.83	송촌동	48	1.54
문화2동	14	0.45	중리동	22	0.71
산성동	17	0.55	신탄진동	9	0.29
복수동	29	0.93	석봉동	2	0.06
도마1동	17	0.55	덕암동	2	0.06
도마2동	24	0.77	목상동	10	0.32
정림동	10	0.32	범1동	17	0.55
변동	18	0.58	범2동	9	0.29
용문동	15	0.48	합계	3,116	100.00

2. 테크노밸리개발사업지구 전입인구

1) 테크노밸리개발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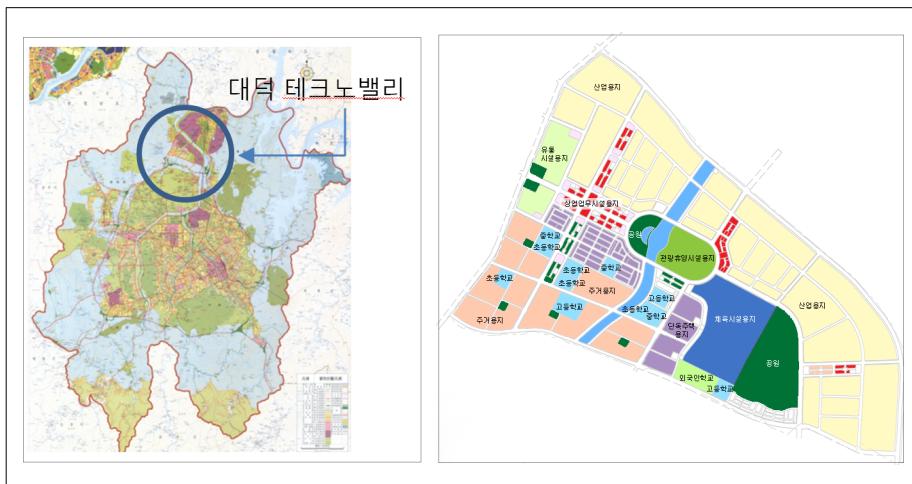
대덕테크노밸리는 미국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하여, 우리나라에 건설된 첨단벤처 단지라고 할 수 있다.

대덕테크노밸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427만㎡의 산업 단지로 조성되는 지역이다. 대덕테크노밸리 면적의 32%는 산업용지이며, 주거용지 등 지원용지 면적은 34%이다.

<표 4-6> 대덕테크노밸리 개발계획

구 분	도 입 용 도	면적(만㎡)	비율(%)	
산업용지	일반공업/준공업	137	32%	
지원 용지	주거용지	공동주택/단독주택	66	16%
	상업용지	상업/산업지원/근린생활/유통	19	5%
	레저용지	관광휴양/체육시설	36	8%
	공공용지	학교/커뮤니티센터 등	24	5%
	소 계	-	282	34%
기부채납	녹지/도로/공원 등	145	34%	
합 계	-	427	100%	

자료 : 대덕테크노밸리 홈페이지(<http://www.dtv21.co.kr/>)



[그림 4-4] 테크노밸리사업지구 위치도 및 계획도

2) 테크노밸리사업지구 전입인구

□ 200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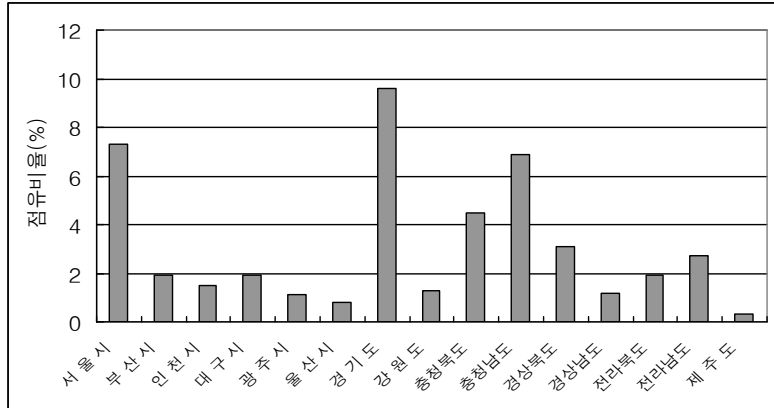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대전시의 신규개발지로서 대덕테크노밸리에서의 전입인구를 '유추'하기 위하여 테크노밸리가 위치하고 있는 구즉동의 전입현황을 살펴보았다. 전입현황은 개발사업이 진행되기 이전인 2001년과 2009년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2001년 전국에서 구즉동으로의 전입현황을 살펴보면 <표 4-7>과 같다.

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인, 2001년 구즉동으로의 총 전입인구는 5,702명이며, 이중 대전시 내부 전입자는 3,075명으로 전체 전입자의 53.9%를 차지하고 있다. 차치구별로 보면, 대덕구로부터의 전입자가 19.1%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서구로 13.6%이다. 중구와 동구는 5.5%와 4.6%로 비교적 낮은 점유비율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전입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전체 전입자의 9.6%인 546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서울시로 418명 7.3% 그리고 충청남도 6.9%의 순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로부터의 전입비율은 4.5%이다.

<표 4-7> 2001년 구즉동의 전입인구 구성

구 분	인구(명)	점유비율(%)	구 분	인구(명)	점유비율(%)	
서울시	418	7.3	울산시	48	0.8	
부산시	108	1.9	경기도	546	9.6	
인천시	86	1.5	강원도	72	1.3	
대구시	110	1.9	충청북도	258	4.5	
광주시	64	1.1	충청남도	393	6.9	
대전시	동구	260	4.6	경상북도	175	3.1
	중구	316	5.5	경상남도	70	1.2
	서구	776	13.6	전라북도	111	1.9
	유성구	632	11.1	전라남도	153	2.7
	대덕구	1,091	19.1	제주도	15	0.3
	소 계	3,075	53.9	합 계	5,702	100.0



[그림 4-5] 2001년 구즉동 전입자의 이전거주지 구성비율 : 대전시 제외

대전시 내부로부터 전입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8>과 같다.

대덕테크노밸리사업이 진행되기 이전인 2001년 구즉동으로의 동별 전입현황을 살펴보면, 신성동에서의 전입이 전체의 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덕암동으로 6.8%, 전민동으로부터의 전입은 6.7%로 나타났다. 또한 목상동(6.5%)과 신탄진동(4.4%)으로부터의 전입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2001년 구즉동으로의 대전시 내부이동

구분	전입자(명)	(%)	구분	전입자(명)	(%)
중앙동	1	0.0	도마1동	31	1.0
인동	0	0.0	도마2동	41	1.3
효동	11	0.4	정립동	19	0.6
신흥동	4	0.1	변동	23	0.7
관암1동	8	0.3	용문동	20	0.7
관암2동	16	0.5	탄방동	53	1.7
용운동	15	0.5	괴정동	21	0.7
대신동	2	0.1	가장동	17	0.6
대동	10	0.3	내동	11	0.4
자양동	13	0.4	갈마1동	27	0.9
소계동	7	0.2	갈마2동	61	2.0
가양1동	18	0.6	월평1동	62	2.0

가양2동	37	1.2	월평2동	70	2.3
용전동	40	1.3	월평3동	38	1.2
성남1동	11	0.4	가수원동	74	2.4
성남2동	7	0.2	기성동	7	0.2
홍도동	20	0.7	삼천동	51	1.7
삼성1동	4	0.1	둔산1동	13	0.4
삼성2동	20	0.7	둔산2동	81	2.6
대청동	2	0.1	만년동	47	1.5
산내동	14	0.5	진잠동	31	1.0
은행선화동	8	0.3	온천1동	55	1.8
목동	14	0.5	온천2동	113	3.7
중촌동	43	1.4	신성동	228	7.4
대흥동	10	0.3	천민동	205	6.7
문창동	16	0.5	구죽동	0	0.0
석교동	18	0.6	오정동	55	1.8
대사동	6	0.2	대화동	19	0.6
부사동	11	0.4	회덕1동	100	3.3
용두동	12	0.4	회덕2동	79	2.6
오류동	11	0.4	중리동	69	2.2
태평1동	27	0.9	신탄진동	135	4.4
태평2동	26	0.8	석봉동	129	4.2
유천1동	3	0.1	덕암동	209	6.8
유천2동	10	0.3	목상동	199	6.5
문화1동	55	1.8	법1동	39	1.3
문화2동	13	0.4	법2동	58	1.9
산성동	33	1.1	합 계	3,075	100.0
복수동	9	0.3			

□ 2009년

대덕테크노밸리사업의 1, 2단계가 완료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2009년 유성구 구즉동으로 전입현황을 살펴보면, 총 10,697명이 전입하였으며, 이중 대전시로부터 내부이동은 61.1%인 6,541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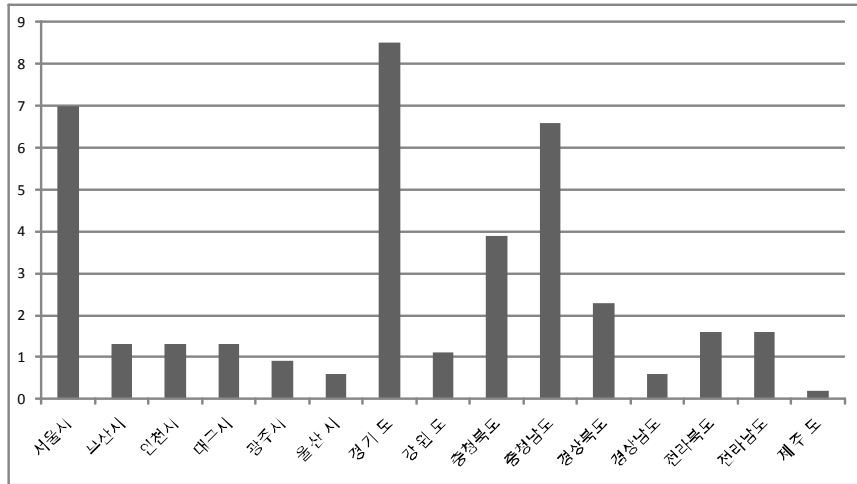
내부이동을 지자체별로 보면, 대덕구가 19.3%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유성구가 16.9% 그리고 서구가 15.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동구와 중구는 4.9%와 4.6%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대전시 외부지역으로부터 구즉동으로의 전입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로부터 전입이 911명으로 전체 전입자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서울시로부터 전입이 754명인 7.0%, 충청남도로부터 전입은 709명인 6.6%로 나타났다. 충청북도로부터 전입은 414명으로 전체 전입자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즉 2001년 53.9%에 비해, 2009년 대전시 내부이동이 7.2%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9> 2009년 구즉동의 전입인구 구성

구 분	인구(명)	점유비율(%)	구 분	인구(명)	점유비율(%)	
서울시	754	7.0	울산시	64	0.6	
부산시	140	1.3	경기도	911	8.5	
인천시	143	1.3	강원도	122	1.1	
대구시	137	1.3	충청북도	414	3.9	
광주시	91	0.9	충청남도	709	6.6	
대전시	동구	527	4.9	경상북도	248	2.3
	중구	493	4.6	경상남도	64	0.6
	서구	1,652	15.4	전라북도	167	1.6
	유성구	1,804	16.9	전라남도	168	1.6
	대덕구	2,065	19.3	제주도	24	0.2
	소계	6,541	61.1	합계	10,697	100.0



[그림 4-6] 2009년 구즉동 전입자의 이전거주지 구성비율 : 대전시 제외

2009년 구즉동으로의 전입 중 61.1%를 차지하는 대전시 내부이동을 동단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10>과 같다.

<표 4-10>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2009년 대전시에서 구즉동으로의 총 인구 이동은 6,541명이며, 이 이동인구의 8.47%가 전민동으로부터 전입하였으며, 다음은 신성동으로부터 전입이 6.16%이다. 또한 덕암동으로부터 전입은 5.89%, 목상동으로부터 전입은 5.55%, 신탄진동으로부터 전입은 5.32%로 나타났다.

<표 4-10> 2009년 구즉동으로의 대전시 내부이동

동명	전입자(명)	(%)	동명	전입자(명)	(%)
중앙동	15	0.23	탄방동	145	2.22
효동	55	0.84	괴정동	97	1.48
신인동	36	0.55	가장동	37	0.57
관암1동	28	0.43	내동	77	1.18
관암2동	13	0.20	갈마1동	95	1.45
용운동	33	0.50	갈마2동	106	1.62
대동	6	0.09	월평1동	74	1.13
자양동	20	0.31	월평2동	94	1.44
가양1동	31	0.47	월평3동	84	1.28
가양2동	52	0.79	가수원동	27	0.41

용전동	68	1.04	관저1동	51	0.78
성남동	13	0.20	관저2동	113	1.73
홍도동	49	0.75	기성동	2	0.03
삼성동	57	0.87	삼천동	22	0.34
대청동	10	0.15	둔산1동	44	0.67
산내동	41	0.63	둔산2동	183	2.80
은행선화동	28	0.43	만년동	83	1.27
목동	29	0.44	둔산3동	57	0.87
중촌동	35	0.54	진잠동	96	1.47
대흥동	21	0.32	온천1동	162	2.48
문창동	7	0.11	온천2동	226	3.46
석교동	46	0.70	노은1동	147	2.25
대사동	12	0.18	노은2동	216	3.30
부사동	6	0.09	신성동	403	6.16
용두동	22	0.34	전민동	554	8.47
오류동	8	0.12	구죽동	0	0.00
태평1동	33	0.50	오정동	93	1.42
태평2동	75	1.15	대화동	50	0.76
유천1동	8	0.12	회덕동	176	2.69
유천2동	21	0.32	비래동	59	0.90
문화1동	69	1.05	송촌동	120	1.83
문화2동	21	0.32	중리동	103	1.57
산성동	52	0.79	신탄진동	348	5.32
복수동	55	0.84	석봉동	226	3.46
도마1동	28	0.43	덕암동	385	5.89
도마2동	31	0.47	목상동	363	5.55
정림동	60	0.92	범1동	68	1.04
번동	41	0.63	범2동	74	1.13
용문동	46	0.70	합계	6,541	100.00

제2절 기성시가지 주택개발사업의 인구이동

1. 조사대상지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1) 조사대상지 개요

이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 주택개발사업은 총 4개소이며, 이중 3개소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그리고 1개소는 재개발지구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천동1지구, 봉산지구 그리고 대신1지구이며, 재개발지구는 목동1지구이다.

사업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중 천동1지구의 총 세대수는 1,709세대, 봉산지구는 1,843세대 그리고 대신1지구는 1,272세대이고, 목동1지구의 세대수는 총 693세대이다. 조사대상지구는 모두 분양과 임대형태로 공급되었으며, 입주시기는 2008년~2010년이다.

이 연구를 위한 조사매수는 총 540매로 전체 5,517세대의 약 9.8%에 해당한다.

<표 4-11> 조사대상 주택개발사업지구

구분	지구	위치	아파트명	유형	세대수			입주일	조사 대상(매)
					분양	임대	합계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구	천동 1지구	동구 천동 53번 지 일원	천동 휴먼시아 1단지	국민임대		946	1,709	'08.11	170
			천동 휴먼시아 2단지	공공분양	763	'08.11			
	봉산 지구	유성구 봉산동 298 유성구 봉산동 295	하늘바람 휴먼 시아 1단지	분양	990	1,843	'09.9	180	
			하늘바람 휴먼 시아 2단지	국민임대	853		'09.7		
	대신 1지구	동구 대동 110 번지 일원	새들피 휴먼시 아 1단지	공공분양	897	1,272	'10.10	120	
			새들피 휴먼시 아 2단지	국민임대	375		'10.7		
재개 발지 구	목동1	중구 목동 15번 지일원	대전목동 더샵	재개발조 합	633	60	693	'10.6	70
총합계		-	-	-	3,283	2,234	5,517	-	540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이 조사를 위한 응답자의 일반적 성격을 보면 <표 4-12>와 같다.

전체 응답자중 여자는 60.0%인 324명 그리고 남자는 40.0%인 216명이고, 연령대로 보면, 20대는 4.1%, 30대는 41.1%로 가장 높고, 40대는 18.1%, 50대는 15.6%, 60대는 10.6% 그리고 70대 이상은 10.6%이다.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이 10.9%, 중학교 졸업은 8.0%, 고등학교 졸업은 38.5% 그리고 대학교 졸업 이상은 가장 많은 42.6%이다. 차량이 없는 가구는 전체의 10.7%이고, 1대 보유는 70.0%, 2대 보유는 17.6% 그리고 3대 이상 보유는 1.7%이다.

월소득이 1백만원 미만은 전체의 10.6%, 5백만원 미만은 81.5%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1천만원 미만은 7.6%, 1천만원 이상은 0.4%이다. 자산측면에서는 5천만원 미만이 33.0%, 1억원 미만이 16.5%, 5억원 미만이 47.2% 그리고 5억원 이상은 3.3%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구분	빈도(명) 및 구성비(%)						
	합계	여자		남자			
성별	합계	540명		324명			216명
		100.0%		60.0%			40.0%
연령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540명	22명	222명	98명	84명	57명	57명
	100.0%	4.1%	41.1%	18.1%	15.6%	10.6%	10.6%
학력	합계	초등학교졸업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이상졸업
	540명	59명		43명		208명	230명
	100.0%	10.9%		8.0%		38.5%	42.6%
차량	합계	없음		1대		2대	3대 이상
	540명	58명		378명		95명	9명
	100.0%	10.7%		70.0%		17.6%	1.7%
월 소득	합계	1백만원미만		5백만원미만		1천만원미만	1천만원이상
	540명	57명		440명		41명	2명
	100.0%	10.6%		81.5%		7.6%	0.4%
자산	합계	5천만원미만		1억원미만		5억원미만	5억원이상
	540명	178명		89명		255명	18명
	100.0%	33.0%		16.5%		47.2%	3.3%

2. 주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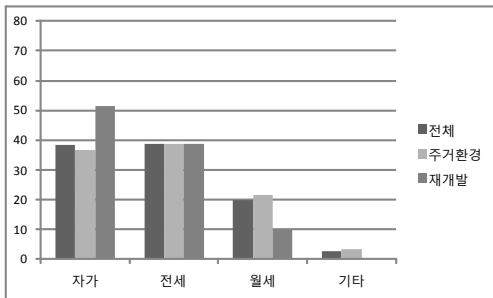
□ 주택의 점유형태

주택의 점유형태를 조사한 결과, 현재 자가거구는 전체의 45.7%이며, 월세가 35.9%로 다음 순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세는 15.2%이다. 한편 이전 주택에 대한 조사결과, 자가는 38.5%, 전세는 38.7%, 월세는 20.0%인 것으로 나타나, 자가 및 월세거구의 상승, 전세거구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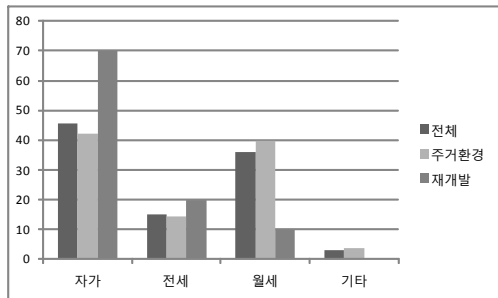
사업유형별로 보면, 재개발사업지구의 자가는 70.0%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자가 42.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3> 주택점유형태 변화

구분	합 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현재 주택		이전 주택		현재 주택		이전 주택		현재 주택		이전 주택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자가	247	45.7	208	38.5	198	42.1	172	36.6	49	70.0	36	51.4
전세	82	15.2	209	38.7	68	14.5	182	38.7	14	20.0	27	38.6
월세	194	35.9	108	20.0	187	39.8	101	21.5	7	10.0	7	10.0
기타	17	3.1	15	2.8	17	3.6	15	3.2	0	0.0	0	0.0
합계	540	100.0	540	100.0	470	100.0	470	100.0	70	100.0	70	100.0



<이전주택>



<현재주택>

[그림 4-7] 점유형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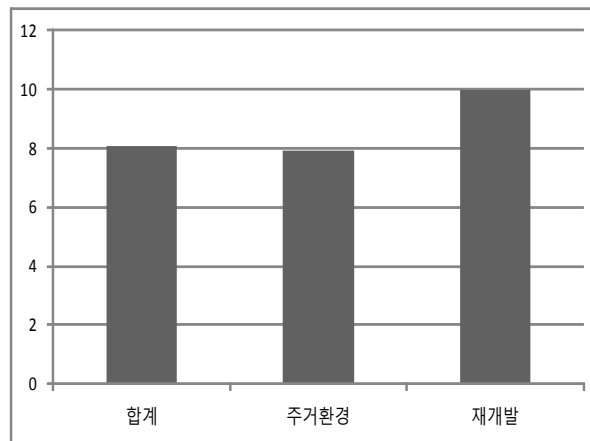
3. 인구이동 및 이동원인

□ 원거주민 입주비율

주택개발사업이 진행되기 이전 현거주지에 거주하였던, 원거주민에 대한 조사결과, 원거주민은 전체 조사대상 540명 중 8.1%인 44명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거주민의 입주비율이 7.9%로 재개발사업 10.0%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원거주민 입주비율

구 분	합 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빈도	(%)	빈도	(%)	빈도	(%)
원거주민	44	8.1	37	7.9	7	10.0
이 주 민	496	91.9	433	92.1	63	90.0
합 계	540	100.0	470	100.0	7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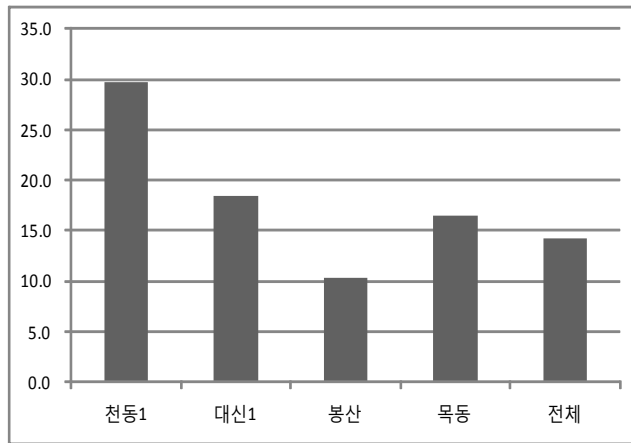
[그림 4-8] 주택개발사업지구 원거주민 입주비율

□ 주민 재정착률

설문대상자가 전체 거주자의 9.8%이므로, 이 비율을 기초로 실제 거주자 규모를 예측하고, 주택개발사업 이전에 거주하던 원거주민수와 비교하여 재정착률을 도출하면, 전체적으로는 14.2%로 예측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정착률은 13.8%, 재개발사업의 재정착률은 16.5%로 예측되었다.

구 분	지 구	설문대상 원거주민(명)	전체 원거주민 예측(명)	주택개발사업이전 원거주민(명)*	재정착률 (%)
주거환경개 선사업	천동1지구	7	70	235	29.8
	대신1지구	11	110	594	18.5
	봉산 지구	19	190	1,843	10.3
	소 계	37	370	2,672	13.8
재개발사업	-	7	70	424	16.5
전 체	-	44	440	3,096	14.2

* : 해당 구청 자료



<주택개발사업 재정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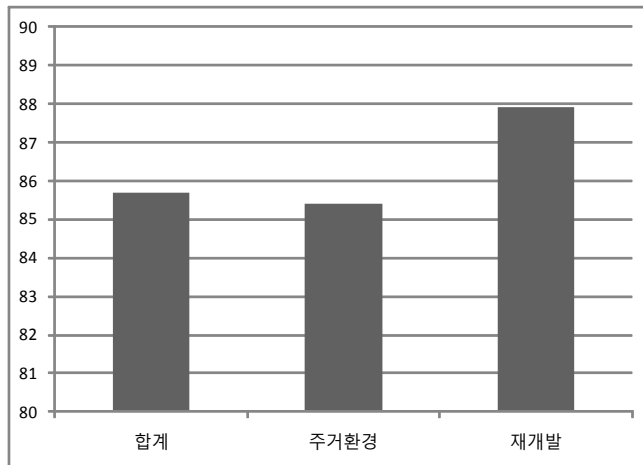
□ 현 거주지로 이사 오기 직전의 거주지

현 거주지로 이사 오기 이전 거주지에 대한 조사결과, 대전시가 전체의 85.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전시 외 지역은 14.3%이다.

한편 사업유형별로 보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대전시가 이전거주지인 비율이 87.9%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 85.4%에 비해 2.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이전 거주지

구 분	합 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빈도	(%)	빈도	(%)	빈도	(%)
대전시	439	85.7	381	85.4	58	87.9
대전 외 국내	72	14.1	64	14.3	8	12.1
해 외	1	0.2	1	0.2	0	0.0
합 계	512	100.0	446	100.0	6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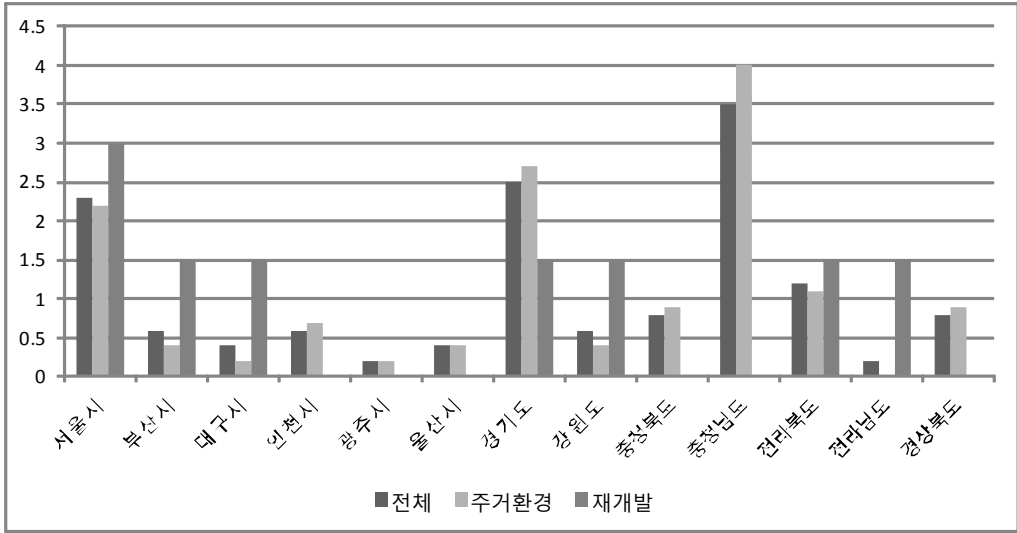
[그림 4-9] 주택개발사업지구 이전거주지가 대전시인 거주자 비율

이전 거주지가 대전외 지역인 경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청남도가 3.5%, 경기도가 2.5% 그리고 서울시가 2.3%로 나타났다.

사업유형별로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충청남도로부터의 전입이 4.0% 그리고 경기도와 서울시로부터의 전입이 높게 나타났고, 재개발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다 다양한 전입지를 나타냈다.

<표 4-16> 이전 거주지 : 광역자치단체 기준

구 분	합 계		주거환경		재개발		
	빈도	(%)	빈도	(%)	빈도	(%)	
서울시	12	2.3	10	2.2	2	3.0	
부산시	3	0.6	2	0.4	1	1.5	
대구시	2	0.4	1	0.2	1	1.5	
인천시	3	0.6	3	0.7	0	0.0	
광주시	1	0.2	1	0.2	0	0.0	
대전시	동구	153	29.9	140	31.5	13	19.7
	중구	79	15.4	48	10.8	31	47.0
	서구	55	10.7	47	10.6	8	12.1
	유성구	87	17.0	87	19.6	0	0.0
	대덕구	65	12.7	59	13.3	6	9.1
	소 계	439	85.7	381	85.6	58	87.9
울산시	2	0.4	2	0.4	0	0.0	
경기도	13	2.5	12	2.7	1	1.5	
강원도	3	0.6	2	0.4	1	1.5	
충청북도	4	0.8	4	0.9	0	0.0	
충청남도	18	3.5	18	4.0	0	0.0	
전라북도	6	1.2	5	1.1	1	1.5	
전라남도	1	0.2	0	0.0	1	1.5	
경상북도	4	0.8	4	0.9	0	0.0	
합 계	511	100	445	100	66	100	



[그림 4-10] 대전시 외로부터 전입

이전 거주지가 대전시인 경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전입인구가 높은 동은 송강동으로 10.5%이고, 판암동은 8.7%, 가양동은 3.9%, 법동은 3.6% 그리고 용운동이 3.2%로 나타났다.

사업유형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송강동이 1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판암동 9.4%, 가양동 4.2%, 법동 3.9%, 자양동이 3.1%로 나타났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목동이 17.2%, 중촌동이 10.3%, 삼성동, 용운동, 문화동, 산성동, 선화동, 송촌동 등이 5.2%로 나타났다.

<표 4-17> 이전 거주지 : 대전시내 동 기준

구분	동명	전체		주거환경		재개발		구분	동명	전체		주거환경		재개발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동구	가양동	17	3.9	16	4.2	1	1.7	서구	관저동	4	0.9	4	1.0	0	0.0
	가오동	6	1.4	6	1.6	0	0.0		괴정동	4	0.9	4	1.0	0	0.0
	낭월동	4	0.9	4	1.0	0	0.0		내동	3	0.7	2	0.5	1	1.7
	대동	11	2.5	11	2.9	0	0.0		도마동	4	0.9	3	0.8	1	1.7
	대성동	1	0.2	1	0.3	0	0.0		둔산동	12	2.7	10	2.6	2	3.4
	비래동	1	0.2	1	0.3	0	0.0		만년동	2	0.5	2	0.5	0	0.0

중구	삼성동	5	1.1	2	0.5	3	5.2	유성	복수동	2	0.5	0	0.0	2	3.4	
	성남동	3	0.7	2	0.5	1	1.7		월평동	8	1.8	6	1.6	2	3.4	
	소제동	4	0.9	4	1.0	0	0.0		정림동	3	0.7	3	0.8	0	0.0	
	신안동	1	0.2	1	0.3	0	0.0		탄방동	4	0.9	4	1.0	0	0.0	
	신인동	2	0.5	2	0.5	0	0.0		관평동	7	1.6	7	1.8	0	0.0	
	신흥동	8	1.8	8	2.1	0	0.0		구암동	2	0.5	2	0.5	0	0.0	
	용운동	14	3.2	11	2.9	3	5.2		노은동	4	0.9	4	1.0	0	0.0	
	용전동	7	1.6	5	1.3	2	3.4		대정동	1	0.2	1	0.3	0	0.0	
	인동	7	1.6	7	1.8	0	0.0		봉명동	1	0.2	1	0.3	0	0.0	
	자양동	12	2.7	12	3.1	0	0.0		봉산동	5	1.1	5	1.3	0	0.0	
	정동	1	0.2	1	0.3	0	0.0		송강동	46	10.5	46	12.1	0	0.0	
	천동	5	1.1	5	1.3	0	0.0		신성동	4	0.9	4	1.0	0	0.0	
	관암동	38	8.7	36	9.4	2	3.4		어은동	2	0.5	2	0.5	0	0.0	
	홍도동	4	0.9	4	1.0	0	0.0		용산동	2	0.5	2	0.5	0	0.0	
	효동	2	0.5	1	0.3	1	1.7		장대동	3	0.7	3	0.8	0	0.0	
	서구	대사동	1	0.2	1	0.3	0		0.0	전민동	10	2.3	10	2.6	0	0.0
		대흥동	6	1.4	5	1.3	1		1.7	대화동	1	0.2	1	0.3	0	0.0
목동		11	2.5	1	0.3	10	17.2	덕암동	6	1.4	6	1.6	0	0.0		
문창동		2	0.5	2	0.5	0	0.0	목상동	6	1.4	6	1.6	0	0.0		
문화동		11	2.5	8	2.1	3	5.2	법동	16	3.6	15	3.9	1	1.7		
부사동		3	0.7	3	0.8	0	0.0	비래동	3	0.7	2	0.5	1	1.7		
산성동		5	1.1	2	0.5	3	5.2	상서동	3	0.7	3	0.8	0	0.0		
석교동		4	0.9	3	0.8	1	1.7	석봉동	3	0.7	3	0.8	0	0.0		
선화동		7	1.6	4	1.0	3	5.2	송촌동	10	2.3	7	1.8	3	5.2		
오류동		2	0.5	2	0.5	0	0.0	신일동	1	0.2	1	0.3	0	0.0		
옥계동		4	0.9	4	1.0	0	0.0	신탄진	4	0.9	4	1.0	0	0.0		
용두동		7	1.6	5	1.3	2	3.4	와동	4	0.9	3	0.8	1	1.7		
유천동		6	1.4	6	1.6	0	0.0	읍내동	2	0.5	2	0.5	0	0.0		
중촌동		7	1.6	1	0.3	6	10.3	중리동	5	1.1	5	1.3	0	0.0		
태평동		3	0.7	1	0.3	2	3.4	평촌동	1	0.2	1	0.3	0	0.0		
가수원		3	0.7	3	0.8	0	0.0	합계	-	439	100.0	381	100.0	58	100.0	
갈마동		6	1.4	6	1.6	0	0.0		-	-	-	-	-	-		

□ 현 거주지로 이사동기

현거주지로의 이사동기는 '넓고 좋은 주택으로 옮기려고'라는 응답이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직장변동(취직 등) 때문에'라는 응답으로 전체의 11.3%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해'라는 응답이 10.9%로 높게 나타났다.

사업유형별로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넓고 좋은 주택으로 옮기려고'라

는 응답이 전체의 25.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직장변동(취직 등) 때문에'라는 응답이 11.4%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해'라는 응답이 10.5%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재개발지역의 경우 가장 많은 점유비중은 '넓고 좋은 주택으로 옮기려고'라는 응답(21.2%)이나, 다음은 '자녀 교육여건 때문에'라는 응답으로 18.2%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양받은 주택으로 이사하려고'라는 응답이 16.7%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다른 이사동기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재개발사업의 경우 '내 집 마련을 위해'와 '분양받은 주택으로 이사하려고'라는 주택취득의 목적동기가 30.3%로서 '넓고 좋은 주택으로 옮기려고'라는 주택환경 개선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 4-18> 현 거주지로의 이사동기

이 사 동 기	합계		주거환경		재개발	
	빈도	(%)	빈도	(%)	빈도	(%)
내 집 마련을 위해	56	10.9	47	10.5	9	13.6
넓고 좋은 주택으로 옮기려고	127	24.8	113	25.3	14	21.2
주택 및 시설이 노후해서	29	5.7	27	6.1	2	3.0
분양받은 주택으로 이사하려고	33	6.4	22	4.9	11	16.7
직장변동(취직 등) 때문에	58	11.3	51	11.4	7	10.6
자녀 교육여건 때문에	26	5.1	14	3.1	12	18.2
교통 때문에	22	4.3	21	4.7	1	1.5
결혼 등으로 독립하기 위해	20	3.9	18	4.0	2	3.0
부모, 자녀 등과 가까이 살려고	19	3.7	15	3.4	4	6.1
가구원수가 변해서	4	0.8	4	0.9	0	0.0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22	4.3	21	4.7	1	1.5
편익시설·위락시설이 부족해서	6	1.2	6	1.3	0	0.0
집세가 비싸서	29	5.7	28	6.3	1	1.5
소득이 줄어서	11	2.1	11	2.5	0	0.0
재개발로 인해서	12	2.3	12	2.7	0	0.0
기타	38	7.4	36	8.1	2	3.0
합 계	512	100.0	446	100.0	66	100.0

4. 주거환경 만족도

□ 현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현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4점 척도로 6개 부문과 종합만족도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4-19>와 같다. 척도는 1점이 '불만족', 2점이 '약간 불만족', 3점이 '대체로 만족' 그리고 4점이 '매우 만족'이다.

주거환경에 대한 종합만족도는 2.84점으로 '대체로 만족'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6개 부문- ① 주택품질 ② 단지의 물리적 환경 ③ 단지의 사회적 환경 ④ 접근성 ⑤ 주변환경 및 시설 ⑥ 경제적 환경-으로 구분하여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단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3.0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주택품질이 2.96점, 단지의 사회적 환경이 2.93점, 경제적 환경이 2.73점, 접근성이 2.66점 그리고 주변환경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2.5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업유형별로 보면, 재개발사업의 종합만족도가 3.10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2.80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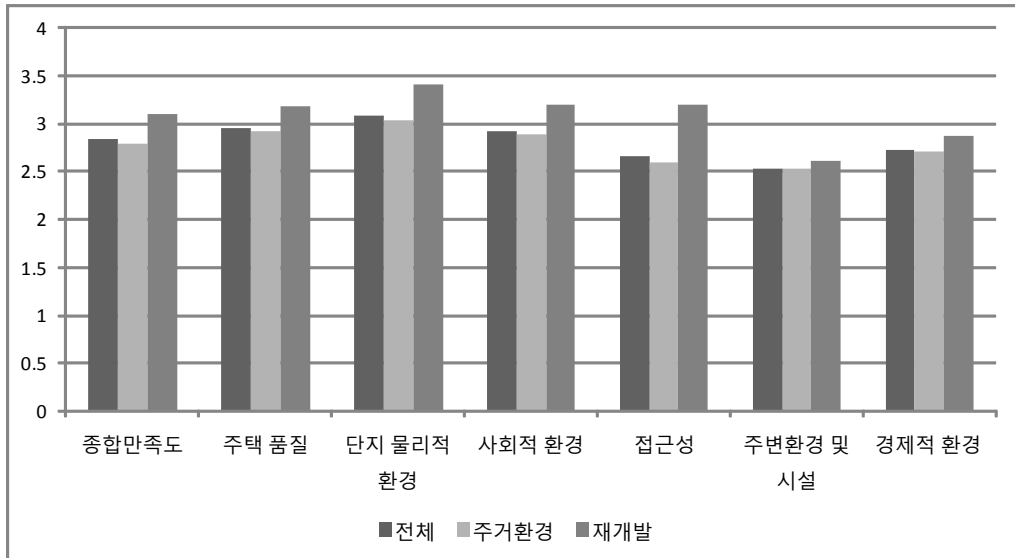
부문별로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전체 주거환경의 만족도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재개발사업의 경우 단지의 사회적 환경과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3.20점)가 주택품질(3.19점)에 대한 만족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 만족도 차이(재개발사업 만족도 - 주거환경개선사업 만족도)를 보면,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차이가 0.61점으로 가장 크고, 다음은 단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 차이가 0.38점, 단지의 사회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 차이가 0.31점, 주택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0.26점, 경제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0.16점, 주변환경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 차이는 0.08점으로 가장 적었다.

한편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특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외곽지역에서 진행되었고, 반면 재개발사업이 도심 인접지역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4-19>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구 분	주거환경	합계	주거 환경	재개 발
주택품질	주택의 면적이나 방수	3.03	3.01	3.20
	주택 내 주방, 화장실, 난방시설 등 시설(품질)	2.95	2.91	3.23
	방, 거실, 주방 등 공간배치(구조)	3.01	3.00	3.04
	채광과 통풍, 소음(층간소음, 외부소음) 등	2.72	2.67	3.10
	주택 품질에 대한 부문 만족도	2.96	2.93	3.19
단지의 물리적 환경	주차공간 및 주차시설	3.07	3.00	3.56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등 부대시설	3.09	3.03	3.56
	단지의 청소 및 관리상태	3.00	2.97	3.23
	단지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부문 만족도	3.08	3.03	3.41
단지의 사회적 환경	단지 이웃의 구성 및 의사소통	2.89	2.88	2.97
	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주민간 상호활동, 행사 등	2.78	2.78	2.81
	현재 단지에 대한 인식, 이미지	2.92	2.87	3.26
	단지 주변 치안과 방법	2.94	2.88	3.31
	사회적 환경에 대한 부문 만족도	2.93	2.89	3.20
접근성	시내로의 대중교통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2.60	2.49	3.34
	시외(타도시)로의 광역교통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2.60	2.51	3.20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시설까지 접근성	2.49	2.41	3.06
	직장까지의 접근성	2.81	2.75	3.21
	접근성에 대한 부문 만족도	2.66	2.59	3.20
주변환경 및 시설	백화점 등 판매 및 서비스시설	2.45	2.43	2.63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	2.61	2.52	3.17
	주변 공원과 녹지시설	2.76	2.79	2.53
	공연·문화시설	2.31	2.33	2.24
	주변환경 및 시설에 대한 부문 만족도	2.54	2.53	2.61
경제적 환경	주택 유지관리비용	2.69	2.67	2.84
	주택 투자가치(가격 상승)	2.71	2.69	2.91
	경제적 환경에 대한 부문 만족도	2.73	2.71	2.87
주거종합 만족도	-	2.84	2.80	3.10



[그림 4-11] 주거환경 만족도

□ 현 거주지로 주거이동에 대한 만족도

현 주거지(아파트단지)로의 주거이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대체로 만족한다(‘매우 만족함’ 포함)’는 의견이 86.2%로 높게 나타났다.

사업유형별로는 재개발사업의 만족도가 97.1%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만족도 84.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현 주거지(아파트단지)로의 주거이동에 대한 만족도

구 분	합 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만족하지 못함	3	0.6	3	0.6	0	0.0
만족하지 못함	71	13.2	69	14.7	2	2.9
대체로 만족함	416	77.3	362	77.2	54	78.3
매우 만족함	48	8.9	35	7.5	13	18.8
합 계	538	100.0	469	100.0	69	100.0

제 5 장

결 론

제1절 연구내용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내용 요약

이 연구는 대전시의 일반적인 인구이동패턴과 함께 완료된 주택개발사업에서 어떠한 인구이동이 진행되었으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대전시 인구이동 현황 및 패턴에 대한 분석결과, 1990년~2010년간 대전시로 전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충청남도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서울시(1990년~1995년), 경기도(2000년~2010년)로 나타났다. 대전시에서 전출이 가장 많은 지역은 역시 충청남도로 나타났고, 다음은 서울시와 경기도로 전입과 유사한 패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제한 순이동인구(사회적 인구이동)를 살펴보면, 2010년의 경우 전라북도와 경상남도로부터 사회적 인구유입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시와 경기도로의 사회적 인구유출이 진행되어 전체적으로 사회적 인구 감소가 진행되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유성구는 서울과 경기도로부터 전입이 많고, 대덕구는 충청북도로부터 그리고 중구는 충청남도로부터 전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출인구 역시 전입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한편 2010년 순이동인구를 살펴보면, 자치구별로 상이한 인구이동패턴을 보였는데, 동구의 경우 부산시로부터 전입 그리고 경기도로의 전출이라는 이동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중구의 경우 전라남도로부터 전입 그리고 경기도로의 전출패턴을 보였다. 서구의 경우 충청남도로부터 전입이 가장 많고 서울시로의 전출이 많은 인구이동 경로를 보였고, 유성구의 경우, 경기도로의 전입이 가장 많고, 서울시로의 전출이 가장 많은 특징적 패턴을 나타냈다. 대덕구의 경우, 전라북도로부터 전입과 경기도로의 전출이 많은 인구이동패턴을 보였다.

대전시내 동별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2001년 기준 전출비율이 높은 동은 회덕 2동으로 나타났고, 전입비율이 높은 동은 온천 2동으로 나타났다. 전입비율에서 전

출비율은 제외한 순인구이동 점유비율은 온천 2동이 4.76%로 가장 높았으며, 용두동이 -0.7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의 경우 구즉동의 전입과 전출 점유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순인구이동 점유비율은 구즉동이 1.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갈마 2동이 -0.2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인구이동패턴은 다차원척도법이나 사회네트워크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16개 광역자치단체 전출입자를 기준으로 다차원분석(MDS; Multidimensional Scaling)을 실시한 결과, 2001년의 경우 대전시는 충청북도와 밀접한 관계를 그리고 2009년의 경우 대전시는 충청북도와 전라북도와 밀접한 인구이동패턴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대전시 동별 전출입자를 기준으로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2001년의 경우 온천 2동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조가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온천 2동의 In-Degree Centrality는 0.428571로 나타났다. 2009년의 경우 구즉동 중심의 네트워크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구즉동의 In-Degree Centrality는 0.147059로 도출되었다.

두 번째로, 대전시 주택개발사업 유형별 인구이동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노은택지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른 전입인구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2001년 전국으로부터 온천 2동으로의 전입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전시 내부이동이 74.1%이고 충청남도로부터 전입이 7.7%, 경기도와 서울시로부터 전입이 약 4%대로 나타났다. 2009년의 경우 노은 1동의 전입현황을 보면, 대전시 내부이동이 64.5%로 나타났고, 충청남도로부터 12.2%, 서울시 6.1%, 경기도 5.6% 등으로 나타났다.

대덕테크노밸리사업지구로의 전입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구즉동의 전입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1년의 경우 대전시 내부이동이 53.9%로 나타났고, 경기도가 9.6%, 서울시가 7.3% 그리고 충청남도가 6.9% 점유비율을 나타냈다. 대덕테크노밸리사업이 진행된 이후인 2009년의 경우 대전시 내부이동이 61.1%, 경기도 8.5%, 서울시 7.0%, 충청남도 6.6%의 전입비율을 나타냈다. 즉 주택개발사업 이후 대전시 내부이동 점유비율이 약 7.2% 가량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성시가지 주택개발사업에 의한 인구이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3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천동 1지구, 봉산지구, 대신 1지구)와 1개 재개발지구(목동 1)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주택의 점유형태는 이전주택에 비해 자가(45.7%)와 월세(35.9%) 점유비중이 증가하였으며,

② 원거주민의 입주비율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경우 7.9% 그리고 재개발사업지구는 10.0%로 전체적으로는 8.1%로 나타났다. 한편 원거주민의 재정착률은 14.2%로 유추되었다.

③ 이전 거주지가 대전시인 경우가 85.7%로 나타났고, 외부지역으로는 충청남도 3.5%, 경기도 2.5%, 서울시 2.3% 등으로 나타났으며,

④ 현 거주지로의 이사동기는 '넓고 좋은 주택으로 옮기려고'라는 응답이 24.8%로 가장 많고, '직장변동(취직 등) 때문에'라는 응답이 11.3%로 그 다음 순위이다. 한편 재개발사업지의 경우 '자녀교육여건 때문에'라는 응답이 18.2%로 2번째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⑤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6개 부문(주택품질, 단지의 물리적 환경, 단지의 사회적 환경, 접근성, 주변환경 및 시설, 경제적 환경)에 대한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단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3.0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변환경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2.5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종합적인 만족도는 2.84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개발지구 거주자의 만족도(3.10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거주자의 만족도(2.80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⑥ 현 거주지(아파트단지)로의 주거이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재개발사업의 경우 97.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84.7%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86.2%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주택개발사업의 유형별 인구이동에 대한 연구결과로부터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로, 대전시 전출입은 충청남도와 경기도 그리고 서울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2005년 이후 경기도와의 인구교류(이동)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또한 자치구별로 보면, 전출입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유성구는 서울시와 경기도, 대덕구는 충청북도 그리고 중구의 경우 충청남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은 조사 및 분석결과는 대전시 차원에서 인구이동 패턴을 이해하고, 향후 인구이동의 패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2년 이후 대전시와 인접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가 건설되어, 수도권으로부터 관련부처와 공무원이 이전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인구이동 패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로 주택개발사업 유형별 전입특성을 분석한 결과, 신규지역에 대한 주택개발사업의 전입은 60% 이상인 것으로 '간접적'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기성시까지 주택개발사업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내부이동이 약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택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내부이동이 전체의 60%~85%를 차지할 것이라는 점이 예측 가능하다. 한편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시 및 주택개발사업 시 외부유입인구 증가를 30%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적용치는 실제로 이 연구에서 실시한 기성시까지 주택개발사업에서의 외부유입인구 증가율(1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향후에는 도시정비차원에서 정비사업이 많이 진행될 것이며, 이 경우 외부유입률이 현재 대전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적용하는 수치보다 낮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기성시까지 주택개발사업에서 원거주민 입주비율이 약 8%인 것으로 나타났고, 원거주민의 재정착률은 14.2%로 유추되었다.¹²⁾ 주택개발사업 유형별로는

12) 대전시는 2007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의 원주민 입주율이 21.4%라고 발표한 바 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정착률이 13.8% 그리고 재개발사업의 경우 16.5%로 도출되었다. 서울시내 재개발지역 원주민 재정착률(2002년 이후 6년간)이 44%라는 점을 고려할 때¹³⁾, 대전시 주택개발사업에서 재정착률 제고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의 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한 많은 노력과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파이낸셜뉴스, 2007년 8월 26일)

13) 머니투데이 신문기사(2008년 9월 29일 ; <http://news.mt.co.kr/view/mtview.php?no=2008092914270716296&type=2>)

참 고 문 헌

- 김갑성, 2006, 수도권 주택건설과 인구유입의 인과관계,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의 수요와 파급효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토론회, 2006. 04
- 김용학, 2007, 사회연결망 분석, 박영사
- 손동원, 2002, 사회 네트워크 분석, 경문사
- 안종욱·조규영, 2002,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의 유입인구추정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02. 10
- 이외희, 2001, 택지개발사업지 유입인구의 유출지 및 이동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이외희 외, 2002, 주택순환과정에 따른 인구이동특성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이외희·이지은, 2007, 수도권 제2기 신도시지역의 인구유입특성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이학식·임지훈, 2005, 통계분석방법 및 해설, 법문사
- 이희연·김홍주, 2006,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수도권의 공간구조 변화, 1980-2000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41권 제1호
- 장욱·김경수, 2001, 부산인접도시 택지개발지의 가구이동 결정요인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36권 2호
- 장익진, 1998, 다차원 척도분석법, 연암사
- 전유신, 2009, 경기도 개발사업 유형별 인구이동 실태분석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44권 5호
- 정주희·성현곤, 2011, 수도권 주택개발사업 유형별 거주민의 통근행태 차이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46권 제1호
- 최원희, 1988, 대전시의 도시내부 인구이동의 구조와 사회, 경제적 특성, 국토계획 제23권 2호
- 최현철, 2007, 사회통계방법론, 나남
- 홍성호 외, 2010, 사회 네트워크 분석기법에 근거한 충남 자동차 부품산업의 지식 네트워킹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제45권 제4호
- 머니투데이 신문기사, 2008년 9월 29일(<http://news.mt.co.kr/view/mtview.php?no=2008092914270716296&type=2>)
- 파이낸셜뉴스 신문기사, 2007년 8월 26일(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921082440&cDateYear=2007&cDateMonth=08&cDateDay=26)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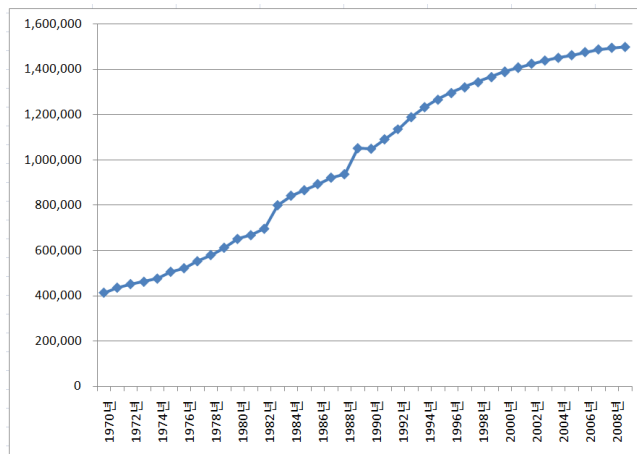
- 부록 1. 대전시 인구규모 변화
- 부록 2. 대전시 주거이동 실태조사 설문지
-

부 록

부록 1. 대전시 인구규모 변화

□ 인구규모 변화

구 분	인구(명)	증가율	구 분	인구(명)	증가율
1970년	414,598	-	1990년	1,049,578	-0.2
1971년	436,630	5.3	1991년	1,091,200	4.0
1972년	452,402	3.6	1992년	1,136,621	4.2
1973년	462,834	2.3	1993년	1,191,187	4.8
1974년	476,660	3.0	1994년	1,235,378	3.7
1975년	506,703	6.3	1995년	1,268,432	2.7
1976년	522,439	3.1	1996년	1,297,884	2.3
1977년	553,326	5.9	1997년	1,323,009	1.9
1978년	580,574	4.9	1998년	1,345,684	1.7
1979년	612,842	5.6	1999년	1,368,287	1.7
1980년	651,642	6.3	2000년	1,390,510	1.6
1981년	668,212	2.5	2001년	1,408,809	1.3
1982년	696,463	4.2	2002년	1,424,844	1.1
1983년	800,397	14.9	2003년	1,438,778	1.0
1984년	842,429	5.3	2004년	1,450,750	0.8
1985년	866,695	2.9	2005년	1,462,535	0.8
1986년	893,642	3.1	2006년	1,475,961	0.9
1987년	922,047	3.2	2007년	1,487,836	0.8
1988년	937,119	1.6	2008년	1,495,048	0.5
1989년	1,051,795	12.2	2009년	1,498,665	0.2
-	-	-	2010년	1,515,084	1.1



□ 대전시 자연적·사회적 인구변화

구 분	총진입	총진출	순이동	출생건수	사망건수	자연증가건수
1990	296,756	263,293	33,463	15,822	4,721	11,101
1991	310,452	273,837	36,615	18,462	4,889	13,573
1992	295,662	271,532	24,130	19,737	5,027	14,710
1993	335,871	297,841	38,030	20,157	4,858	15,299
1994	315,639	285,155	30,484	21,397	5,231	16,166
1995	314,804	297,054	17,750	21,619	5,465	16,154
1996	287,663	272,745	14,918	21,039	5,359	15,680
1997	295,198	285,604	9,594	20,262	5,403	14,859
1998	267,578	255,485	12,093	19,094	5,443	13,651
1999	322,783	313,174	9,609	18,526	5,617	12,909
2000	312,560	303,984	8,576	19,402	5,751	13,651
2001	304,985	298,145	6,840	17,149	5,704	11,445
2002	302,944	294,389	8,555	15,509	5,730	9,779
2003	304,736	298,910	5,826	15,573	5,811	9,762
2004	280,028	277,412	2,616	14,925	5,905	9,020
2005	287,835	284,625	3,210	13,863	5,742	8,121
2006	294,814	292,499	2,315	14,390	5,909	8,481
2007	283,080	284,128	-1,048	15,705	5,949	9,756
2008	263,532	269,142	-5,610	14,856	6,105	8,751
2009	252,424	258,182	-5,758	13,915	5,950	7,965
2010	262,432	263,477	-1,045	14,315	6,311	8,004

[총진입, 총진출, 순이동]

자료 : 시군구별 이동자수,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주 1 : 1986년 이전에는 전국 전출자료에 국외 및 기타가 포함된 경우가 있어 시도별 합이 전국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 2 : 시군구의구는특광역시외자치구로서수원,성남,안양,부천,안산,고양,용인,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시의 일부구는 제외하고, 시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포함하여 집계

주 3 : 2003년은 충북 증평군(2003.8), 충남 계동시(2003.9)가 신설되면서 충북 괴산군, 충남 논산시의 시군구 경계가 변경되어 1월~12월(분기) 합계와 연간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시군구 경계)

주 4 : 항목 > 순이동 : 순이동-전입-전출

주 5 : 항목 > 시도내이동-시군구내 : 1995년 이전은 시군구 자료가 없어 시도내이동 합오로만 나타냄

주 6 : 행정구역(시군구)별 > 창원시 : 2010년 7월 1일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되어 통합 창원시 신설

[출생건수, 사망건수, 자연증가건수]

자료 :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주 1 : 본 자료의 출생통계(1981~2008), 사망통계(1983~2007), 혼인통계(1981~2008) 및 이혼통계(1981~2008) 수치는 통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자료원 및 집계방식을 단일화하는 등 시계열을 보정한 결과로 기존의 공표자료와 차이가 있음

주 2 : 총 출생아수와 총 사망자수는 국내 거주 출생아수, 사망자수만을 집계

주 3 : 자연신고된 자료 집계 및 사망률, 출산율 산출시 반영

주 4 : 출생통계(1981~1996) 및 사망통계(1983~1996)의 자료는 10년간의 자연신고 누적분이 포함된 결과이며, 이후 연도는 동일한 기준으로 시계열을 비교하기 위해 해당연도 다음해 4월 신고분까지 집계한 결과임

주 5 : 연앙인구의 자료원(추계인구, 주민인구)과 계산방식(산출명균) 일치

주 6 : 항목 표준화 및 산출방식 일치

부록 2. 「대전시 주거이동 실태조사」 설문지

대전시민 주거이동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대전광역시의 효율적 도시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대전시민의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1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통계분석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2011. 10.

연락처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임 병 호(☎. 042-530-3511)

I 주거환경

1-1. 이전주택의 유형?

이전주택 ① 아파트 ②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③ 연립주택 ④ 기타

1-2. 주택 규모(전용면적이 아닌 분양면적)는?

현재	공동주택	약 _____ 평(또는 _____ m ²)
이전 주택	공동주택일 경우	약 _____ 평(또는 _____ m ²)
	단독주택 및 기타일 경우 (건평이나 대지 중 선택)	건평(건물 면적) 약 _____ 평(또는 _____ m ²) 대지(땅 면적) 약 _____ 평(또는 _____ m ²)

1-3. 주거의 점유형태는?

현 재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보증금 월세) ④ 기타(사글세, 일세, 무상 등)

이전주택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보증금 월세) ④ 기타(사글세, 일세, 무상 등)

1-3-2.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따로 있습니까?

① 네(따로 있음) ② 아니오(없음)

1-4. 거주연수는?

대전시 거주연수 ()년 또는 ()년 부터

현 주택 거주연수 ()년 또는 ()년 부터

II 주거이동

2-1. 귀하는 현 거주지(아파트단지)가 건설된 이후 **첫 입주자**이십니까?

- ① 네(첫 입주자임) ② 아니오(첫 입주자가 아님)

2-2. 귀하는 현 거주지(아파트단지)가 건설되기 이전부터 거주하시던 **원거주민**이십니까?

- ① 네(원거주민) 『문 2-4으로 이동』
 ② 아니오(원거주민이 아님) 『문 2-3으로 이동』

2-3. 현재 거주지로 이사오기 **직전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 ① (대전시인 경우) ☞ 대전시 _____ 구 _____ 동
 ② (대전 외 다른 시, 도인 경우) ☞ _____ 시(도) _____ 시(군, 구)
 ③ 해외

2-3-1. 현재 거주지로 오시게 된 주된 **이사동기**는 무엇입니까?(가장 중요한 동기 하나만 선택)

- ① 내 집 마련을 위해 ② 넓고 좋은 주택으로 옮기려고 ③ 주택 및 시설이 노후해서 ④ 분양받은 주택으로 이사하려고
 ⑤ 직장변동(취직 등) 때문에 ⑥ 자녀 교육여건 때문에 ⑦ 교통 때문에 ⑧ 결혼 등으로 독립하기 위해
 ⑨ 부모 자녀 등과 가까이 살려고 ⑩ 가구원수가 변해서 ⑪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⑫ 편의시설·위탁시설이 부족해서
 ⑬ 집세가 비싸서 ⑭ 소득이 줄어서 ⑮ 재개발로 인해서 ⑯ 기타

2-4.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음..... [문 2-4-1로 이동]
 ② 계획은 있으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음...[문 2-4-1로 이동]
 ③ 계획이 없음.....[다음 페이지로 이동]

2-4-1. **이사하고자 하는 지역**은 대략적으로 어디입니까?

- ① (대전시인 경우) ☞ 대전시 _____ 구 _____ 동
 ② (대전 외 다른 시, 도인 경우) ☞ _____ 시(도) _____ 시(군, 구)
 ③ 해외 및 기타

2-4-2. **이사동기**는 무엇입니까?(가장 중요한 동기 하나만 선택)

- ① 내 집 마련을 위해 ② 넓고 좋은 주택으로 옮기려고 ③ 주택 및 시설이 노후해서 ④ 분양받은 주택으로 이사하려고
 ⑤ 직장변동(취직 등) 때문에 ⑥ 자녀 교육여건 때문에 ⑦ 교통 때문에 ⑧ 결혼 등으로 독립하기 위해
 ⑨ 부모 자녀 등과 가까이 살려고 ⑩ 가구원수가 변해서 ⑪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⑫ 편의시설·위탁시설이 부족해서
 ⑬ 집세가 비싸서 ⑭ 소득이 줄어서 ⑮ 재개발로 인해서 ⑯ 기타

II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3-1. 현재 살고계신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해 얼마나 만족(또는 불만족)하시는지요?

구 분	주택 및 주거환경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주택품질	주택의 면적이나 방수				
	주택 내 주방, 화장실, 난방시설 등 시설(품질)				
	방, 거실, 주방 등 공간배치(구조)				
	채광과 통풍, 소음(층간소음, 외부소음) 등 위의 언급된 주택 품질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는?				
단지의 물리적 환경	주차공간 및 주차시설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등 부대시설				
	단지의 청소 및 관리상태 위의 단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는?				
단지의 사회적 환경	단지 이웃의 구성 및 의사소통				
	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주민간 상호활동, 행사 등 현재 단지에 대한 인식, 이미지				
	단지 주변 치안과 방법 위의 단지 사회적 환경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는?				
접근성	시내로의 대중교통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시외(타도시)로의 광역교통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시설까지 접근성 직장까지의 접근성				
	위의 거주지 접근성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는?				
주변환경 및 시설	백화점 등 판매 및 서비스시설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				
	주변 공원과 녹지시설 공연·문화시설				
	위의 주변환경 및 시설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는?				
경제적 환경	주택 유지관리비용				
	주택 투자가치(가격 상승) 위의 경제적 환경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는?				
종합만족도	이상의 모든 거주지환경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는?				

3-2. 현 거주지(아파트 단지)로의 주거이동에 대한 만족도?

- ① 매우 만족하지 못함 ② 만족하지 못함 ③ 대체로 만족함 ④ 매우 만족함

IV 가족구성

귀하는 세대주이십니까?

① 예(세대주임)

→ 1번만 기입

② 아니오(배우자임)

→ 1번, 2번 기입

1. 가구의 특성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세			
3) 학력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이상 졸업
4) 직업	① 관리자	② 전문가(전문직)	③ 사무업무	④ 서비스업
	⑤ 판매업	⑥ 주부	⑦ 기능직 업무(가공 등)	⑧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
	⑨ 군인·군무원	⑩ 농림어업	⑪ 학생	⑫ 단순노무
	⑬ 무직	⑭ 기타		
5) 직장위치	시(군)		구(읍)	
6) 차량보유 현황	() 대			
7) 거주 가족수	현 주택에 거주하는 총 가족수 () 명			
8) 가족구성	미취학아동 ()명	학생 ()명	부모님 ()명	기타 ()명
9) 월 가구 소득	① 1백만원 미만	② 1백만~5백만원 미만	③ 5백만원~1천만원미만	④ 1천만원 이상
10) 가구의 자산	① 5천만원 미만	② 5천만~1억원 미만	③ 1억~5억원 미만	④ 5억원 이상

2.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1) 세대주 성별	① 남	② 여		
2) 세대주 연령	()세			
3) 세대주 학력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이상 졸업
4) 세대주 직장위치	시(군)		구(읍)	

-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기본연구보고서 2011-15

대전시 주택개발사업에서의 인구이동

발행인 이 창 기

발행일 2011년 12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2-280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본 1길39(월평동160-20)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 영창당인쇄사 TEL 042-626-7888 FAX 042-626-9888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